2012

점역 · 교정사 양성 교육 자료집

조성재(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교수)
송지숙(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팀장)
정유라(프리랜서 점역교정사)
민병호(인천혜광학교 교사)
유현서(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팀장)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KOREA BLIND UNION

목 차

발 간 사 ····· 1

제1장 점자 상식 ····· 5

1. 점자의 창안 ····· 5
2. 점자의 공인과 보급 ····· 6
3. 한글 점자의 창안 ····· 6
4. 한글 점자의 주요 특징 ····· 7
5. 점역의 기계화와 첨단화 ····· 8
6. 주요 점역 프로그램 ····· 8

제2장 한글 점자 ····· 15

1. 한글점자 자모와 숫자의 기본 형태 ····· 15
2. 한글점자 약자와 약어 ····· 23
3. 점자 부호와 그 사용 예 ····· 30
4. 숫자 표기의 일반적인 규칙과 그 사용 예 ····· 42
5. 옛글자 ····· 49
6. 로마자 표기법 ····· 55

제3장 한글 맞춤법 규정 ····· 67

제4장 한글 표준어 규정 ····· 103

제5장 기출 문제 및 정답 ····· 131

기출 문제(11회~20회)

제6장 실전 모의 점역 문제 및 정답 ····· 219

부 록 ····· 232

발 간 사

지난 2002년부터 실시된 점역 · 교정사 자격 검정 제도는 다수의 우수한 점역사와 교정사 배출에 기여했고, 이들 중 상당수는 복지관과 점자도서관 등의 시각장애 유관 기관에 취업하여 시각장애인들의 문헌정보 접근성과 향유에 크게 이바지했다. 점역 · 교정사 자격 취득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또한 높아져서 자격검정 시험 횟수가 더해갈수록 응시생의 수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시각장애인의 문헌정보 활용과 접근에 있어 점역 · 교정사의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볼 때 이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점역 · 교정사에 대한 관심과 자격증 취득 희망자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검정시험 준비를 돕는 교재는 내용과 구성 면에서 빈약하고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이는 점역 · 교정사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는 예비 점역 · 교정사들에게 "점자는 너무 어렵다"는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2010년 점역 · 교정사 자격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연구결과 대부분이 관련 제도 보완 과정에 반영됨으로써 제도적 측면에서의 점역 · 교정사 검정은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국어 분야로 한정되기는 했지만, 기존 교재에 비해 내용과 구성의 부족함과 허술함이 상당 부분 보강된 금번 검정준비용 교재가 개발됨으로써 우리나라 점역 · 교정사 자격 제도는 양과 질 모두에서 한 단계 성장을 이루었다고 평가한다.

금번 국어분야 점역 · 교정사 검정교재 개발을 위해 연구진은 검정을 거쳐 복지관이나 점자도서관 등에서 점역사 또는 교정사로 근무하는 분들, 점역 · 교정사 검정 문제 출제자들, 그 외의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들을 교재 개발에 반영했다. 아울러, 개정된 어문 규정과 맞춤법 규정, 그리고 점자규정을 최대한 반영했다.

한편, 금번 교재의 주요 특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틀리기 쉬운 어문 규정, 점역규정 등의 이해를 돕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예문을 제시했다.

둘째, 각 단원별로 연습문제를 추가하여 학습 내용에 대한 복습이 가능토록 했다.

셋째, 점자의 역사, 주용 특징, 점역 프로그램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진 점자상식 단원을 추가하여 점자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모했다.

넷째, 현재의 점자규정과 어문 규정이 반영되어 일관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점역 · 교정사 11~20회까지의 시험 문제와 정답을 수록하여 점역 · 교정사 검정 시험의 그간 추이와 경향 파악을 꾀하였다.

다섯째, 3회분의 모의고사 문제와 해답을 수록하여 검정시험응시생들이 실전감각을 키

울 수 있도록 배려했다.

여섯째, 새로 추가된 표준어 목록과 잘못 표기하기 쉬운 용어들을 모아 부록으로 제시하여 현대국어의 흐름과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려 시도했다.

연구진은 점역 · 교정사 자격 검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점역 · 교정사 자격 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양질의 교재를 개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좀 더 잘 만들 수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어찌할 수 없는 연구자들의 책임이 아닌가 싶다. 이 교재에서 발견될지 모를 미비점과 부족한 부분은 향후 이 교재를 가지고 검정시험을 준비하는 분들과 일선에서 점역 · 교정사로 일하시는 실무자들, 그리고 점자 발전을 위해 노력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관련 전문가분들의 질타와 조언을 통해 꾸준히 개선하고 보완해 가겠다는 말로 연구진의 책임과 마음 가짐을 대변하고자 한다.

끝으로, 금번 교재 개발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동익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아울러, 연구진의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모든 분들과 교재 개발 전 과정에 걸쳐 실무적인 도움을 마다하지 않은 강완식 팀장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하는 바이다.

2012년 1월

연구진 일동

제1장 점자 상식

제1장 점자 상식

시각장애인과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점자와 관련하여 최소한의 기초적 지식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점자는 누가 만들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날의 형태를 갖추어 시각장애인의 문자로 자리매김했는지, 그리고 한글점자의 주된 특징들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점자의 창안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점자는 시각장애인들의 문자이다. 하지만, 문명사적 관점에서 볼 때 점자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있어 문자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점자는 시각장애인에게 자신감, 활자정보에 대한 접근성, 독립적 생활 능력, 그리고 고용과 사회참여에 대한 균등기회 제공 등의 혜택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다. 점자가 시각장애인의 고용 및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여러 학자들에 따르면 점자를 능숙하게 읽고 쓸 수 있는 시각장애인은 점자를 모르는 시각장애인에 비해 취업률과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한다.

그렇다면, 시각장애인의 문자 문화에 일대 혁신을 가져다 준 점자는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

점자를 최초로 만들어 사용한 사람은 19세기의 프랑스에서 살았던 루이 브라유(Louis Braille)였다. 그는 1809년 파리 근교의 조그마한 고장인 꾸쁘브레이(Coupvray)에서 마구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브라유는 세 살 때 아버지의 공방에서 칼을 가지고 놀다가 한 눈을 다쳤고, 이로 인한 감염 때문인지 오래지 않아 나머지 눈마저 시력을 상실했다고 한다. 브라유는 10세 때 파리맹학교에 입학하였고 졸업 후 그 곳에 교사로 근무하던 중 점자를 발명하게 된 것이다.

브라유가 점자를 창안하게 된 것은 당시 프랑스의 군 장교였던 바르비에(Charles Barbier)의 야간문자(Ecriture Nocturne) 발명과 판자에 일반 글자를 양각하여 공부하던 당시 시각장애 학생용 교재의 비효율성 때문이었다고 한다. 바르비에는 밤에 군사용 메시지를 전달할 목적으로 손가락으로 읽을 수 있는 점으로 된 문자를 창안했다. 그의 야간문자는 위에서 아래로 6점, 좌우를 2줄로 하여 모두를 6점으로 구성되었고, 이 때 사용했던 점자 필기도구는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점자판, 점필과 비슷했다.

바르비에는 시각장애인이 야간 문자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1821년 파리맹학교에서 그 문자를 시범해 보였다. 당시 파리 맹학교에 재학 중이던 브라유는 야간문자를 보고 위에서 아래로 6점을 한 번에 지각하기에 너무 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브라유는 점칸을 반으로 줄여 위에서 아래로 3점, 좌우

2줄 모두를 6점으로 하는 방식을 통해 새로운 점편을 만들었다. 후일의 연구에서 6점의 배열이 촉독에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브라유는 1824년에 점자를 창안했고, 1829년에 자신의 문자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1837년 자신이 만든 점자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여 사람들에게 소개하였으나 당시에는 아무도 그의 위대한 발명을 알아주지 않았다. 하지만,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읽고 쓸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해 준다는 장점으로 인해 점점 더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아이러니하게도 파리 맹학교는 그가 죽은 지 2년 후인 1854년 점자를 공식 시각장애인 문자로 공인하기에 이른다. 그 결과, 오늘날의 점자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시각장애인의 문자로 공인되었다. 참고로, 점자를 영어로는 Braille라고 하는데, 이는 루이 브라유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2. 점자의 공인과 보급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점자가 전 세계 시각장애인들의 문자로 공인되어 사용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논란과 진통을 겪어야만 했다. 어떤 점자를 표준으로 할 것인가를 두고 30여년에 걸쳐 전개된 '점 전쟁'은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점 전쟁'은 6점 점자인 브라유식 점자와 4점 점자인 뉴욕점자(New York Point) 그리고 사용빈도수가 높은 글자에 점의 수가 적은 점형을 배정한 미국점자(American Braille) 사이에 있었던 논쟁을 말한다.

뉴욕점자는 뉴욕 맹학교 교장이었던 웨이트(William B. Wait)가 고안했는데, 위에서 아래로 2점, 좌우로 2점 모두 4점으로 구성되었으며, 알파벳에 따라서는 두 칸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 후 퍼킨스 맹학교의 음악교사이던 스미스(Joel Smith)가 미국점자(American Braille)를 개발함에 따라 미국의 맹학생들은 뉴욕점자, 미국점자, 브라유식 점자, 보스턴 선문자 등을 혼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브라유식 점자가 매우 체계적이었으므로 1882년 유럽회의(European Conference)에서 브라유식 점자를 통일 점자로 채택하였다.

3. 한글 점자의 창안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한글 점자는 누가 만들었을까? 한글 점자는 1926년 당시 제생원 맹아부(오늘날 서울맹학교의 전신) 교사로 재직하고 있던 송암 박두성에 의해 만들어졌다. 박두성은 1913년 제생원 교사로 임명되어 맹교육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박두성은 재생원에서 시각장애 학생들을 가르치던 중 로제타 홀 여사가 4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New York식 점자를 개량하여 만든 평양점자의 불편함과 비효율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평양점자는 하나의 자음이나 모음을 표기하는데 두 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초성 자음과 종성 자음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결함을 지니고 있

었던 것이다. 그 결과 1920년 제자들과 함께 '조선어 점자 연구위원회'를 조직하여 한글 점자를 제정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 그는 6년간의 걸친 연구와 시행착오 끝에 1926년 11월 4일 6점으로 이루어진 오늘날의 한글 점자의 원형이라 할 '훈맹정음'을 창안하기에 이르렀다. 참고로, 11월 4일은 점자기념일로 제정되어 한글 점자를 창안한 박두성의 업적을 길이고 있다.

박두성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조선어 독본, 천자문, 명심보감, 편지틀, 불쌍한 동무 등 많은 도서를 직접 점역하여 보급하는 등의 도서관 사업을 벌이기도 했다. 또한, 점자를 모르는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점자판(나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점자 필기도구)과 점자 해설서, 조선어 독본을 보내어 통신교육을 실시하여 문맹퇴치에 앞장서기도 했다.

시인 노산 이은상은 이와 같이 우리나라 맹교육에 가장 빛나는 업적을 남긴 박두성을 가리켜 '맹인의 세종대왕'이라고 칭송하기도 했다.

4. 한글 점자의 주요 특징

점자는 6점(세로로 3점, 가로로 2점)으로 구성되고, 왼쪽 위에서 아래로 1, 2, 3점,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4, 5, 6점의 번호를 붙여 사용한다. 이 6개의 점을 조합하여 64(26)개의 점형을 만든다. 따라서 점자는 많은 점형으로 이루어지고, 그 점형에 의미가 부여된 문자이다.

64개의 점형 중 하나는 점을 하나도 찍지 않은 빈칸으로, 이 빈칸은 묵자에서 단어 사이를 띄우는 것과 같이 점자 단어 사이를 띄우는데 사용된다. 그 외의 63개의 점형을 초성 자음 13자, 종성 자음 14자, 모음 21자, 약자 27자, 약어 7개, 숫자, 문장부호 등에 배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점자의 기본 구조는 묵자와 다르다.

점자는 위에서 설명한 구조적 차이뿐만 아니라 문법적 구조에서도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다. 그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성 자음과 종성 자음이 다르게 만들어졌다.

둘째, 점자에서는 초성 'ㅇ'을 사용하지 않는다.

셋째, 초성 'ㄲ, ㄸ, ㅃ, ㅆ, ㅉ'을 표기할 때에는, 앞의 'ㄱ, ㄷ, ㅂ, ㅅ, ㅈ'에 된소리표(6점)을 덧붙여 적는다.

넷째, 부피를 줄이고 읽기와 쓰기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27개의 약자와 7개의 약어를 사용한다.

다섯째, 약자 '영'은 그 앞에 'ㅅ, ㅆ, ㅈ, ㅉ, ㅊ'이 올 때에는 '엉'이 된다.

여섯째, 모음 겹글자 '애'는 '야+이'가 아니라 '야+애'로, '위'는 '우+이'가 아니라 '우+애'로 쓴다.

일곱째, 모음 겹글자 '왜'는 '오+애'가 아니라 '와+애'로, '웨'는 '우+에'가 아니라 '워+애'로 쓴다.

여덟째, 점자는 모아쓰지 않고 풀어 쓴다. 예를 들면, '국'을 'ㄱ, ㅜ, ㄱ'으로 적는다.

한편, 점자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장애인의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이다.
둘째, 시각장애인이 비교적 쉽게 배워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셋째, 맹농인에게 있어 거의 유일한 실질적 의사소통 수단이다.
넷째, 정독과 재독을 할 수 있다.
다섯째, 올바른 맞춤법과 철자 습득에 도움이 된다.

점자의 단점들을 살펴보면,
첫째, 읽기 속도가 목독이나 청독보다 현저하게 느리다.
둘째, 점자도서나 간행물을 구하기 어렵다.
셋째, 점자도서 제작은 높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넷째, 공간을 많이 차지하여 휴대와 보관이 어렵다.
다섯째, 약자 사용으로 인해 올바른 철자법 습득을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 점역의 기계화와 첨단화

일리노이 맹학교 교장이던 홀(Frank Hall)은 1892년 세계 최초로 아래에서 위로 올려 찍는 방식을 차용한 점자타자기를 개발했다. 아래에서 위로 점자를 찍도록 한 방식의 적용으로 인해 시각장애인도 점자를 쓰면서 자신이 필기한 내용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1908년 영국의 스테인스비(Henry Stainsby)는 점자판과 같이 점자를 위에서 아래로 찍는 점자타자기를 개발했다. 이 두 점자타자기는 1951년에 퍼킨스 점자타자기(아래에서 위로 찍는 방식 채용)가 개발되어 널리 보급되기 전까지 함께 사용되었다.

또한 홀은 아연판에 점자를 찍어 인쇄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점자제판기와 점자인쇄기를 개발하기도 했다. 아울러, 1920년 미국맹인재단(American Foundation for the Blind: AFB)은 점간제판기(interpoint 방식)를 개발함으로써 점자 출판물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과 책의 부피를 각각 40% 가까이 줄이는 데에 기여했다.

한편, 최근에는 점역용 컴퓨터 소프트웨어(점사랑, Duxbury 등), 점자프린터(Braillo, Everest 등), 점자정보단말기(한소네, Braille Note 등) 등이 개발되어 시각장애인의 문자정보 생활을 한층 용이하게 만들어 주었다. 특히 점역용 소프트웨어의 개발은 점역 자료의 내용은 물론, 각종 서지 정보와 문서양식을 구현케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면 아래에서 이들 점역용 소프트웨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6. 주요 점역 프로그램

1990년대 초를 기점으로 컴퓨터의 활용이 일반화되고 다양한 분야에 걸친 소프트

웨어 개발이 활발해짐에 따라 점역사의 수작업을 통해 이루어지던 기존의 점역 방식에도 커다란 변화가 도래했다. 즉, 점자판, 점자타자기, 셔틀을 이용한 연판점역 등의 방식으로 점자도서를 제작하던 기존의 점자도서 제작 방식이 정교한 기능을 지원하는 점역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일괄 점역 방식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점역 방식은 아래아 한글로 대표되는 워드프로세서를 통해 제작된 문서 파일을 점역소프트웨어를 통해 점자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친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점역은 시간의 단축은 물론 점자를 모르는 사람도 점역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우리나라에서 상용화되어 대량 점역에 본격적으로 사용된 최초의 점역 프로그램은 1992년 임장순이 개발한 Braille Best였다. Braille Best는 당시의 개인용 컴퓨터의 범용 운영체계였던 도스(Disk Operating System: DOS)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개발된 점역용 프로그램으로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되어 텍스트(아래아한글 조합형)로 저장된 문서를 한글, 한영, 영문 등의 점자 파일로 변환해 주는 기능을 제공했다. Braille Best는 영어 약자/정자 선택, 페이지 입력 기능, 단면/양면 점역 설정 등의 기능을 지원했다. 이후 지속적인 기능 개선을 통해 꼬리말과 머리말 달기, 목차 생성 등의 기능을 추가함으로서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독점적으로 사용되었다.

1995년 충북대학교와 청주맹학교는 워드프로세서로 만들어진 문서를 점자로 변환해 주는 점역기능과 간단한 워드프로세서 기능이 탑재된 BWD를 개발하였다. BWD의 개발은 시각장애인도 자신이 작성한 문서를 점역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을 뿐 아니라 정안인 점역사가 점자로 변환된 파일을 컴퓨터에서 점자로 편집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입력, 점역, 점자 파일에 대한 편집과 서식 등의 작업을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작업할 수 있는 점역 시스템 구축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한편, 컴퓨터 운용체제가 윈도로 바뀌면서 점역프로그램에도 이 같은 컴퓨터 환경 변화에 상응하는 진화가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실로암복지관에서는 개인과 기관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던 Braille Best를 모체로 윈도 환경에서 점역이 가능한 Braille Seoul을 개발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미국의 대표적인 점역 프로그램인 Duxbury를 기반으로 '실로암 브레일'을 개발하기도 했다.

현재 국내에서 개발된 점역프로그램은 한글점역, 영어점역, 일부 유니코드 문자 점역 등이 가능한 수준이다. 한글만으로 작성된 단순한 문서의 점역에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정확도를 보이지만 한글과 영어가 혼합된 문서는 점역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 개발된 Duxbury는 다양한 편집 및 레이아웃 설정 및 외국어 점역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Duxbury는 꼬리말/머리말 달기, 묵자페이지 삽입, 페이지 변경, 목차 생성 등의 고급 기능 사용이 매우 편리하고 대량의 문서 점역과 편집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덕스베리는 메뉴를 통해 접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기능을 코드값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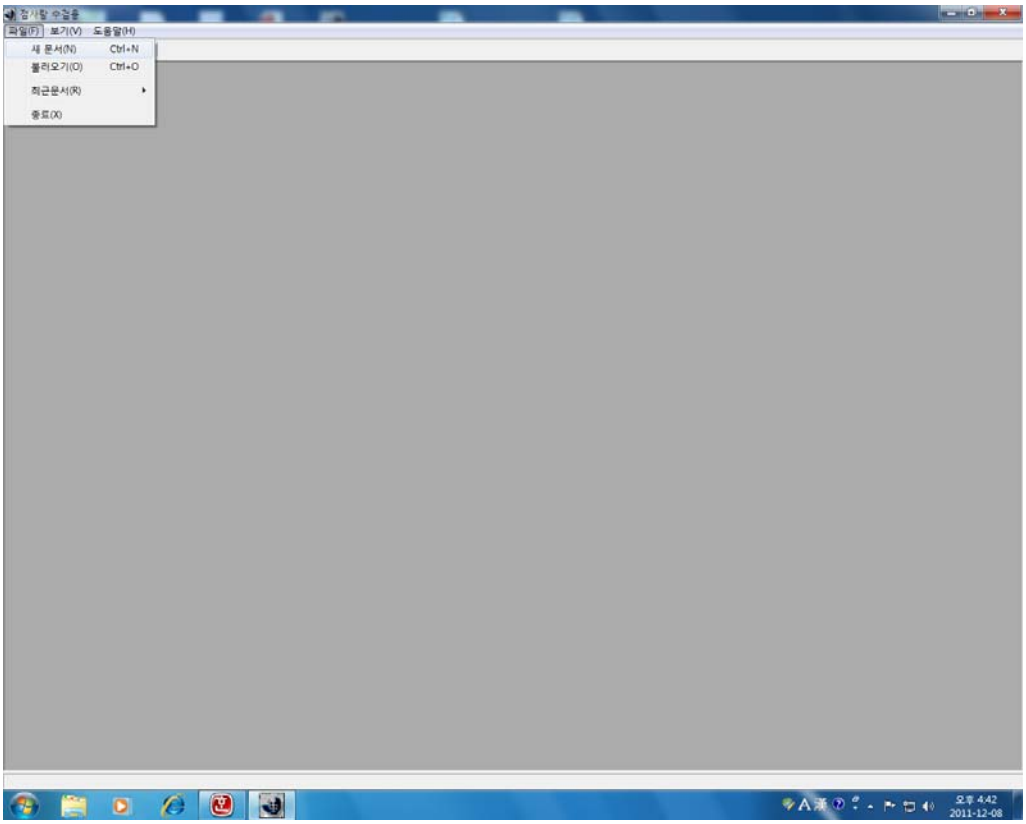
주는 방식으로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한편, 덕스베리 프로그램은 10.7 이후로 출시된 버전부터는 한글 메뉴를 지원하여 국내 점역사들의 사용성과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켜 주었다.

1) 점사랑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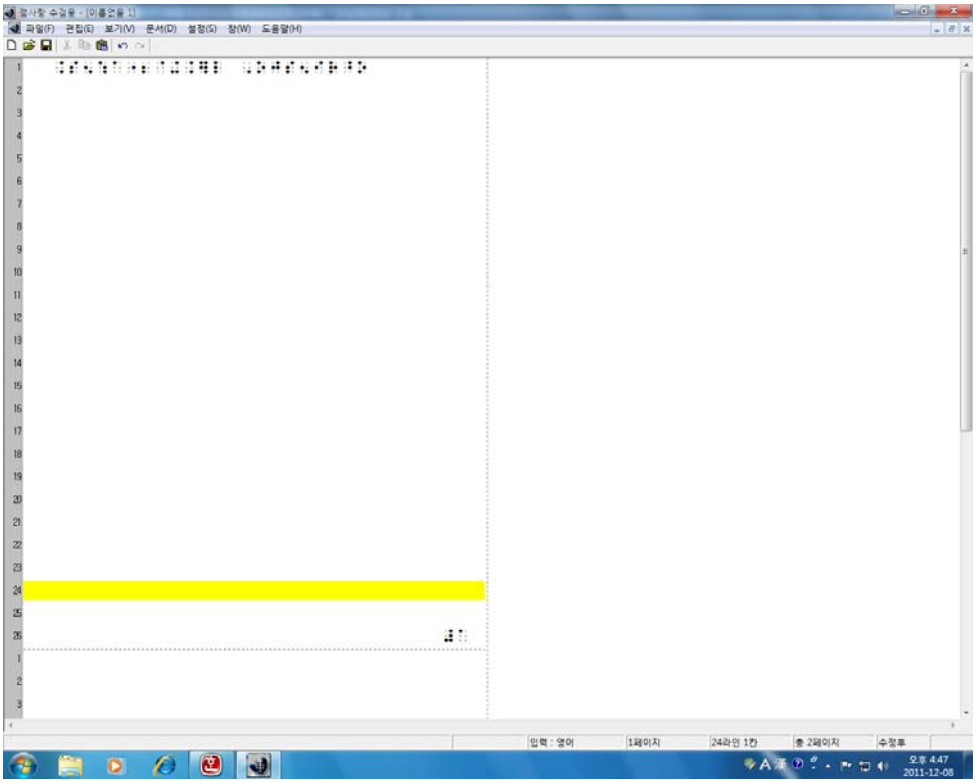
여기서는 점역·교정사 시험 수검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사랑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점사랑은 1996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처음 개발하였다. 현재는 기존 프로그램의 사용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한 업그레이드 버전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점사랑은 입력 방법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용 방법이 앞에서 설명한 점역 프로그램들과 유사하다. 여기서는 점역·교정사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점사랑 사용에 필요한 사항들을 간략히 설명해 보기로 한다. 한편, 점사랑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운영하는 시각장애인용 사이트인 넓은마을(www.kbuwel.or.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다.

(1) 바탕화면에서 점사랑을 더블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후, '파일-새문서'를 연다.



(2) 페이지의 기본 설정값이 32칼럼 26라인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점자페이지는 잘 나오는지 확인한다. (프로그램상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시험시에는 엔터나 키보드를 작동하여 확인해본다.)



(3) 점자 입력은 6점식(fds-jkl)으로 입력하며, 점사랑의 기본 기능키를 인지하면 답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보다 짧은 시간 내에 편리하게 입력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수험번호나 이름처럼 반복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내용은 복사하여 매 페이지에 삽입하면 편리하다.

(4) <기본 기능키>

블록설정: Shift+화살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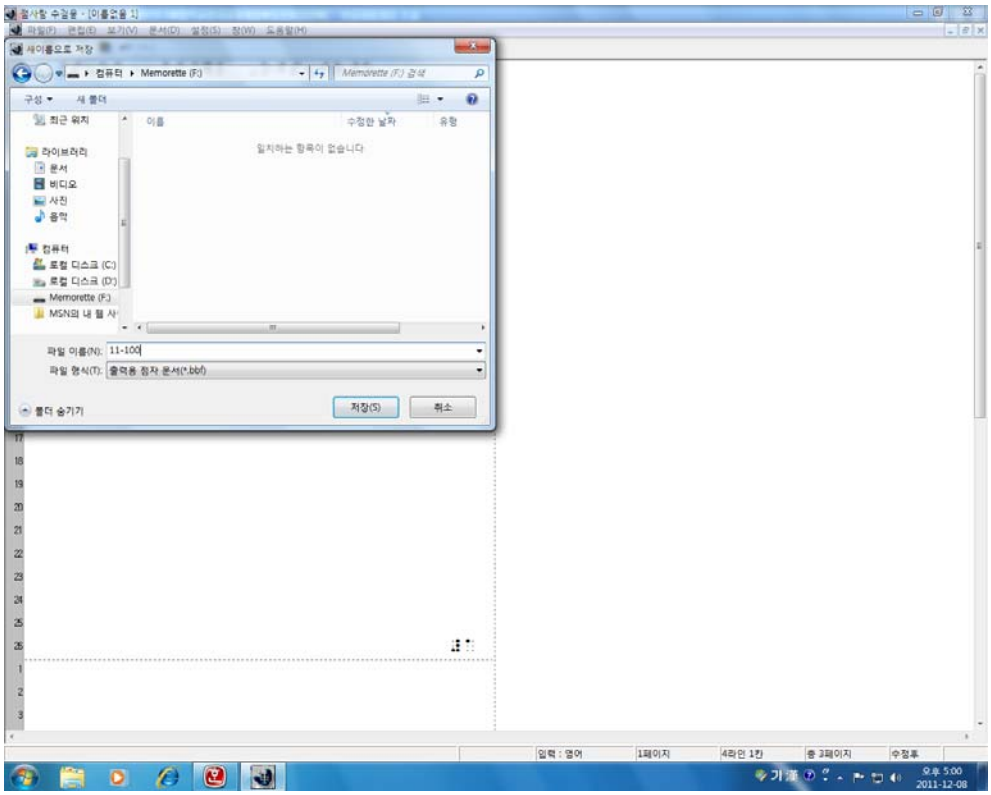
복사: Ctrl+C

붙이기: Ctrl+V

지우기: Delete

(5) 저장은 '파일-다른 이름으로 저장'에서 파일 이름(해당 연도와 수험번호를 삽입함)을 입력하고 파일 형식은 출력용 점자문서(*.brl 또는 *.brf) 중 수험장에서 지시된 파일 형식으로 저장한다. 저장 위치는 수험용 컴퓨터에 점역교정사 폴더로 지정한다. 완성된 답안 파일을 USB에 복사하여 제출한다.

* 저장된 답안 파일의 이름, 형식, 위치는 주최 측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6) 시험 준비를 위한 팁!

① 입시장에는 시험시작 전 30분 전부터 입실이 가능하므로 미리 입실하여 자신의 자리와 컴퓨터를 확인한다.

② 키보드의 터치감과 6점 방식의 입력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확인해 본다.

③ 시험문제를 풀기에 앞서 첫 페이지에 자신의 수험번호와 이름을 미리 입력하여 저장한다. 시험 중 수시로 Ctrl+V 키를 눌러 작업한 파일을 저장하여 작업한 내용의 삭제나 손실을 예방한다.

④ 시험을 종료하기 전 적어도 5분 전에는 파일을 USB에 복사하고 반드시 저장 여부를 확인한 후 점사랑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⑤ 제출된 답안지 순서에 따라 점자출력이 진행되며, 출력된 본인 답안지 각 페이지에 확인사인이 끝나면 시험이 종료된다.

⑥ 끝으로 시험 답안지 점자출력과 확인사인 시간이 많이 소요됨으로 파일 제출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제2장 한글 점자

제2장 한글 점자

묵자에는 표시되지 않으나 점자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부호를 점자부호라고 한다. 한글점자규정에서 다루는 점자부호에는 온표, 수표, 로마자표, 로마자 대문자 기호가 있다.

(표) 한글에서 사용되는 점자부호

명칭	점형	점위치
온표	⠿	1-2-3-4-5-6점
수표	⠼	3-4-5-6점
로마자표	⠴	3-5-6점
로마자종료표	⠲	2-5-6점
로마자 대문자 기호	⠠	6점

① 온표: 온표는 자음이나 모음이 단독으로 쓰일 때, 자음을 이용하여 순서를 나타내는 번호로 표시할 때, 점의 위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사용한다(사용 예는 본문에서 확인할 것).
② 수표: 수표는 '이후부터 숫자의 점형이다'를 표시하는 점자부호이다(사용 예는 본문에서 확인할 것).
③ 로마자표: 로마자표는 '이후부터는 로마자가 시작된다'는 점자부호이며, 로마자표 부호와 로마자 종료표 부호로 이루어져 있다(사용 예는 본문에서 확인할 것).
④ 로마자 대문자기호: 이 기호는 ⠠(6점)으로 사용되며 ⠠(6점)은 '이 기호 다음 한글자만 대문자이다'를 나타낸다. 이중대문자 기호인 ⠠⠠(6점, 6점)은 '이후부터 칸을 띄기 전까지 모두 대문자이다'를 나타내는 부호이다(사용 예는 본문에서 확인할 것).

1. 한글점자 자모와 숫자의 기본 형태

1) 한글 점자 자모

(1) 한글 자음은 14개가 있으며, 첫소리 자리에 쓰일 때에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표 1-1) 첫소리 자리에 쓰인 자음

명칭	점형	점위치
기역	⠈	4점
니은	⠉	1-4점
디귿	⠊	2-4점
리을	⠐	5점
미음	⠑	1-5점
비읍	⠘	4-5점
시옷	⠠	6점
이응	⠛	1-2-4-5점
지읒	⠨	4-6점
치읓	⠸	5-6점
키읔	⠋	1-2-4점
티읕	⠓	1-2-5점
피읖	⠙	1-4-5점
히읗	⠚	2-4-5점

(2) 받침으로 쓰인 자음의 점형은 다음과 같다.

(표 1-2) 받침으로 쓰인 자음

명칭	점형	점위치
기역	⠁	1점
니은	⠒	2-5점
디귿	⠔	3-5점
리을	⠂	2점
미음	⠢	2-6점
비읍	⠃	1-2점
시옷	⠄	3점
이응	⠶	2-3-5-6점
지읒	⠅	1-3점
치읓	⠆	2-3점

키읔	⠖	2-3-5점
티읕	⠦	2-3-6점
피읖	⠲	2-5-6점
히읗	⠴	3-5-6점

(3) 기본 모음의 점형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표 1-3) 기본 모음

명칭	점형	점위치
아	⠣	1-2-6점
야	⠜	3-4-5점
어	⠎	2-3-4점
여	⠱	1-5-6점
오	⠥	1-3-6점
요	⠬	3-4-6점
우	⠍	1-3-4점
유	⠩	1-4-6점
으	⠪	2-4-6점
이	⠕	1-3-5점

(4) 자음과 모음은 다음과 같이 어울려 적는다.

(예) 거지 ⠈⠎⠨⠕ 고무 ⠈⠥⠑⠍
고추 ⠈⠥⠱⠍ 구리 ⠈⠍⠐⠕
루비 ⠐⠍⠘⠕ 미터 ⠑⠕⠓⠎
소리 ⠠⠥⠐⠕ 조수 ⠨⠥⠠⠍
주스 ⠨⠍⠠⠪ 호주 ⠚⠥⠨⠍

(5) ‘ㅇ’이 첫소리 자리에 쓰일 때에는 이를 표기하지 않으며, ‘ㅇ’을 표기하지 않고 적는 것을 정자로 삼는다. 특별히 첫소리 ‘ㅇ’을 표기해야 할 때에는 첫소리 형태의 점형인 ㅇ(⠛ 1-2-4-5점)을 사용한다.

(첫소리 ‘ㅇ’을 생략하는 예)

아이 ⠣⠕ 오이 ⠥⠕ 우유 ⠍⠩
임무 ⠕⠢⠑⠍ 파이 ⠙⠣⠕ 호랑이 ⠚⠥⠐⠣⠶⠕

(첫소리 'ㅇ'으로 사용하는 예)
초성 ㅇ ⠶

(5) 받침이 들어간 글자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예) 김치 ⠈⠣⠊⠪⠈⠪ 노랑 ⠝⠒⠗⠣⠶ 도랑 ⠊⠒⠗⠣⠶
양념 ⠐⠣⠶⠝⠒⠶ 축구 ⠈⠩⠍⠈⠍ 하얀 ⠚⠣⠔⠢⠶

(6) 된소리 글자 'ㄲ, ㄸ, ㅃ, ㅆ, ㅉ'이 첫소리 자리에 쓰일 때에는 각각 'ㄱ, ㄷ, ㅂ, ㅅ, ㅈ' 앞에 된소리표(⠠ 6점)를 적어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모음과 어울러 적는다.
(예) 꼬리 ⠠⠈⠥⠒⠠⠬ 꾸중 ⠠⠈⠍⠍⠠⠈⠶ 빰 ⠠⠘⠣⠢
씽씽 ⠠⠌⠬⠶⠠⠌⠬⠶ 쩌렁쩌렁 ⠠⠨⠎⠒⠿⠠⠨⠎⠒⠿

(7) 쌍받침 'ㄲ'은 ⠁⠁(1점, 1점)으로 적고, 쌍받침 'ㅆ'은 약자인 ⠐(3-4점)으로 적는다.
(예) 밖에 있습니다 ⠘⠍⠁⠊ ⠬⠶⠁⠬⠍⠶⠁⠬⠒

(8) 겹받침으로 쓰인 'ㄵ, ㄶ, ㄻ, ㄼ, ㅀ, ㅄ'은 각 자음자의 받침 표기를 이용해 어울러 적는다.
(예)

ㄵ: 앉다 ⠣⠶⠈⠣
ㄶ: 않다 ⠣⠶⠚⠣
ㄻ: 읽다 ⠬⠂⠈⠣
ㄼ: 옮기다 ⠶⠥⠫⠬⠈⠕
ㅀ: 얇다 ⠬⠂⠚⠣
ㅄ: 없다 ⠬⠈⠎⠣
ㄾ: 잃다 ⠬⠂⠊⠣

(9) 그 밖의 모음자 'ㅐ, ㅒ, ㅔ, ㅖ, ㅘ, ㅙ, ㅚ, ㅝ, ㅞ, ㅟ, ㅢ'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표 1-4) 이중, 삼중모음

명칭	점형	점위치
애	⠜	1-2-3-5점
얘	⠐⠜	3-4-5, 1-2-3-5점
에	⠝	1-3-4-5점
예	⠌	3-4점
와	⠧	1-2-3-6점
왜	⠧⠜	1-2-3-6, 1-2-3-5점
외	⠽	1-3-4-5-6점

워	⠏	1-2-3-4점
웨	⠏⠺	1-2-3-4, 1-2-3-5점
위	⠍⠺	1-3-4, 1-2-3-5점
의	⠺	2-4-5-6점

(예) 개관 ⠅⠺⠛⠢ 개구리 ⠅⠺⠍⠎⠗⠊ 네모 ⠝⠑⠍⠳ 예의 ⠌⠺
화재 ⠺⠢⠌⠺ 왠지 ⠢⠺⠝⠨⠉⠕ 외계 ⠺⠬⠈⠣ 스웨덴 ⠠⠎⠺⠑⠙⠑⠝⠢
위치 ⠍⠺⠨⠪ 의지 ⠺⠨⠕

(10) 모음 다음 ‘예’가 이어질 때에는 그 사이에 붙임표(⠤ 3-6점)를 적어 나타낸다. 하지만 모음으로 끝나는 글자와 ‘예’ 사이에서 줄이 바뀔 때에는 붙임표를 적지 않는다.

(붙임표를 붙이는 예)
기-예 ⠈⠕⠤⠌⠕ 도-예 ⠊⠥⠤⠌⠕ 서-예 ⠠⠎⠤⠌⠕ 아-예 ⠁⠤⠌⠕
(붙임표를 붙이지 않는 예)
추사 김정희는 유명한 서예가입니다.
⠠⠍⠎⠁ ⠈⠊⠝⠠⠻⠓⠢⠁⠉⠒ ⠠⠊⠝⠓⠢⠁⠚⠕⠒
⠠⠎⠺⠌⠺⠉⠕⠲

* ′예′의 점형과 2장에서 다룰 쌍시옷받침 약자 ′ㅆ′의 점형이 ⠠(3-4점)으로 같기 때문에 모음으로 끝나는 글자 뒤에 나오는 ′예′는 쌍시옷받침 약자와 혼동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모음으로 끝나는 글자와 ′예′ 사이에 붙임표(-)를 삽입하여 붙임표 뒤의 ⠠(3-4점)은 ′예′로 읽혀지는 것으로 정하였다.

(11) ‘ㅑ, ㅘ, ㅜ, ㅝ’에 ‘애’가 이어 나올 때에는 그 사이에 붙임표를 적어 나타낸다. 하지만 ‘ㅑ, ㅘ, ㅜ, ㅝ’와 ‘애’ 사이에서 줄이 바뀌면 붙임표를 적지 않는다.

(붙임표를 붙이는 예)
구-애 ⠈⠍⠤⠖⠗ 우-애 ⠍⠤⠖⠗ 소화-액 ⠠⠎⠥⠓⠭⠤⠖⠗⠁⠗
(붙임표를 붙이지 않는 예)
침, 쓸개즙 등의 소화액은 소화효소를 가지고 있다.
⠠⠩⠔⠚ ⠠⠎⠳⠫⠢⠅⠰⠚ ⠠⠎⠥⠓⠭⠤⠖⠗⠁⠗⠨⠚ ⠠⠎⠥⠓⠭⠤⠓⠭⠎⠬⠨⠚ ⠎⠥⠓⠭⠤⠖⠗⠁⠗⠨⠚
⠠⠎⠥⠓⠭⠲

※ ′애′의 점형인 ⠖(1-2-3-5점)은 ′ㅐ, 왜, 위, 웨′의 표기 시 ′야, 와, 우, 워′와 함께 사용된다. 따라서 ′야, 와, 우, 워′ 뒤에 ′애′가 나오면 ′애, 왜, 위, 웨′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야, 와, 우, 워′와 ′애′ 사이에 붙임표를 삽입하여 붙임표 뒤의 ⠖(1-2-3-5점)은 ′애′로 읽혀지도록 정하였다.

(12) 자음자나 모음자가 단독으로 쓰일 때에는 해당 글자 앞에 온표(⠿ 1-2-3-4-5-6점)를 적어 나타낸다.

(예) ㄱ ⠿⠁ 1-2-3-4-5-6, 4점

ㅏ ⠿⠣ 1-2-3-4-5-6, 1-2-6점

2) 숫자의 기본 형태

(1) 숫자를 적을 때에는 숫자의 점형 앞에 이후부터 숫자가 시작된다는 의미를 가진 점자부호인 수표(⠼ 3-4-5-6점)를 적어 숫자를 나타낸다. 수표를 포함한 숫자의 점형은 다음과 같다.

(표 1-5) 숫자

명칭	점형	점위치
1	⠼⠁	3-4-5-6, 1점
2	⠼⠃	3-4-5-6, 12점
3	⠼⠉	3-4-5-6, 14점
4	⠼⠙	3-4-5-6, 145점
5	⠼⠑	3-4-5-6, 15점
6	⠼⠋	3-4-5-6, 124점
7	⠼⠛	3-4-5-6, 1245점
8	⠼⠓	3-4-5-6, 125점
9	⠼⠊	3-4-5-6, 24점
0	⠼⠚	3-4-5-6, 245점

(2) 두 자리 이상의 수를 적을 때에는 맨 앞에 있는 숫자의 점형 앞에만 수표를 적어 나타낸다.

(예) 10 ⠼⠁⠚ 100 ⠼⠁⠚⠚ 1000 ⠼⠁⠚⠚⠚

(3) 한글점자규정 제38항에 의거 숫자 다음에 한글이 이어 나올 때에는 숫자와 한글을 붙여 쓴다.

(예) 1권 ⠼⠁⠍ 2부 ⠼⠃⠀ 3층 ⠼⠉⠌

(4) 숫자의 점형과 같은 점형을 가진 자음(ㄴ, ㄷ, ㅁ, ㅋ, ㅌ, ㅍ, ㅎ)으로 시작하는 글자와 약자 운(2장에서 다룰 예정)이 숫자 뒤에 붙어 나올 때에는 그 글자들이 숫자로 잘못 읽혀질 수 있으므로 숫자와 해당 글자를 띄어야 한다.

(예) 1대 ⠼⠁ ⠊⠙ 2도 ⠼⠃ ⠠⠙

3호 ⠼⠉ ⠠⠓ 4표 ⠼⠙ ⠠⠏

〈 연 습 문 제 〉

1. 다음 중 한글점자규정의 내용을 바르게 기술한 곳에는 (O), 잘못 기술한 곳에는 (X)로 표시하시오.

(1) ‘ㅇ’이 첫소리 자리에 올 때에는 ‘ㅇ’을 표시하지 않는다.

(2) 모음 다음에 ‘예’가 붙어 나올 때에는 ‘예’와 그 앞글자 사이에 붙임표를 적는다.

(3) 쌍받침 ‘ㅆ’은 (3, 3)점으로 적는다.

(4) 한 단어 안에 모음으로 끝나는 글자와 ‘예’ 사이에서 줄이 바뀔 때에는 붙임표를 적지 않는다.

(5) 숫자 뒤에 한글이 나올 때 숫자와 한글은 모두 띄어 적는다.

2. 다음 문장을 한글점자규정에 맞게 점역하시오.

(1) 백수의 3단계를 말해 볼래?

(2) 안국역으로 가려면 몇 번 버스를 타야 되나요?

(3) 제약업체의 횡포는 우리를 몸서리치게 했다.

(4) 그 일은 재고해주심이 마땅합니다.

(5) 그 아이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터뜨리고 말았다.

3. 다음을 한글점자규정에 맞게 점역하시오.

봄이 왔어요. 봄을 알리기 위해 소쩍새가 울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는 국화 싹을 심은 화분을 햇볕이 잘 드는 따뜻한 곳으로 옮겨 주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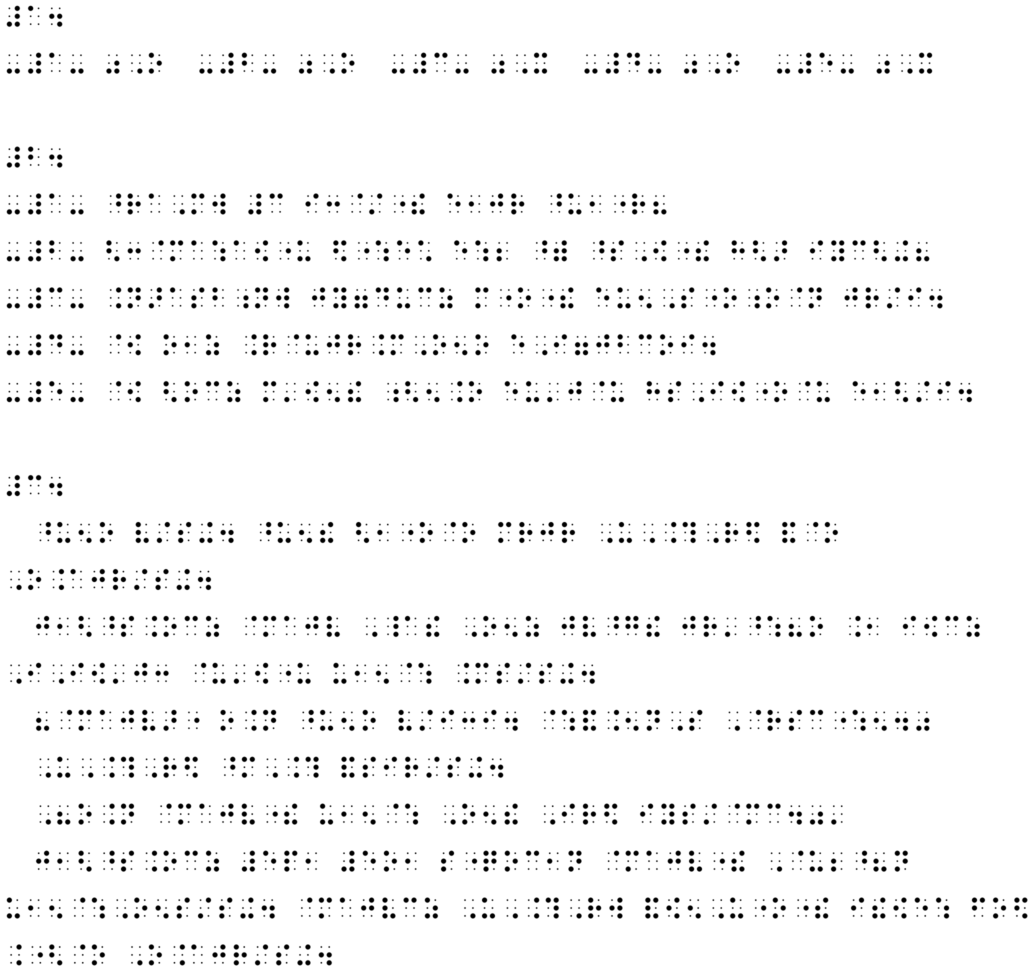
"국화야, 이제 봄이 왔단다. 겨울잠에서 깨어나렴."

소쩍새가 부쩍 울어댔어요.

'이제 국화를 옮겨 심을 때가 되었구나.'

할아버지는 5월 5일 어린이날에 국화를 꽃밭에 옮겨 심었어요. 국화는 소쩍새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키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 정 답 〉



＊ 주: 위의 문장, 단락에서 쓰인 문장부호의 점형은 다음과 같다.

명칭	점형	점위치
온점(.)	⠲	2-5-6점
물음표(?)	⠦	2-3-6점
반점(,)	⠐	5점
여는따옴표(")	⠦	2-3-6점
닫는따옴표(")	⠴	3-5-6점

2. 한글점자 약자와 약어

(표 2-1) 약자

명칭	점형	점위치
가	⠫	1-2-4-6점
나	⠉	1-4점
다	⠊	2-4점
마	⠑	1-5점
바	⠘	4-5점
사	⠇	1-2-3점
자	⠨	4-6점
카	⠋	1-2-4점
타	⠓	1-2-5점
파	⠏	1-4-5점
하	⠚	2-4-5점
억	⠽	1-4-5-6점
언	⠾	2-3-4-5-6점
얼	⠞	2-3-4-5점
연	⠒	1-6점
열	⠳	1-2-5-6점
영	⠻	1-2-4-5-6점
옥	⠬	1-3-4-6점
온	⠷	1-2-3-5-6점
옹	⠿	1-2-3-4-5-6점
운	⠛	1-2-4-5점
울	⠧	1-2-3-4-6점
은	⠵	1-3-5-6점
을	⠮	2-3-4-6점
인	⠟	1-2-3-4-5점
것	⠸⠎	4-5-6, 2-3-4점

(1) ‘가~하’ 중 ‘가’와 ‘사’는 별도의 약자(‘가’는 ⠫(1-2-4-6점), ‘사’는 ⠇(1-2-3점으로 표기하여 적는다. 또한 ‘가’와 ‘사’가 된소리인 경우 위의 약자 앞에 된소리표(⠠ 6점)을 적어 나타낸다.

(예) 가게 ⠫⠠⠫ 감사 ⠫⠠⠇ 가수 ⠫⠠⠨ 가요 ⠫⠠⠬

사격 ⠎⠁⠈⠁⠊⠈⠁⠅ 사원 ⠎⠁⠈⠧⠐⠢ 용사 ⠈⠬⠈⠎⠁ 회사 ⠓⠈⠎⠁

까투리 ⠈⠁⠈⠞⠈⠥⠈⠗⠈⠊ 쌀국수 ⠈⠎⠁⠈⠅⠈⠥⠈⠎⠈⠍

(2) '가'와 '사'를 제외한 모음이 'ㅏ'인 글자 중 '나, 다, 마, 바, 자, 카, 타, 파, 하'는 'ㅏ'를 생략하여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받침을 포함할 때도 'ㅏ'를 생략한다. 위의 글자 중 '다, 바, 자'가 된소리 글자인 경우 위의 약자에 된소리표(⠠ 6점)을 적어 나타낸다.

(예) 나무 ⠉⠍⠈⠍ 다람쥐 ⠊⠈⠍⠇⠈⠍⠨⠈⠚⠍ 승마 ⠈⠕⠈⠧⠍ 방법 ⠘⠧⠈⠘⠍

빗자루 ⠘⠊⠈⠨⠈⠍⠈⠎ 차장 ⠈⠩⠈⠍⠧ 타조 ⠞⠈⠍⠈⠨ 팥죽 ⠏⠧⠈⠨⠈⠍

땅거미 ⠈⠠⠁⠧⠈⠅⠈⠍⠈⠊ 식빵 ⠈⠨⠈⠍⠈⠍⠘⠧ 괴짜 ⠈⠫⠈⠍⠈⠍

(3) 2번의 글자 뒤에 첫소리 자음이 'ㅇ'인 글자가 붙어 있을 때에는 위의 글자에 'ㅏ'를 붙여 적는다. 단, 2번 항목의 글자가 받침을 포함할 경우 뒤에 오는 글자의 첫소리 자음이 'ㅇ'으로 시작하더라도 'ㅏ'를 생략하여 적는다.

(예) 다음 ⠊⠍⠈⠍⠁⠢ 마음 ⠑⠍⠈⠍⠁⠢ 바위 ⠘⠍⠈⠍⠏⠗ 자원 ⠈⠨⠈⠍⠧⠐⠢

남원 ⠑⠍⠈⠍⠧⠐⠢ 장인 ⠈⠩⠈⠍⠬ 탁월 ⠞⠈⠍⠗⠈⠍⠇ 한우 ⠓⠈⠍⠥

(4) 점자 줄이 모자라 한 단어를 두 줄에 걸쳐 점역하는 과정에서 윗줄 끝이 'ㅏ'를 생략하는 약자가 위치할 때, 그 다음 줄 첫 글자의 첫소리 자음이 'ㅇ'인 글자가 오더라도 'ㅏ(⠣ 1-2-6점)'를 생략하여 적는다.

(예) 이 작품의 사건 전개 양상을 고려하여 다음 문장의 역할을 쓰시오.

⠣ ⠈⠕⠈⠍⠨⠈⠍⠁⠣ ⠣⠈⠍⠁ ⠈⠬⠈⠍⠏ ⠐⠍⠈⠍⠘⠍⠁⠢ ⠈⠍⠈⠍⠨⠈⠍⠁⠢

⠣ ⠈⠍⠈⠍⠁⠢ ⠈⠍⠈⠍⠬⠈⠍⠁⠢ ⠈⠍⠈⠍⠍⠈⠍⠁⠢ ⠈⠍⠈⠍⠈⠍⠁⠢⠈⠍

(5) '파'에 쌍시옷받침(ㅆ)이 포함되어 '팠'이 될 경우 '파'의 'ㅏ'는 생략하지 않는다.

(예) 땅을 팠다 ⠈⠠⠁⠧⠈⠢ ⠏⠍⠈⠍⠁⠢

* '팠'의 'ㅏ'를 생략할 경우 자칫 '폐'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ㅏ'를 생략하지 않는다.

(6) 다음 글자의 약자 '억, 언, 얼, 연, 열, 영, 옥, 온, 옹, 운, 울, 은, 을, 인'는 앞뒤에 어떤 자음이 와도 사용한다. 특히 종성 부분에 쌍받침, 겹받침이 오더라도 위의 약자를 사용해야 한다.

(예)

억(⠽): 꺾다 ⠈⠠⠁⠽⠈⠁⠅ 넋 ⠝⠈⠍⠅ 덕망 ⠊⠈⠍⠽⠈⠍⠢

언(⠾): 건전 ⠈⠅⠈⠍⠾⠈⠍⠾ 얹다 ⠾⠈⠍⠊ 천하 ⠈⠩⠾⠈⠍⠓

얼(⠻): 넓다 ⠝⠈⠍⠻⠈⠍⠊ 얽다 ⠾⠈⠍⠅ 젊다 ⠈⠨⠈⠍⠻⠈⠍⠊

연(⠿): 견학 ⠈⠅⠈⠍⠿⠈⠍⠚ 변화 ⠘⠈⠍⠿⠈⠍⠓ 현황 ⠓⠈⠍⠿⠈⠍⠓⠈⠍⠥

열(⠳): 별 ⠘⠳ 엷다 ⠳⠃⠊ 혈기 ⠚⠳⠈⠕
영(⠻): 경성 ⠈⠻⠠⠻ 병원 ⠘⠻⠏⠒ 평화 ⠙⠻⠚⠧
옥(⠭): 곡식 ⠈⠭⠠⠕⠁ 볶다 ⠘⠭⠁⠊ 폭포 ⠙⠭⠙⠥
온(⠷): 논 ⠉⠷ 돈 ⠊⠷ 손 ⠠⠷
옹(⠿): 공사 ⠈⠿⠇ 송이 ⠠⠿⠕ 홍삼 ⠚⠿⠇⠢
운(⠛): 군대 ⠈⠛⠊⠗ 눈물 ⠉⠛⠑⠥ 문화 ⠑⠛⠚⠧
울(⠮): 굵다 ⠈⠮⠁⠊ 굶다 ⠈⠮⠢⠊ 훑다 ⠚⠮⠢⠊
은(⠵): 근절 ⠈⠵⠠⠞ 모든 ⠑⠥⠊⠵ 끊다 ⠠⠈⠵⠴⠊
을(⠮): 긁다 ⠈⠮⠁⠊ 늙다 ⠉⠮⠁⠊ 읊다 ⠮⠢⠊
인(⠟): 민족 ⠑⠟⠠⠭ 신라 ⠠⠟⠐⠣ 진실 ⠠⠟⠠⠕⠂
것(⠸⠎): 것이다 ⠸⠎⠕⠊ 먹을 것 ⠑⠹⠮ ⠸⠎

(7) ‘껏’을 적을 때에도 ‘까, 싸’를 적을 때와 같이 ‘것’ 약자(⠸⠎ 4-5-6, 2-3-4점) 앞에 된소리표(⠠ 6점)을 적어 나타낸다. 하지만 ‘껐’을 적을 때에는 ‘것’ 약자를 사용할 수 없고 쌍시옷받침(⠌ 3-4점)을 적어 ‘껐’을 나타낸다.

(예) 할 것 ⠚⠂ ⠸⠎
한껏 ⠚⠒⠠⠸⠎
불을 껐다 ⠘⠥⠮ ⠠⠈⠎⠌⠊

8. ‘성, 썽, 정, 쩡, 청’은 ‘엉’ 대신 ‘영’ 약자(⠻ 1-2-4-5-6점)를 적어 나타낸다.

(예) 성가 ⠠⠻⠫ 말썽 ⠑⠂⠠⠠⠻ 정성 ⠠⠻⠠⠻
어정쩡 ⠎⠠⠻⠠⠠⠻ 청년 ⠠⠻⠉⠡

* ‘성, 썽, 정, 쩡, 청’의 글자를 ‘영’ 약자로 쓰는 이유는 현 시대에 ‘셩, 쎵, 졍, 쪙, 쳥’의 글자를 사용하는 예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셩, 쎵, 졍, 쪙, 쳥’을 적을 때에는 ‘영’자의 약자를 쓰지 않는다.

(표 2-2) 약어

명칭	점형	점위치
그래서	⠁⠎	1, 2-3-4점
그러나	⠁⠉	1, 1-4점
그러면	⠁⠒	1, 2-5점
그러므로	⠁⠢	1, 2-6점
그런데	⠁⠝	1, 1-3-4-5점
그리고	⠁⠥	1, 1-3-6점
그리하여	⠁⠱	·1, 1-5-6점

(9) 위에 제시된 약어는 품사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예)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 ⠣⠑⠍⠊⠥ ⠎⠑⠠⠎⠎⠊

그림을 그리고 있다 ⠈⠢⠐⠕⠢⠮ ⠁⠥ ⠕⠎⠊

(10) 위의 약어 뒤에 다른 글자나 문장부호가 붙어 있거나 약어 앞에 문장부호가 붙어 나오더라도 약어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약어 앞에 다른 글자가 붙어 있으면 약어를 사용할 수 없다.

(사용할 수 있는 예)

그래서인지 ⠁⠎⠟⠨⠕ 그러면서도 ⠁⠒⠨⠎⠊⠥ 그런데도 ⠁⠝⠊⠥

그리고는 ⠁⠥⠉⠱ 그리하여도 ⠁⠱⠊⠥

(사용할 수 없는 예)

쭈그리고 ⠠⠨⠍⠈⠢⠐⠕⠈⠥ 우그리고 ⠍⠈⠢⠐⠕⠈⠥ 찡그리고 ⠠⠨⠕⠶⠈⠢⠐⠕⠈⠥

〈 연 습 문 제 〉

1. 다음 중 한글점자규정 내용이 바르게 기술된 곳에는 (O), 잘못 기술된 곳에는 (X)로 표시하시오.

(1) '껐'을 적을 때에는 '것' 약자를 사용하여 적는다.

(2) '가~하' 중 '라, 차'를 제외하고 모두 'ㅏ'를 생략하여 약자로 적는다.

(3) 약어는 접속사로 사용될 경우에만 적을 수 있다.

(4) '성, 썽, 정, 쩡, 청'의 글자를 적을 때에는 '영'자 약자를 적어 나타낸다.

(5) '폐'를 적을 때에는 '퐜'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표'과 '예' 사이에 붙임표(3-6점)을 적어 나타낸다.

2. 다음 문장을 한글점자규정에 맞게 점역하시오.

(1) 아니, 그것보다도 아저씨 잔심부름을 꼭 외삼촌이 하게 되니까, 그것이 싫어서 그러나 봐요.

(2) 이 길에서 텅 비거나 무너져 버린 폐가를 종종 만나니 텅 빈 옛 길에서 무상함을 한껏 느끼게 된다.

(3) 그것은 개미가 먹이가 있는 곳에서부터 집까지 냄샛길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다.

(4) 우리는 글자를 읽을 수만 있으면 누구나 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5) 젊고 아름다운 얼굴은 어디에 두고 창백한 백골만 묻혀 있는 것이냐

3. 다음을 한글점자규정에 맞게 점역하시오.

(1) "누구나 여러 과제와 문제에 부딪칩니다. 그러한 문제들은 단 한 번뿐이고 지나가버리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삶 전체의 의미로 다가오지요. 이 문제들은 '해결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견디고 체험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이며, 고통은 살이 깎이는 고통스러운 길 위에서만 삶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가치 있는 것이 된다."(헤세가 에두아르트 슈뢰더에게 보낸 편지에서)

(2) 나는 어리석은 짓인줄을 알면서도 시내로 나가 제일 좋은 가죽 표지의 사전과 순금 펜 세트를 샀다. 그리고 아버지의 명복(죽은 뒤 저승에서 받는 복)을 빌면서, 따뜻하고 충실했던 손, 그러나 글자를 못 썼던 그 손에 그것을 쥐어 드렸다.

(3) 어머니와 할머니, 그 고부간의 사이란 옛말에도 싸움이 잘 날이 없다는 말이 있지만, 두 분 평생 무슨 살이 낀 듯했다. 어머니가 시집을 갓 왔을 때나 아버지가 집에 붙어 있었을 때는 당사자들보다 이웃 눈도 있었으니 물론 어머니가 할머니에게 눌려 지냈음이 틀림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정확하게 말해서 육이오 동란 뒤부터 어머니는 할머니와 완전히 갈라서고 말았다. 육이오 뒤부터 할머니의 우리집 출입은 마지못한 나들이 정도가 고작이었고, 내가 모시기 전까지는 줄창 외손자들을 키우며 호계 고모네 집에서 사셨다.

〈 정 답 〉

⠈⠥⠨⠁⠕⠎⠌⠈⠥⠐ ⠉⠗⠫ ⠑⠥⠠⠕⠈⠕ ⠨⠾⠠⠫⠨⠕⠩⠨⠕⠉⠵ ⠨⠯⠰⠣⠶ ⠽⠠⠷⠨⠊⠮⠮ ⠋⠕⠍⠑⠱ ⠚⠥⠈⠌
⠈⠥⠑⠥⠉⠝ ⠨⠕⠃⠝⠠⠎ ⠇⠠⠱⠌⠊⠲

＊ 주: 위의 단락에 있는 문장부호의 점형은 다음과 같다.

명칭	점형	점위치
온점(.)	⠲	2-5-6점
반점(,)	⠐	5점
여는따옴표(")	⠦	2-3-6점
닫는따옴표(")	⠴	3-5-6점
여는작은따옴표(‘)	⠠⠦	6, 2-3-6점
닫는작은따옴표(’)	⠴⠄	3-5-6, 3점
여는괄호(()	⠤	3-6점
닫는괄호())	⠤	3-6점

3. 점자 부호와 그 사용 예

1) 자주 사용되는 문장부호와 그 사용 예

(표 3-1) 마침표

명칭	점형	점위치
온점(.)	⠲	2-5-6점
물음표(?)	⠦	2-3-6점
느낌표(!)	⠖	2-3-5점

(1) 온점, 물음표, 느낌표는 점자의 줄 마지막에는 위치할 수 있으나, 점자의 줄 처음에는 위치할 수 없다.

(예) 젊은이는 나라의 기둥이다. 그러므로 부지런해야 한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디에서 왔습니까?
달이 밝구나! 하늘도 맑다!

⠚⠣⠉⠮⠕⠊⠝⠊⠲ ⠠⠕⠍⠗⠚⠲ ⠚⠣⠉⠮⠕⠊⠝⠊⠲ ⠠⠕⠍⠗⠚⠲
⠙⠁⠇⠊ ⠃⠁⠍⠛⠥⠏⠲ ⠓⠁⠝⠇⠚⠥⠲ ⠙⠁⠇⠊ ⠃⠁⠍⠛⠥⠏⠲

(표 3-2) 쉼표

명칭	점형	점위치
반점(,)	⠂	5점
가운뎃점(·)	⠆	5, 2-3점
쌍점(:)	⠒	5, 2점
쌍반점(;)	⠔	5-6, 2-3점
빗금(/)	⠸⠌	4-5-6, 3-4점

(2) 반점은 점자의 줄 마지막에는 위치할 수 있으나, 점자의 줄 처음에는 위치할 수 없다.

(예) 근면, 성실, 협동은 우리 겨레의 미덕이다.

⠈⠛⠝⠐⠎⠉⠇⠐⠓⠢⠙⠥⠝⠁ ⠥⠗⠊ ⠛⠽⠻⠑⠊⠑ ⠍⠊⠙⠑⠅⠊⠲

(3) 반점을 사용하여 수의 자리를 표시할 때에는 반점을 ⠠(2점)으로 적는다.

(예) 5,000,000원 ⠼⠑⠠⠚⠚⠚⠠⠚⠚⠚⠠⠚⠚⠚⠩

(4) 가운뎃점의 앞말과 뒷말은 붙여 쓰며, 줄의 마지막 부분에는 위치할 수 있으나 줄의 처음에는 위치할 수 없다.

(예) 정치·경제

시장에서 사과·배·복숭아, 고추·마늘·파, 조기·명태·고등어 등을 샀습니다.

(5) 가운뎃점을 사용하여 특정한 날짜의 숫자를 적을 때에는 가운뎃점 뒤의 숫자에는 수표를 쓰지 않고 적는다. 그 외의 숫자와 숫자 사이에 가운뎃점이 사용될 때에는 가운뎃점 뒤의 숫자에 수표를 적는다.

(수표를 적지 않는 예)

3·1 운동

6·25 전쟁

(수표를 적는 예)

이 시의 3·4 행

(6) 쌍점(: 5, 2점)이 일반적으로 쓰일 때에는 앞말은 붙여 쓰고 뒷말은 한 칸을 띄어 쓴다.

(묵자의 예)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7) 쌍점을 사용하여 두 항목의 대비를 나타낼 때에는 앞뒤의 글자를 붙여 적는다.

(예) 청군:백군

(8) 숫자와 숫자 사이에 쌍점이 위치하고, 쌍점의 앞뒤가 붙어 있을 때에는 쌍점 뒤의 수에는 수표를 붙이지 않는다.

(예)

현재 양팀의 점수는 3:3입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5:00입니다.

요한복음 3:16

(9) 묵자에서 반점을 사용하여 장과 절을 구별하여도 점자에서는 반점을 쌍점으로 대체하여 사용한다.

(묵자의 예)

요한복음 3, 16

(10) 쌍반점(; ⠰⠆ 5-6, 2-3점)은 앞말은 붙여 쓰고 뒷말은 띄어 쓴다.

(예) 상점에는 배추, 시금치, 당근과 같은 야채; 미역, 생선, 젓갈 등과 같은 수산물이 있다.

(11) 빗금(/ ⠸⠌ 4-5-6, 3-4점)은 앞말과 뒷말을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시의 행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빗금은 앞말과 뒷말을 띄어 쓴다. 빗금이 두 개 연속하여 나올 때에는 ⠸⠌⠸⠌(4-5-6, 3-4, 4-5-6, 3-4점)으로 적는다.

(빗금을 붙여 쓰는 예)

착한 사람/악한 사람

(빗금을 띄어 쓰는 예)

귀염둥아 귀염둥아 / 우리 막내둥아. // 미소하는 / 내 얼굴을 보아라. / 얼음과 눈으로 벽을 짜올린 / 여기는 / 지상 / 내 삶의 길이여.

(표 3-3) 이음표

명칭	점형	점위치
붙임표(-)	⠤	3-6점
줄표(—)	⠤⠤	3-6, 3-6점
물결표(~)	⠤⠤	3-6, 3-6점

(12) 붙임표(- ⠤ 3-6점)는 앞말과 뒷말을 모두 붙여 쓰며, 점자의 줄 끝에는 위치할 수 있으나 점자의 줄 처음에는 위치할 수 없다.

(예) 겨울-나그네

불-구경

손-발

(13) 줄표(— ⠤⠤ 3-6, 3-6점)는 앞말과 뒷말을 모두 붙여 쓰며, 점자의 줄 끝과 처음에 위치하여 쓸 수 있다.

(예) 사과—과일의 일종—는 빨간색이다.

내가 아침마다 먹는 오렌지—과일의 일종—는 노란색이다.

⠉⠗⠫ ⠣⠰⠕⠢⠑⠊ ⠑⠹⠉⠵ ⠥⠐⠝⠒⠨⠕⠤⠤
⠈⠧⠕⠂⠺ ⠕⠂ ⠨⠿⠤⠤⠉⠵ ⠉⠥⠐⠣⠒⠠⠗⠁⠕⠊⠲

(14) 물결표(~ ⠤⠤ 3-6, 3-6점)는 앞말과 뒷말을 모두 붙여 쓰며, 점자의 줄 끝과 처음에 위치하여 쓸 수 있다.

(예) 오전~오후 ⠥⠨⠾⠤⠤⠥⠚⠍
~운동 ⠤⠤⠛⠊⠿
~노래 ⠤⠤⠉⠥⠐⠗

(표 3-4) 따옴표

명칭	점형	점위치
여는 큰따옴표(“)	⠦	2-3-6점
닫는 큰따옴표(”)	⠴	3-5-6점
여는 작은따옴표(‘)	⠠⠦	6, 2-3-6점
닫는 작은따옴표(’)	⠴⠄	3-5-6, 3점

(15) 큰따옴표와 작은따옴표의 칸띄기는 묵자의 형태에 따라 적는다. 또한 여는 큰따옴표, 여는 작은따옴표는 점자의 줄 끝에 위치할 수 없으며, 닫는 큰따옴표와 닫는 작은따옴표는 점자의 줄 처음에 위치할 수 없다.

(큰따옴표 사용의 예)
예로부터 “민심은 천심이다.”라고 하였다.
⠌⠐⠥⠘⠍⠓⠎ ⠦⠑⠟⠠⠕⠢⠵ ⠰⠾⠠⠕⠢⠕⠊⠲⠴⠐⠣⠈⠥ ⠚⠣⠱⠌⠊⠲

(작은 따옴표 사용의 예)
“여러분! 침착해야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합니다.”
⠦⠱⠐⠎⠘⠛⠖ ⠰⠕⠢⠰⠫⠚⠗⠜ ⠚⠃⠉⠕⠊⠲ ⠠⠦⠚⠉⠮⠕ ⠑⠍⠉⠎⠨⠱⠊⠥ ⠠⠥⠄⠣⠉⠂ ⠈⠍⠑⠻⠕
⠕⠌⠊⠲⠴⠄⠈⠥ ⠚⠃⠉⠕⠊⠲⠴

(16) 큰따옴표 기호는 겹낫표(『 』 ⠦ ⠴ 2-3-6점, 3-5-6점)와 점형이 같으며, 작은따옴표는 낫표(「 」 ⠠⠦ ⠴⠄ 6, 2-3-6점, 3-5-6, 3점)와 점형이 같다.

(표 3-5) 묶음표

명칭	점형	점위치
여는 소괄호(()	⠤	3-6점
닫는 소괄호())	⠤	3-6점
여는 중괄호({)	⠦⠆	2-3-6, 2-3점
닫는 중괄호(})	⠰⠴	5-6, 3-5-6점

여는 대괄호([]	⠶⠦	2-3-6, 3점
닫는 대괄호(])	⠴⠶	6, 3-5-6점

(17) 위의 묶음표의 칸띄기는 묵자의 형태에 따르며, 여는 괄호는 줄 끝에 위치할 수 없고 닫는 괄호는 줄 처음에 위치할 수 없다.

(소괄호 사용의 예)

니체(독일의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 ⠠⠠⠓⠑ ⠓⠁⠙ ⠙⠊⠑⠙ ⠠⠠⠛⠕⠙ ⠊⠎ ⠙⠑⠁⠙⠲

(중괄호 사용의 예)

국가의 3요소{국토, 국민, 주권}

⠨⠅⠁⠛⠁⠺⠕ ⠎⠕⠩⠕⠥⠔⠕⠢ ⠦⠎⠕⠩⠕⠥⠔⠕⠂ ⠦⠎⠕⠩⠕⠥⠔⠕⠂ ⠦⠎⠕⠩⠕⠥⠔⠕⠴

(대괄호 사용의 예)

나이[연세] ⠉⠕⠩⠕⠥⠔⠕⠦⠉⠒⠎⠑⠴

낱말[단어] ⠉⠕⠩⠕⠥⠔⠕⠦⠙⠁⠝⠕⠴

(18) 점자의 특성상 다음의 사항일 때에는 소괄호가 중괄호로 승격된다.

① 소괄호 안의 내용 중 붙임표가 있으면 소괄호를 중괄호로 적는다.

② 소괄호 안에 있는 줄표, 물결표가 여는소괄호, 닫는소괄호와 붙어 있으면 소괄호를 중괄호로 적는다.

③ 붙임표, 줄표, 물결표가 여는 소괄호 앞에 붙어 있거나, 닫는 소괄호 뒤에 붙어 있을 때에도 소괄호를 중괄호로 적는다. 그 이유는 붙임표의 점형이 소괄호의 점형과 같아 오독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

‘먹었다’의 선어말 어미 (-었-)는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나는 가수다’에서 최근에 선보인 윤도현밴드의 (-- 라디오를 켜고)의 완전한 제목을 알고 싶습니다.

11월 1일(화)~11월 4일(금)

⠠⠠⠚⠥⠝⠊⠕⠗⠲ ⠠⠠⠚⠥⠝⠊⠕⠗⠐⠎ ⠙⠁⠽⠲ ⠠⠠⠚⠥⠝⠊⠕⠗⠐⠎ ⠙⠁⠽⠐⠎⠁⠝⠙⠁⠽⠲

⠠⠠⠚⠥⠝⠊⠕⠗⠐⠎ ⠙⠁⠽⠐⠎⠁⠝⠙⠁⠽⠐⠎⠁⠝⠙⠁⠽⠲

⠠⠠⠚⠥⠝⠊⠕⠗⠐⠎ ⠙⠁⠽⠐⠎⠁⠝⠙⠁⠽⠐⠎⠁⠝⠙⠁⠽⠐⠎⠁⠝⠙⠁⠽⠲

(19) 발음을 표시할 때 쓰는 괄호는 대괄호 표기 규칙에 따라 적는다.

(예)

꽃망울[꼰망울] ⠠⠠⠢⠛⠶⠉⠕⠝⠍⠁⠝⠥⠗⠴

몫몫이[몽목씨] ⠠⠠⠢⠛⠶⠍⠕⠝⠍⠕⠅⠎⠊⠴

2) 기타 부호와 그 사용 예

(1) 드러냄표나 밑줄표로 강조된 글자를 나타낼 때에는 해당 단어 앞에 ⠸⠸(6, 3-6점)을 적고 끝나는 단어 뒤에 ⠸⠸(3-6, 3점)을 적어 나타낸다. 또한 드러냄표, 밑줄표의 시작을 나타내는 기호(⠸⠸ 6, 3-6점)은 점자의 줄 끝에 위치할 수 없고, 종료기호(⠸⠸ 3-6, 3점)은 점자의 줄 처음에 위치할 수 없다.

(예) 한글 점자의 본 이름은 훈맹정음이다.

⠸⠸⠓⠚⠁⠇ ⠠⠎⠁⠚⠁ ⠊⠑ ⠠⠃⠝⠍ ⠸⠸⠚⠓⠍⠁⠝⠛⠎⠕⠝⠛⠊⠝⠲

(2) 이탤릭체나 돋움체처럼 강조하기 위해 쓰인 글자는 (1)의 기호로 해당 글자를 묶어 나타낸다.

(예)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 ⠸⠃⠎⠕⠸⠃ ⠸⠸⠎⠕⠥⠇⠸⠸⠲

(표 3-6) 안드러냄표

명칭	점형	점위치
'가위표'(×) 모양	⠸⠭⠸	4-5-6, 1-3-4-6, 1-2-3점
'동그라미'(○) 모양	⠸⠕⠸	4-5-6, 3-5-6, 1-2-3점
'빠짐표'(□)	⠸⠶⠸	4-5-6, 2-3-5-6, 1-2-3점
'줄임표'(……)	⠒⠒⠒	6, 6, 6점

(3) 숨김표 및 빠짐표가 여러 개 표시되었을 경우 (4-5-6, 1-2-3점) 사이에 각각의 숨김표 및 빠짐표 기호를 그 개수만큼 적어 나타낸다. 또한 숨김표 및 빠짐표 기호 앞뒤의 칸 띄우기는 묵자의 형태에 따라 적는다.

(예)

모집인원: ○○명

⠠⠍⠕⠚⠊⠝⠺⠕⠝⠒ ⠸⠭⠸⠭ ⠍⠉

신고자: 김××

⠠⠎⠉⠚⠁⠒ ⠈⠅⠊⠈⠭⠭

(4) 줄임표 표시가 두 개 이상 표시되어 있더라도 ⠒⠒⠒(6, 6, 6점)으로 적어야 한다. 줄임표의 칸띄기는 묵자의 형태에 따라 나타내되, 줄임표 뒤에 나오는 문장부호는 반드시 붙여서 적는다.

(예) "어디 나하고 한번 ……" 하고 철수가 나섰다.

⠦⠮⠔⠚⠒ ⠉⠍⠚⠒ ⠓⠍⠔⠍ ⠒⠒⠒⠴⠲ ⠓⠚⠒ ⠠⠩⠎⠥⠒ ⠠⠎⠚⠍⠲

(표 3-7) 그 밖의 부호

명칭	점형	점위치
별표(*)	⠔⠔	3-5, 3-5점
아포스트로피(')	⠄	3점
위와 같음표(〃)	⠶⠶ ⠶⠶	5-6, 2-3점
긴소리표(ː)	⠒⠒	6, 3점
점역자주 기호	⠒⠒	6, 3점

(5) 별표는 앞말과 뒷말을 띄어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은 붙여 적는다.

① 여는 따옴표, 여는 묶음표 등의 문장부호가 별표의 앞에 위치할 때.

② 별표 뒤에 문장부호가 위치할 때.

(예)

* 먼저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다음 사항에 주목하시오.)

⠔⠀⠠⠓⠍⠎⠀⠠⠓⠍⠒⠒⠎⠀⠠⠎⠓⠊⠍⠀⠠⠍⠕⠗⠑⠀⠠⠊⠝⠋⠕⠗⠍⠁⠞⠊⠕⠝⠀⠠⠊⠝⠏⠥⠞⠀⠠⠍⠑⠞⠓⠕⠙⠀⠠⠎⠑⠞⠞⠊⠝⠛⠎
⠠⠠⠀⠠⠍⠁⠉⠗⠕⠀⠠⠎⠁⠧⠑⠀⠠⠍⠁⠉⠗⠕⠀⠠⠎⠁⠧⠑⠀⠠⠍⠁⠉⠗⠕⠀⠠⠎⠁⠧⠑

(6) 각주를 적을 때 사용되는 별표는 앞말과 뒷말을 붙여 적는다.

(예) 고아, 가난한 사람, 병자 등을 구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립했다.*1)

⠠⠚⠕⠁⠐⠀⠠⠅⠁⠝⠁⠝⠓⠀⠠⠎⠁⠗⠁⠍⠀⠐⠀⠠⠃⠜⠚⠁⠀⠐⠀⠠⠙⠑⠀⠠⠠⠀⠠⠎⠊⠇⠇⠁⠇⠀⠠⠊⠎⠀⠠⠎⠑⠞⠇⠊⠏⠠⠠⠀⠠⠓⠁⠙⠁⠔⠁⠔
⠠⠠⠀⠠⠊⠝⠀⠠⠎⠁⠗⠁⠍⠀⠠⠊⠎⠀⠠⠎⠑⠞⠇⠊⠏⠠⠠⠀⠠⠓⠁⠙⠁⠔⠁⠔⠀⠠⠊⠎⠀⠠⠎⠑⠞⠇⠊⠏⠠⠠⠀⠠⠓⠁⠙⠁⠔⠁⠔⠀⠠⠊⠎⠀⠠⠎⠑⠞⠇⠊⠏⠠⠠

(7) 반복되는 숫자의 생략을 위해 사용되는 아포스트로피는 수표 다음에 붙여 적는다.

(예) '88 서울 올림픽 ⠄⠼⠓⠓ ⠠⠠⠎⠑⠕⠥⠇ ⠠⠕⠇⠊⠍⠏⠊⠉

(8) 위와 같음표(〃 ⠶⠶ 5-6, 2-3점)의 칸띄기는 묵자의 형태에 따라 적는다.

(예) 제1 작업실 ⠠⠠⠉⠁⠃⠀⠠⠠⠁⠑⠃⠊

제2 〃 ⠶⠶⠀⠶⠶

(9) 긴소리표(ː 6, 3점)는 앞말과 뒷말을 붙여 적는다.

(예) 밤ː나무 ⠘⠒⠝⠒⠍⠒⠉

(10) 점역자주를 나타낼 때에는 점역자주 기호(⠒⠒ 6, 3점)을 쓰고 점역자주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은 다음 점역자주 기호를 한번 더 써 점역자주가 끝났음을 알려준다.

(예) 점역자주: 표의 가로와 세로를 바꾸어 점역하였음.

⠠⠠⠠⠎⠢⠱⠁⠠⠠⠍⠐⠂ ⠙⠼⠺ ⠫⠐⠥⠧ ⠠⠝⠐⠥⠐⠮ ⠚⠠⠈⠍⠎

⠠⠎⠢⠱⠁⠚⠣⠱⠎⠢⠢⠴⠠⠠

(표 3-8) 화폐기호

명칭	점형	점위치
원(₩)	⠈⠺	4, 2-4-5-6점
센트(¢)	⠈⠉	4, 1-4점
달러($)	⠈⠙	4, 1-4-5점
파운드(£)	⠈⠇	4, 1-2-3점
엔(¥)	⠈⠽	4, 1-3-4-5-6점
유로(€)	⠈⠑	4, 1-5점

(11) 화폐 기호가 숫자 뒤에 위치하거나 다른 글자와 붙어 있지 않고 단독으로 있을 때에는 화폐기호 앞에 로마자표(⠴ 3-5-6점)를 붙여 적는다.

(예) 10,000₩ ⠼⠁⠚⠂⠚⠚⠚⠴⠈⠺ $100 ⠈⠙⠼⠁⠚⠚ ¢20 ⠈⠉⠼⠃⠚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은 1¥ 정도이다.

⠍⠐⠕⠉⠐⠣ ⠊⠷⠢⠐⠥ ⠼⠁⠂⠚⠚⠚⠍⠐⠕ ⠼⠁⠴⠈⠽ ⠠⠻⠊⠥⠕⠊⠴

〈 연 습 문 제 〉

1. 다음 중 한글점자규정을 바르게 기술한 곳에는 (O), 잘못 기술한 곳에는 (X)로 표시하시오.

(1) 숫자와 숫자 사이에 가운뎃점이 있을 때 가운뎃점 뒤의 숫자에는 수표를 붙이지 않는다.

(2) 가운뎃점은 줄의 처음에 올 수 있다.

(3) 장, 절을 표시할 때 묵자에서 반점(,)으로 표기하였다 하여도 점자에서는 쌍점(:)으로 바꿔 적어야 한다.

(4) 시의 행을 구별할 때 사용하는 슬래시(/)는 앞말과 뒷말을 붙여 쓴다.

(5) 소괄호 안에 물결표가 있으면 소괄호를 중괄호({ })로 승격시켜 적는다.

2. 다음 문장을 한글점자규정에 맞게 점역하시오.

(1) 아이들은 장터에서 장사꾼 흉내, 시늉(을/를) 냈다.

(2) 이 물건은 500$에 낙찰되었다.

(3) 당신이 노래를 부르지 아니하는 때에 당신의 노랫가락은 역력히 들립니다그려 / 당신의 소리는 침묵이에요

(4) (보기)를 참고하였을 때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 기원전 3,000년경 : 메소포타미아·이집트 문명 시작

3. 다음을 한글점자규정에 맞게 점역하시오.

(1)

[다시 읽기] 아버지의 쌀알

그들에겐 “아기를 먹일 고기도, 생선도, 우유도” 없었다. ‘굶주림에 지쳐 죽어가는 아기에게 왜 단백질을 주지 않았느냐’고 채근하는 도시에서 온 대학생에게 가난한 촌로는 찬찬히 설명을 이어간다.

“벼가 빗물에 무릎 높이까지는 잠겨야 달팽이나 껍질이 보드라운 게, 심지어는 메기까지 잡을 수 있어…아니면 겨울에, 숲에 들어가서 촉촉한 고사리들 아래에서 분홍색이나 흰색 버섯을 발견할 수도 있고, 덤불 속에서 새로 싹이 튼 죽순을 베어올 수도 있지…하지만 논밭이 마르다 못해 갈라 터져 단단해지고, 산들이 헐벗은 지금에야 거기 뭐가 남아 있겠어? 우리 앞에서 고기니 생선이니 하는 어린애 같은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마. 우리는 다 배가 고파. 어린 것들이야 더 말할 것도 없고.”

(2)

* 엔싸이버 사전

시험(猜險)

시험 ‘시험하다’의 어근.

시험[명사, 하다형 타동사]

1. 지식 수준이나 기술의 숙달 정도 따위를, 문제를 내거나 실지로 시키거나 하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알아봄. 고시.

2. 어떤 사물의 기능·능력·성능 따위를 실지로 경험하여 봄. : 시험 운전./기계의 성능을 시험해 보다.

(3)

하나의 화면은 수많은 점들로 구성되는데, 이를 화소라 한다. 각각의 화소는 밝기와 색상을 나타내는 화소 값을 가진다. 화소 간 중복은 한 화면 안에서 서로 가까이 있는 화소들끼리 화소 값의 차이가 별로 없거나 변화가 규칙적인 것을 말한다.

동영상 압축에서는 원래의 화소값들을 여러 개의 성분들로 형태를 변화한 다음, 화질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성분들을 제거하고 나머지 성분들만을 저장한다. 이때 압축 전후의 화소들의 개수에는 변화가 없으나 변환된 성분들을 저장하는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화질의 차이가 별로 없이 데이터의 양을 크게 줄일 수 있다.

〈 정 답 〉

4. 숫자 표기의 일반적인 규칙과 그 사용 예

(1) 숫자가 붙임표(-)와 연결되어 있을 때에는 첫 숫자에만 수표를 적고 붙임표 뒤의 숫자에는 수표를 다시 적지 않는다.

(예) 주민등록번호 711125-1074456

⠼⠛⠁⠁⠉⠢⠁⠚⠛⠙⠋⠑⠉⠙

(2) 숫자를 적을 때 칸이 띄어지기 전까지 한 줄에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7자리 이상의 긴 숫자를 적을 때 칸이 모자라 부득이하게 두 줄에 걸쳐 적어야 할 때에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적는다.

① 윗줄에 4자리 이상의 수를 적어야 하며,

② 줄을 내릴 때 반드시 자릿점의 다음 숫자에서 줄을 내려야 하며, 자릿점의 앞에는 4자리 이상의 숫자가 있어야 한다.

③ 수의 자리를 표시하는 자릿점 뒤에 임의로 붙임표를 표시한다. 이때의 붙임표는 다음 줄에도 숫자가 계속 이어진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④ 아랫줄의 첫 숫자 앞에는 수표를 붙이지 않고 적는다.

(예) 제467회 복권 1등

당첨금: 3,000,000,-

000

⠼⠛⠋⠌⠼⠁ ⠍⠪ ⠼⠉⠚⠚⠌⠚⠚⠚⠌⠚⠚⠚ ⠠⠠⠠

⠼⠛⠋⠌⠼⠁ ⠍⠪ ⠼⠉⠚⠚⠌⠚⠚⠚⠌⠚⠚⠚

⠼⠚⠚⠚

(3) 붙임표로 연결된 숫자가 길어 두 줄에 걸쳐 적어야 할 때에는 붙임표가 나온 다음 숫자부터 줄을 내려 적고 아랫줄에서 시작하는 숫자 앞에는 수표를 적는다.

(예) OO홈쇼핑 계좌: 107666-64-209457(농협)

⠠⠠⠕⠕⠓⠍⠩⠠⠎⠬⠏⠬ ⠉⠒ ⠼⠁⠚⠋⠖⠋⠋⠤⠼⠆⠚⠚⠑⠙⠛⠑⠖

⠼⠁⠚⠋⠖⠋⠋⠤⠼⠆⠚⠚⠑⠙⠛⠑⠖⠣⠝⠠⠣⠒

(4) 숫자에 이어 나온 붙임표 뒤에 '나, 다, 마, 카, 타, 파, 하'가 붙어 있을 때에는 'ㅏ'를 생략하지 않고 적는다.

(예) 수학 10-나 ⠠⠎⠥⠓⠁ ⠼⠁⠚⠤⠉⠁

(5) 숫자와 숫자를 물결표(~)로 연결할 때에는 물결표 뒤의 숫자에는 수표를 적어 나타낸다.

(예) (02) 2091-0000~2 ⠐⠼⠚⠃⠐ ⠼⠃⠚⠊⠁⠤⠼⠚⠚⠚⠚⠔⠼⠃

(6) 묵자본에서 흔히 쓰이는 순서를 나타내는 번호들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예) Ⅰ. ⠼⠠⠊⠲ 1. ⠼⠁⠲ 1) ⠼⠁⠤ (1) ⠤⠼⠁⠤

① ⠼⠂ <1> ⠶⠼⠁⠶ $\boxed{1}$ ⠤⠼⠁⠤

(7) 한글의 자음이 순서를 나타내는 번호로 쓰일 때에는 자음은 받침의 형태로 적고 그 앞에 온표(⠿ 1-2-3-4-5-6점)을 적는다. 이때 묵자 상에 온점(.)이 있을 때 이 온점이 받침 ㅍ(⠲ 2-5-6점)과 같이 읽혀질 수 있으므로 온점을 표시하지 않는다.

(묵자의 예) (점자의 예)

ㄱ. 유아기 ⠿⠁ ⠩⠣⠈⠕

ㄴ. 아동기 ⠿⠒ ⠣⠊⠿⠈⠕

ㄷ. 청년기 ⠿⠔ ⠰⠿⠉⠣⠈⠕

ㄹ. 장년기 ⠿⠂ ⠨⠶⠉⠣⠈⠕

ㅁ. 노년기 ⠿⠢ ⠉⠤⠉⠣⠈⠕

(8) 로마숫자를 적을 때에는 로마자표(⠼ -5-6점)(6장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를 적고 그 수에 해당하는 알파벳을 적어 나타낸다. 로마숫자가 대문자일 때에는 해당 알파벳 앞에 로마자 대문자표(⠠ 6점)를 적어 나타낸다. 또한 둘 이상의 대문자로 이루어진 로마숫자를 적을 때에는 로마자 이중대문자표(⠠⠠ 6, 6점)을 해당 로마숫자의 첫 알파벳 앞에 적어 이것이 모두 대문자임을 표시해준다.

(예) Ⅰ. ⠼⠠⠊⠲ Ⅴ. ⠼⠠⠧⠲ Ⅹ. ⠼⠠⠭⠲ x. ⠼⠭⠲

Ⅶ ⠼⠠⠠⠧⠊⠊⠲ Ⅹ ⠼⠠⠭⠲ i ⠼⠊⠲

(표 4-1) 연산기호, 등호, 부등호

명칭	점형	점위치
더하기(+)	⠢	2-6점
빼기(-)	⠔	3-5점
곱하기(×)	⠡	1-6점
나누기(÷)	⠌⠌	3-4, 3-4점
같다(=)	⠒⠒	2-5, 2-5점
보다 크다(>)	⠢⠢	2-6, 2-6점
보다 작다(<)	⠔⠔	3-5, 3-5점
분수표시(/)	⠌	3-4점
소숫점(.)	⠄	3점

(9) 숫자와 숫자 사이에 연산기호, 등호, 부등호 등의 기호가 있을 때에는 수학점자규정에 따라 적는다. 연산기호나 등호, 부등호가 숫자와 한글 사이, 한글과 한글 사이에 나오면 각 기호의 앞, 뒤를 한 칸 띄어 점역한다.

(예)

1+1=2 ⠼⠁⠢⠼⠁⠒⠒⠼⠃

사과의 총 수 + 배의 총 수 = 30

⠇⠈⠧⠺ ⠰⠿ ⠠⠍ ⠢ ⠘⠗⠺ ⠰⠿ ⠠⠍ ⠒⠒ ⠼⠉⠚

〈 연 습 문 제 〉

1. 다음 중 한글점자규정을 바르게 기술한 곳에는 (O), 잘못 기술한 곳에는 (X)로 표시하시오.

(1) 숫자와 숫자 사이에 붙임표(-)가 있을 때 붙임표 뒤의 숫자에는 수표를 적지 않는다.

(2) 숫자의 자릿수가 많아 점자의 한 줄에 다 적지 못할 때 7자리 이상의 숫자를 위에 적고 나머지를 아래에 적는다.

(3) 숫자와 숫자 사이에 물결표가 있을 때에는 물결표 뒤에 있는 숫자에는 수표를 적는다.

(4) 한글의 자음이 순서를 나타내는 번호로 쓰일 때 묵자에 온표가 있더라도 점자에서는 적지 않는다.

(5) 두 개 이상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로마숫자가 모두 대문자일 때 각각 알파벳에 로마자 대문자표(6점)를 적어 나타낸다.

2. 다음 문장을 한글점자규정에 맞게 점역하시오.

(1) OO코리아: 우체국 312256-01-002494

(2) 제 465회차 로또 1등 당첨금 총액은 13,465,640,251원이며 1등 당첨자 수는 7명입니다.

(3) 로마숫자 'Ⅸ'는 아라비아숫자로 '9'와 같다.

(4) 창세기 1, 1~10을 봉독하겠습니다.

(5) 이번 '흰지팡이날' 행사는 10월 26일 9~18시까지 OO공원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3. 다음을 한글점자규정에 맞게 점역하시오.

(1)

6월 시각장애인 전자도서 제작 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OOO복지재단입니다. 우리 복지재단에서는 2011년 6월을 맞아 시각장애인 여러분들의 학습 및 독서 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희망하시는 도서를 텍스트 도서로 제작해 드립니다. 전자도서 제작이 필요하신 시각장애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신청 기간 : 2011. 06. 03. ~ 2011. 06. 30.

2. 신청 도서 분야 : 학습 및 전공 도서, 경제·경영 도서, 자기 개발 도서, 인문 사회 도서, 소설, 수필 등 전 분야

3. 신청 및 문의

ㄱ. 전화 신청 : 051-293-8286~7, 팩스 : 051-208-7822

ㄴ. 우편 접수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2동 512-6번지

(2)

기준금리 2.0 퍼센트로 3개월째 동결(종합)

한국은행은 12일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00 퍼센트로 유지했다.

한은은 이날 오전 정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한은은 지난 3월과 4월에 이어 3개월째 금리를 동결했다. 한은은 5.25 퍼센트였던 기준금리를 지난 10월부터 매달 인하해 지난 2월에는 2.00 퍼센트까지 낮췄다. 이번 금리동결은 경기가 급격한 하강세를 멈춘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뚜렷한 회복세로 돌아서지 않은 만큼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분야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실물 쪽이 아직 회복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는 만큼 금리를 올리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3)

목차

III 통치 구조와 정치 활동

5. 근세의 정치(1)

1) 근세의 세계

(1) 동양

① 중국 : 명(전통적 한 문화 회복; 전제 황권, 서민 문화)

② 서남 아시아

ㄱ. 이슬람 국가 번성: 오스만 제국, 티무르 제국, 사파비 왕조, 무굴 제국(인도)

〈 정 답 〉

5. 옛글자

(1) 옛글자 앞에는 옛글자표(⠢ 5점)를 적어 옛글자임을 나타낸다.

(표 5-1) 옛글자

명칭	점형	점위치
1. 기본 자음자		
반치음(ㅿ)	⠢⠦	5, 4-6점
반치음(ㅿ) (받침글자)	⠢⠨	5, 1-3점
옛이응(ㆁ)	⠢⠶	5, 1-4-5점
옛이응(ㆁ) (받침글자)	⠢⠸	5, 2-5-6점
여린히읗(ㆆ)	⠢⠴	5, 2-4-5점
여린히읗(ㆆ) (받침글자)	⠢⠰	5, 3-5-6점
2. 모음		
아래아(ㆍ)	⠢⠤	5, 3-4-5-6점

아ᄉᆞ ⠣⠢⠣⠢⠎⠣⠆
옌의 갗 ⠣⠢⠑⠣⠢⠺ ⠠⠣⠢
이어긔 ⠣⠢⠕⠎⠣⠢⠺⠣⠢
굼벙 ⠈⠮⠢⠍⠎⠣⠢⠍⠣⠢
훈민졍흠(訓民正音) ⠓⠮⠢⠍⠣⠢⠠⠨⠢⠍⠣⠢⠓⠮⠢⠠⠪⠢⠍⠣⠢
홇 배 ⠓⠢⠣⠢⠎⠣⠢⠍⠣⠢ ⠘⠢⠣⠢

(2) 옛글자 중 연서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순경음 미음(ㅱ), 순경음 비읍(ㅸ), 순경음 피읖(ㆄ), 순경음 쌍비읍(ㅹ), 순경음 리을(ㆇ)’은 옛글자표를 앞세워 다음과 같이 적는다.

(표 5-2) 연서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자음

명칭	점형	점위치
순경음 미음(ㅱ)	⠢⠶⠦	5, 1-5, 2-3-5-6점
순경음 미음(ㅱ) (받침글자)	⠢⠸⠦	5, 2-6, 2-3-5-6점
순경음 비읍(ㅸ)	⠢⠦⠦	5, 4-5, 2-3-5-6점
순경음 비읍(ㅸ) (받침글자)	⠢⠰⠦	5, 1-2, 2-3-5-6점

순경음 피읖(ㆄ)	⠨⠿	5, 1-4-5, 2-3-5-6점
순경음 쌍비읍(ㅹ)	⠨⠳	5, 6, 4-5, 2-3-5-6점
순경음 리을(ㆁ)	⠨⠩	5, 5, 2-3-5-6점

* 음가 없는 이응이 받침글자로 사용될 때에는 ⠨⠶(5, 2-3-5-6점)로 적는다.

(3) 옛글자 가운데 각자병서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쌍니은(ㄶ), 쌍옛이응(ㆇ), 쌍히읗(ㆅ)' 등은 옛글자표를 앞세워 다음과 같이 적는다.

(표 5-3) 각자병서

명칭	점형	점위치
쌍니은(ㄶ)	⠨⠝	5, 1-4, 1-4점
쌍옛이응(ㆇ)	⠨⠿	5, 1-4-5, 1-4-5점
쌍히읗(ㆅ)	⠨⠯	5, 2-4-5, 2-4-5점

(4) 옛글자 가운데 합용병서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옛글자들이 첫소리 자리에 쓰일 때에는 옛글자표를 앞세운 다음 각 자음자를 어울러 적는다. 이 글자들이 받침으로 쓰일 때에는 옛글자표를 하지 않고 각 자음자를 받침글자로 어울러 적는다.

(표 5-4) 합용병서

명칭	점형	점위치
비읍기역(ㅱㄱ)	⠨⠃	5, 4-5, 4점
비읍디귿(ㅱㄷ)	⠨⠇	5, 4-5, 2-4점
비읍시옷(ㅱㅅ)	⠨⠫	5, 4-5, 6점
비읍지읒(ㅱㅈ)	⠨⠗	5, 4-5, 4-6점
비읍티읕(ㅱㅌ)	⠨⠾	5, 4-5, 1-2-5점
비읍시옷기역(ㅳ)	⠨⠓	5, 4-5, 6, 4점
비읍시옷디귿(ㅴ)	⠨⠧	5, 4-5, 6, 2-4점
시옷기역(ㅺ)	⠨⠪	5, 6, 4점
시옷니은(ㅽ)	⠨⠬	5, 6, 1-4점
시옷디귿(ㅾ)	⠨⠲	5, 6, 2-4점

시옷비읍(ㅥ)	⠠⠶⠠	5, 6, 4-5점
시옷지읒(ㅦ)	⠠⠶⠶	5, 6, 4-6점

(5) 옛 자음자 다음에 'ㅏ'가 나올 때에는 'ㅏ'를 생략하지 않고 적는다.

(예) 올 길헤 뽕 빠다가 누에 머겨 보쟈ᄉᆞ라

⠥⠒ ⠈⠎⠒⠉⠗⠓ ⠈⠕⠉⠓ ⠈⠓⠑⠎⠒⠉⠗ ⠍⠍ ⠘⠒⠍⠍ ⠈⠍⠎⠒⠈⠎⠒⠈⠎⠒⠓

(6) 단어의 중간이나 끝에 단독으로 쓰인 자음자나 사잇소리글자는 받침글자로 적되, 그 앞에 사잇소리글자표(⠆ 4-5-6점)를 적어 나타낸다. 사잇소리글자가 앞 또는 뒤의 글자에 얹혀서 나타날 때에는 사잇소리글자표를 적지 않는다.

(예) 빙자옥질이여 눈ㄷ속에 네로구나.

댓닢 푸른대 봄ㅅ새 울소리로다

⠘⠠⠎⠠⠎⠠⠘⠠⠒⠎ ⠠⠠⠕⠒⠠⠍ ⠠⠠⠕⠒⠠⠎

⠒⠠⠍⠠⠎⠒ ⠠⠍⠒⠠⠎⠒ ⠠⠍⠒⠒⠕⠒⠓ ⠠⠕⠒⠎

(7) 옛 모음자 중 'ㆍ'를 제외한 모음 'ㆎ, ㅚ, ㅟ'는 각각 다음과 같이 적는다.

(표 5-5) 'ㆍ'를 제외한 옛모음의 점형, 점위치

모음	점형	점위치
1. 4-5-6점이 붙지 않는 옛모음		
ㆎ	⠐⠶⠐	5, 3-4-5-6, 1-2-3-5점
ㅚ	⠦⠶⠐	3-4-6, 4-5-6, 1-3-5점
ㅟ	⠢⠶⠐	1-4-6, 4-5-6, 1-3-5점
ㅘ	⠐⠶⠄	4-5-6, 3-4-6, 3-4-5점
ㅙ	⠐⠶⠂⠐	4-5-6, 3-4-6, 3-4-5, 1-2-3-5점
ㅝ	⠐⠶⠌	4-5-6, 1-4-6, 1-5-6점
ㅞ	⠐⠶⠂	4-5-6, 1-4-6, 3-4점

(8) 단독으로 표기된 '딴 이(ㅣ)'는 ⠠⠶(4-5-6, 1-3-5점)으로 적는다.

(예) 백골이 진토ㅣ 되어 넉시라도 잇고 업고

⠘⠐⠠⠶⠐⠒ ⠠⠘⠐⠒⠠⠶⠠⠶ ⠈⠠⠶ ⠠⠐⠒⠠⠶⠐⠒⠈⠒ ⠒⠠⠶⠒ ⠈⠐⠠⠶

(9) 방점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표 5-6) 방점의 점형, 점위치

명칭	점형	점위치
거성(·)	⠸⠂	4-5-6, 2점
상성(:)	⠸⠅	4-5-6, 1-3점

·갈〔刀〕 ⠸⠂⠫⠂ ·빅〔舟〕 ⠸⠂⠘⠐⠼⠗

:돌〔石〕 ⠸⠅⠊⠥⠂ :눈〔雪〕 ⠸⠅⠉⠛

〈 연 습 문 제 〉

1. 다음 중 한글점자규정을 바르게 기술한 곳에는 (O), 잘못 기술한 곳에는 (X)로 표시하시오.

(1) 옛글자 자음과 'ㅏ(1-2-6점)'로 이루어진 글자에서 'ㅏ'는 생략할 수 있다.

(2) 순경음 피읍(ㆄ)에는 받침글자의 점형이 있다.

(3) 옛글자에는 쌍시옷받침(ㅆ)이 없으므로 옛글자 문장에서는 '예' 앞에 받침이 없는 글자가 오더라도 붙임표를 붙이지 않는다.

(4) 단독으로 표기된 딴이(ㅣ, 1-3-5점)는 그 앞에 (4-5-6점)을 적어 나타낸다.

(5) 합용병서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옛글자 자음들이 받침글자로 쓰일 때에는 그 앞에 옛글자표(5점)을 적어야 한다.

2. 다음 문장을 한글점자규정에 맞게 점역하시오.

(1) 정월(正月)ㅅ 나릿므른 아으 어져 녹져 ᄒᆞ논ᄃᆡ.

(2) 구룸빗치 조타 ᄒᆞ나 검기롤 ᄌᆞ로 ᄒᆞᆫ다

(3) 이화우 흣뿌릴 제 ᄆᆞ음이 어린 후ㅣ니

(4) 동지ᄉᆞᆯ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여

(5) ᄆᆞ·촘:내 제 ·ᄠᅳ·들 시·러 펴·디 :몯 홇 ·노·미 하·니·라.

3. 다음을 한글점자규정에 맞게 점역하시오.

(1)

구룸이 무심ᄐᆞᆫ 말이 아마도 허랑ᄒᆞ다 / 중천에 ᄠᅥ이셔 임의로 ᄃᆞ니면셔 /
구ᄐᆡ야 광명ᄒᆞᆫ 날빗출 ᄯᅡ라가며 덥ᄂᆞ니.

(2)

흥망이 유수ᄒᆞ니 만월대도 추초ㅣ로다 / 오백 년 왕업이 목적에 부쳐시니 / 석양이 지나는 객이 눈물계워 ᄒᆞ노라.

〈 정 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로마자 표기법

(표 6-1) 로마자 알파벳

명칭	점형	점위치
a	⠁	1점
b	⠃	1-2점
c	⠉	1-4점
d	⠙	1-4-5점
e	⠑	1-5점
f	⠋	1-2-4점
g	⠛	1-2-4-5점
h	⠓	1-2-5점
i	⠊	2-4점
j	⠚	2-4-5점
k	⠅	1-3점
l	⠇	1-2-3점
m	⠍	1-3-4점
n	⠝	1-3-4-5점
o	⠕	1-3-5점
p	⠏	1-2-3-4점
q	⠟	1-2-3-4-5점
r	⠗	1-2-3-5점
s	⠎	2-3-4점
t	⠞	2-3-4-5점
u	⠥	1-3-6점
v	⠧	1-2-3-6점
w	⠺	2-4-5-6점
x	⠭	1-3-4-6점
y	⠽	1-3-4-5-6점
z	⠵	1-3-5-6점

* 로마자 대문자를 표기할 때는 위의 글자 앞에 로마자대문자기호(⠠ 6점)를 쓴다.

* 로마자 단어의 철자가 모두 대문자일 때 로마자 이중대문자기호(⠠⠠ 6, 6점)를 로마자 첫 글자 앞에 써 이후의 글자가 모두 대문자임을 알려준다.

(1) 국어 문장 사이에서 로마자가 사용될 때 로마자 앞에 로마자표(⠤ 3-5-6점)를 적고 로마자의 마지막 글자 다음에 로마자종료표(⠲ 2-5-6점)를 써 한글과 로마자를 구별해준다.

(예) 그는 Canada로 여행을 떠났다.

⠈⠪⠉ ⠤⠁⠝⠁⠙⠁⠴⠗ ⠚⠢⠒⠗ ⠊⠢⠎⠁⠙⠉⠣

우리 나라에서 UN 총회가 열리다니 믿어지지가 않아!

⠠⠪⠉ ⠠⠪⠒⠗ ⠤⠥⠝⠁⠗⠊⠁⠴⠗ ⠓⠍⠍⠊⠍⠁ ⠚⠢⠒⠗ ⠑⠍⠊⠑⠊⠍⠁ ⠑⠍⠊⠑⠊⠍⠁⠴⠗ ⠚⠢⠒⠗

(2) 국어 문장 안에서 로마자로 이루어진 단어가 두 개 이상 나올 때, 로마자표는 첫 단어의 첫 글자 앞에서 적고 로마자종료표는 마지막 단어의 마지막 글자 뒤에 적는다.

(예) 이 음식점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는 salmon salad이다.

⠠ ⠣⠊⠢⠎⠊⠍⠚⠢⠍⠴⠗ ⠠⠪⠉ ⠎⠁⠇⠍⠕⠝ ⠤⠁⠇⠁⠙⠤ ⠊⠎⠁⠙⠉⠣

(3) 로마자표와 로마자종료표 사이에서는 영어점자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문장부호 역시 영어점자규정에서 정한 점형을 적어야 한다.

(표 6-2) 자주 사용되는 문장부호 중에서 한글과 영어의 점형이 다른 문장부호

명칭	점형	점위치
반점(,)	⠠	2점
쌍점(:)	⠒	2-5점
쌍반점(;)	⠰	2-3점
여는소괄호(()	⠐⠣	2-3-5-6점
닫는소괄호())	⠐⠜	2-3-5-6점
여는대괄호([)	⠨⠣	6, 2-3-5-6점
닫는대괄호(])	⠐⠜⠂	2-3-5-6, 3점

* 위에 제시된 문장부호 외에 다른 부호들은 한글점자규정, 영어점자규정에서 정한 점형이 같거나 한글점자규정, 영어점자규정 중 어느 한 쪽에 없는 부호들이다.

(예) 식탁 위에 apples, bananas, grapes 등이 있다.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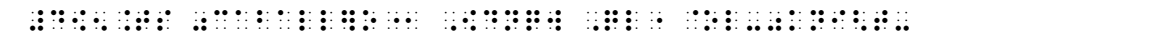
(4) 국어 문장 안에서 로마자, 문장부호, 한글의 순서로 나올 때 문장부호는 뒤에 오는 한글로 인해 한글점자규정에서 정한 문장부호의 점형으로 적는다. 이 때 문장

부호 앞에 있는 로마자는 따로 로마자종료표를 적지 않는다.

(예) WHO: 세계보건기구

(5) 국어 문장 안에서 로마자의 마지막 글자가 닫는 따옴표, 닫는 괄호와 만날 때 로마자종료표는 적지 않는다.

(예) 4음절어 caballero: 스페인의 신사, 기사(knight)



(6) 국어 문장 안에서 로마자 뒤에 숫자가 나올 때 로마자종료표는 적지 않으며, 그 뒤의 한글은 관행상 한 칸을 띄어 적는다.

(예) computer, MP3과 같은 각종 전자제품은 OOO마트에서 사는 것이 가장 쌉니다.

(7) 로마자로 된 단위부호는 시작 부분에 로마자표를 적고 부호가 끝나는 부분에는 로마자종료표를 적지 않으며, 그 뒤의 한글은 한 칸 띄어 적는다.

(표 6-2) 자주 사용되는 로마자로 표시되는 단위부호

명칭	점형	점위치
1. 길이의 단위부호		
마이크로미터(㎛)		3-5-6, 4, 1-3-4점
밀리미터(㎜)		3-5-6, 1-3-4, 1-3-4점
센티미터(㎝)		3-5-6, 1-4, 1-3-4점
미터(m)		3-5-6, 1-3-4점
킬로미터(㎞)		3-5-6, 1-3, 1-3-4점
2. 무게의 단위부호		
그램(g)		3-5-6, 1-2-4-5점
킬로그램(㎏)		3-5-6, 1-3, 1-2-4-5점
톤(t)		3-5-6, 2-3-4-5점
파운드(lb)		3-5-6, 1-2-3, 1-2점
온스(oz)		3-5-6, 1-3-5, 1-3-5-6점

3. 온도와 관련된 단위부호		
섭씨 온도(℃)	⠴⠙⠠⠉	3-5-6, 1-4-5, 6, 1-4점
화씨 온도(°F)	⠴⠙⠠⠋	3-5-6, 1-4-5, 6, 1-2-4점
4. 넓이에 관련된 단위부호		
제곱표시(m^2)	⠴⠣	3-5-6, 1-2-6점
아르(a)	⠴⠁	3-5-6, 1점
헥타르(ha)	⠴⠓⠁	3-5-6, 1-2-5, 1점
5. 부피와 관련된 단위부호		
세제곱표시(^{3})	⠴⠩	3-5-6, 1-4-6
시시(cc)	⠴⠉⠉	3-5-6, 1-4, 1-4
밀리리터(mℓ)	⠴⠍⠠⠇	3-5-6, 1-3-4, 6, 1-2-3
데시리터(dℓ)	⠴⠙⠠⠇	3-5-6, 1-4-5, 6, 1-2-3
리터(L)	⠴⠠⠇	3-5-6, 6, 1-2-3
* 퍼센트기호(%)는 ⠴⠏ (356, 1234점)으로 적는다. * 그 밖의 단위부호는 과학점자규정에서 정한 점자형태에 따라 적는다.		

(예) 수영장을 한 번 왕복하려면 100m을 헤엄쳐야 한다.
한 평의 넓이는 $3.3m^2$이다.
오늘 오후는 10℃ 미만으로 쌀쌀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작년 경제 성장률이 그 전년도에 비해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국어 문장 안에서 영어점자규정에서 정한 알파벳 독립약자, 하위 독립약자가 로마자표와 만날 때는 약자로 적을 수 없고 약자를 적절히 풀어 주어야 한다.

(표 6-2) 로마자표와 만났을 때의 알파벳 독립약자, 하위 독립약자의 점형

단어	약자 점형	로마자표 만날 때
1. 알파벳 독립 약자		
b	⠃	but
c	⠉	can
d	⠙	do
e	⠑	(ever)y
f	⠋	from
g	⠛	go
h	⠓	have
i	⠊	-
j	⠚	ju(st)
k	⠅	(know)l(ed)ge
l	⠇	like
m	⠍	more
n	⠝	not
o	⠕	-
p	⠏	people
q	⠟	quite
r	⠗	ra(the)r
s	⠎	so
t	⠞	(th)at
u	⠥	us
v	⠧	v(er)y
w	⠺	will
x	⠭	it
y	⠽	y(ou)
z	⠵	as
2. 하위 독립약자		
in	⠔	in
enough	⠢	(en)(ou)(gh)
be	⠆	be

his	⠬	his
was	⠴	was
were	⠶	w(er)e

* 위에 제시된 영어 약자를 제외하고 다른 독립약자에 해당하는 단어가 국어 문장 안에 있을 때, 영어점자규정에 따라 약자로 적는다.

(예) yet와 but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금속제의 통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또한 can이다.

he의 소유격은 his이다.

⠴⠽⠑⠞⠲⠧ ⠴⠃⠥⠞⠲⠺ ⠴⠣⠕⠝⠮ ⠴⠞⠑⠻⠚⠴⠕⠥⠲
⠈⠣⠢⠴⠉⠨⠝⠺ ⠓⠿⠮ ⠺⠑⠕⠚⠉⠥ ⠺⠎ ⠊⠓⠎ ⠴⠊⠥⠚⠓ ⠴⠉⠁⠝⠲⠕⠊⠲
⠴⠓⠑⠲⠺ ⠴⠥⠉⠊⠱⠁⠥ ⠴⠊⠎⠲⠕⠊⠲

〈 연 습 문 제 〉

1. 다음 중 한글점자규정을 바르게 기술한 곳에는 (O), 잘못 기술한 곳에는 (X)로 표시하시오.

(1) 로마자로 이루어진 단어가 모두 대문자일 때에는 각 글자마다 로마자 대문자표(6점)을 적어 나타낸다.

(2) 로마자표와 로마자 종료표 사이에 문장부호가 나올 때의 문장부호 점형은 영어 점자규정에서 정한 점형으로 점역한다.

(3) 로마자 다음 숫자가 나올 때 로마자와 숫자 사이에 로마자 종료표를 적는다.

(4) 로마자로 이루어진 단위부호 다음 한글이 나올 때 단위부호와 한글은 한 칸 띄어 점역한다.

(5) 로마자표와 알파벳 독립약자가 붙어 있을 때 알파벳독립약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2. 다음 문장을 점자규정에 맞게 점역하시오.

(1) 당신의 몸무게는 50kg입니다.

(2) WTO에 속한 정상들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니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TV, 냉장고의 가격이 가장 싼 곳은 어디입니까?

(4) 알파벳 독립약자 중 조동사로 사용되는 단어는 can, do, will이다.

(5) 나토(NATO)는 '북대서양 조약 기구'의 약자이다.

3. 다음을 점자규정에 맞게 점역하시오.

(1)

反월가시위 '상징'으로 부상한 84세 할머니

84세 할머니가 미국의 반 금융자본 시위인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시위를 상징하는 새로운 얼굴로 떠올랐다.

주인공은 미국 시애틀에 사는 돌리 레이니 할머니.

레이니 할머니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밤 시애틀 도심에서 열린 반 월가 시위에 동참했다가 경찰이 뿌린 페퍼 스프레이(최루액)을 얼굴에 맞았다.

흰색의 화학성 액체가 백발노인의 얼굴 전체를 덮어 뺨을 타고 줄줄 떨어지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했고 이는 전 세계적인 반 월가 시위 장면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장면으로 각인됐다.

(2)

OOO복지관 용품개발실에서는 오는 2월 1~20일까지 한소네 등 정보통신기기와 관련된 메모리와 카드리더기 등을 아래와 같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함을 알려드립니다

* 품목, 가격, 제조사
USB메모리(4G): 21,000원(메모라이브)
USB메모리(8G): 40,000원(메모라이브)
CF메모리(4G): 50,000원(샌디스크)
CF메모리(8G): 120,000원(샌디스크)
CF메모리(12G): 215,000원(샌디스크)
카드리더기: 12,000원(샌디스크)
* 문의처: (02) 415-8004, (02) 3433-3831, 010-6416-3861

〈 정 답 〉

제3장 한글 맞춤법 규정

제3장 한글 맞춤법 규정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표준어의 발음 형태대로 적는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바다, 나무, 하늘, 놀다, 달리다' 등은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은 형식이다. 하지만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만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꽃이'를 발음 소리대로 적을 경우 '꼬치'가 되어 '꽃'이라는 단어와 '이'라는 조사가 분명히 구별되지 않는데다 그 뜻이 쉽게 파악되지 않아 독서 능률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또 하나의 원칙이 붙은 것이다.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에서 '하늘, 구름, 달리다, 놀다'와 같은 단어들은 독립적으로 쓰이는 말의 단위이기 때문에, 글은 단어를 단위로 하여 띄어 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다만, 우리말의 조사(이, 가, 을, 를 등)는 그 특성상 앞의 단어에 붙여 쓴다.

제3항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다.

제4항 한글 자모의 수는 스물넉 자로 하고,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ㄱ(기역)	ㄴ(니은)	ㄷ(디귿)	ㄹ(리을)	ㅁ(미음)
ㅂ(비읍)	ㅅ(시옷)	ㅇ(이응)	ㅈ(지읒)	ㅊ(치읓)
ㅋ(키읔)	ㅌ(티읕)	ㅍ(피읖)	ㅎ(히읗)	
ㅏ(아)	ㅑ(야)	ㅓ(어)	ㅕ(여)	ㅗ(오)
ㅛ(요)	ㅜ(우)	ㅠ(유)	ㅡ(으)	ㅣ(이)

[붙임] 사전에 올릴 적의 자모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자음: ㄱ ㄲ ㄴ ㄷ ㄸ ㄹ ㅁ ㅂ ㅃ ㅅ ㅆ ㅇ ㅈ ㅉ ㅊ ㅋ ㅌ ㅍ ㅎ

모음: ㅏ ㅐ ㅑ ㅒ ㅓ ㅔ ㅕ ㅖ ㅗ ㅘ ㅙ ㅚ ㅛ ㅜ ㅝ ㅞ ㅟ ㅠ ㅡ ㅢ ㅣ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1.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소쩍새	어깨	오빠	으뜸	아끼다
기쁘다	깨끗하다	어떠하다	해쓱하다	가끔
거꾸로	부썩	어찌	이따금	

2. ‘ㄴ, ㄹ, ㅁ,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산뜻하다	잔뜩	살짝	훨씬	담뿍
움찔	몽땅	엉뚱하다		

다만,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국수	깍두기	딱지	색시	싹둑(~싹둑)
법석	갑자기	몹시		

제6항 ‘ㄷ, ㅌ’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 적에는, 그 ‘ㄷ, ㅌ’이 ‘ㅈ, ㅊ’으로 소리나더라도 ‘ㄷ, ㅌ’으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맏이	마지	|	핥이다	할치다
해돋이	해도지	|	걷히다	거치다
굳이	구지	|	닫히다	다치다

제7항 ‘ㄷ’ 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ㅅ’으로 적는다.

덧저고리	돗자리	엇셈	웃어른	핫옷
무릇	사뭇	얼핏	자칫하면	뭇[衆]
옛	첫	헛		

제8항 ‘계, 례, 몌, 폐, 혜’의 ‘ㅖ’는 ‘ㅔ’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ㅖ’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계수(桂樹)	게수		혜택(惠澤)	헤택
사례(謝禮)	사레		계집	게집
연몌(連袂)	연메		핑계	핑게
폐품(廢品)	페품		계시다	게시다

다만, 다음 말은 본음대로 적는다.

게송(偈頌)	게시판(揭示板)	휴게실(休憩室)

제9항 ‘의’나,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ㅢ’는 ‘ㅣ’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ㅢ’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의의(意義)	의이		닁큼	닝큼
본의(本義)	본이		띄어쓰기	띠어쓰기
무늬[紋]	무니		씌어	씨어
하늬바람	하니바람		희다	히다

제10항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여자(女子)	녀자	|	유대(紐帶)	뉴대
연세(年歲)	년세	|	이토(泥土)	니토
요소(尿素)	뇨소	|	익명(匿名)	닉명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에서는 '냐, 녀' 음을 인정한다.

냥(兩) 냥쭝(兩-) 년(年)(몇 년)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남녀(男女) 당뇨(糖尿) 결뉴(結紐) 은닉(隱匿)

[붙임 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신여성(新女性) 공염불(空念佛) 남존여비(男尊女卑)

[붙임 3]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에도 붙임 2에 준하여 적는다.

한국여자대학 대한요소비료회사

제11항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양심(良心)	량심	|	용궁(龍宮)	룡궁
역사(歷史)	력사	|	유행(流行)	류행

[붙임 1] 다만,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률'은 '열, 율'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나열(羅列)	나렬	분열(分裂)	분렬
규율(規律)	규률	선율(旋律)	선률
비율(比率)	비률	전율(戰慄)	전률

[붙임 2] 준말에서 본음으로 소리나는 것은 본음대로 적는다.

국련(국제연합) 대한교련(대한교육연합회)

제10항부터 제12항은 두음법칙과 관련된 규정이다. 두음법칙이란 어떤 소리가 단어의 첫머리에서 발음되는 것을 꺼려 다른 소리로 바뀌는 현상이다. '녀자'의 경우 '여자'로, '력사'의 경우 '역사'로 적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두음법칙은 언중(言衆)들에게 익히 알려진 것으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사용되고 있다.

다만 위의 붙임과 같이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률'의 경우에는 '열', '율'로 적는다는 점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나열'의 경우 '열'이 단어의 첫머리가 아니므로 규정상으로 '나렬'이라 해야 할 것 같으나 '렬' 앞에 있는 모음 'ㅏ'의 영향으로 인해 '나열'로 되어야 한다.

제12항 한자음 '라, 래, 로, 뢰, 루, 르'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나, 내, 노, 뇌, 누, 느'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낙원(樂園)	락원	뇌성(雷聲)	뢰성
내일(來日)	래일	누각(樓閣)	루각
노인(老人)	로인	능묘(陵墓)	릉묘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쾌락(快樂) 극락(極樂) 거래(去來) 왕래(往來)
부로(父老) 연로(年老) 지뢰(地雷) 낙뢰(落雷)

[붙임 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단어는 뒷말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내내월(來來月) 상노인(上老人) 중노동(重勞動)
비논리적(非論理的)

제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딱딱	딱닥		꼿꼿하다	꼿곳하다
쌕쌕	쌕색		놀놀하다	놀롤하다
씩씩	씩식		눅눅하다	눙눅하다
유유상종(類類相從)	유류상종		씁쓸하다	씁슬하다
누누이(屢屢-)	누루이		짭짤하다	짭잘하다

제14항 체언은 조사와 구별하여 적는다.

떡이	떡을	떡에	떡도	떡만
낮이	낮을	낮에	낮도	낮만
흙이	흙을	흙에	흙도	흙만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먹다	먹고	먹어	먹으니
웃다	웃고	웃어	웃으니
앉다	앉고	앉아	앉으니

[붙임 1]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고, 그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1)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

넘어지다	늘어나다	늘어지다	돌아가다	되짚어가다
들어가다	떨어지다	벌어지다	엎어지다	접어들다
틀어지다	흩어지다			

(2) 본뜻에서 멀어진 것

드러나다	사라지다	쓰러지다

제16항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ㅏ, ㅗ' 일 때에는 어미를 '-아'로 적고, 그 밖의 모음일 때에는 '-어'로 적는다.

1. '-아'로 적는 경우

나아	나아도	나아서
막아	막아도	막아서

2. '-어'로 적는 경우

개어	개어도	개어서
겪어	겪어도	겪어서

제17항 어미 뒤에 덧붙는 조사 '-요'는 '-요'로 적는다.

읽어	읽어요
참으리	참으리요
좋지	좋지요

[붙임1]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이것은 책이오.	이것은 책이요.
이리로 오시오.	이리로 오시요.
이것은 책이 아니오.	이것은 책이 아니요.

[붙임2] 연결형에서 사용되는 '이요'는 '이요'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붓이요, 또 저것은 먹이다.	이것은 책이오, 저것은 붓이오, 또 저것은 먹이다.

문장의 끝에 오는 '오'와 '요'의 경우 그 쓰임이 애매할 경우가 많다. 먼저 기본적으로 '오'와 '요'의 쓰임은 문법적 쓰임에 따라 다르다. 종결형 어미('-다' 와 같이 문장의 끝에서 문장을 끝맺음 하는 어미)일 경우에는 발음과 상관없이 '오'를 사용하고 어미 뒤에 덧붙는 조사의 경우에는 '요'를 붙인다. 그리고 [붙임2]처럼 앞의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이요'를 사용한다.

하지만 이러한 문법적 설명에도 불구하고 종결형 어미 '오'와 조사 '요'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럴 경우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오' 또는 '요'를 생략했을 때 말이 되면 '요'를 말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오'를 사용하면 된다.

예를 들어 '이것은 책이오'에서 오를 생략할 경우 '이것은 책이'가 되므로 어법상 맞지 않다. 이럴 경우 '요'가 아닌 '오'를 사용한다. 또 '책을 읽어요'에서 '요'를 생략하면 '책을 읽어'가 되므로 어법상 틀린 데가 없다. 따라서 '요'를 사용한다.

물론 위의 방법이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연결형 조사의 경우에는 '요'를 사용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제18항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

1. 어간의 끝 'ㄹ' 이 줄어질 적

갈다:	가니	간	갑니다	가시다	가오
놀다:	노니	논	놉니다	노시다	노오
불다:	부니	분	붑니다	부시다	부오

[붙임] 다음과 같은 말에서도 'ㄹ' 이 준 대로 적는다.

마지못하다 마지않다 (하)다마다 (하)자마자
(하)지 마라 (하)지 마(아)

2. 어간의 끝 'ㅅ' 이 줄어질 적

긋다:	그어	그으니	그었다
낫다:	나아	나으니	나았다

3. 어간의 끝 'ㅎ' 이 줄어질 적

그렇다:	그러니	그럴	그러면	그러오
퍼렇다:	퍼러니	퍼럴	퍼러면	퍼러오
하얗다:	하야니	하얄	하야면	하야오

4. 어간의 끝 'ㅜ, ㅡ' 가 줄어질 적

담그다:	담가	담갔다	|	고프다:	고파	고팠다
따르다:	따라	따랐다	|	바쁘다:	바빠	바빴다

5. 어간의 끝 'ㄷ'이 'ㄹ'로 바뀔 적

걷다[步]:	걸어	걸으니	걸었다
듣다[聽]:	들어	들으니	들었다

6. 어간의 끝 'ㅂ'이 'ㅜ'로 바뀔 적

깁다:	기워	기우니	기웠다
굽다[炙]:	구워	구우니	구웠다
밉다:	미워	미우니	미웠다
쉽다:	쉬워	쉬우니	쉬웠다

다만, '돕-, 곱-'과 같은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가 결합되어 '와'로 소리 나는 것은 '-와'로 적는다.

돕다[助]:	도와	도와서	도와도	도왔다
곱다[麗]:	고와	고와서	고와도	고왔다

7. '하다'의 활용에서 어미 '-아'가 '-여'로 바뀔 적

하다:	하여	하여서	하여도	하여라	하였다

8. 어간의 끝음절 '르' 뒤에 오는 어미 '-어'가 '-러'로 바뀔 적

이르다[至]:	이르러	이르렀다
노르다:	노르러	노르렀다
누르다:	누르러	누르렀다
푸르다:	푸르러	푸르렀다

9. 어간의 끝음절 '르'의 'ㅡ'가 줄고, 그 뒤에 오는 어미 '-아/-어'가 '-라/-러'로 바뀔 적

가르다:	갈라	갈랐다	부르다:	불러	불렀다
거르다:	걸러	걸렀다	오르다:	올라	올랐다
벼르다:	별러	별렀다	지르다:	질러	질렀다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

길이	깊이	높이	다듬이	땀받이	달맞이
먹이	미닫이	벌이	벼훑이	살림살이	쇠붙이

2.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

걸음	묶음	믿음	얼음	엮음	울음
웃음	졸음	죽음	앎	만듦	

3.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같이	굳이	길이	높이	많이	실없이
좋이	짓궂이				

4.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밝히	익히	작히

다만,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그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굽도리	다리[髢]	목거리(목병)	무녀리
코끼리	거름(비료)	고름[膿]	노름(도박)

[붙임]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1) 명사로 바뀐 것

귀머거리	까마귀	너머	뜨더귀	마감
마개	마중	무덤	비렁뱅이	쓰레기
올가미	주검			

(2) 부사로 바뀐 것

거뭇거뭇	너무	도로	뜨덤뜨덤	바투

불긋불긋　　비로소　　오긋오긋　　자주　　차마

(3) 조사로 바뀌어 뜻이 달라진 것

나마　　부터　　조차

제20항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부사로 된 것

곳곳이　　낱낱이　　몫몫이　　샅샅이　　앞앞이　　집집이

2. 명사로 된 것

곰배팔이　　바둑이　　삼발이　　애꾸눈이

육손이　　절뚝발이/절름발이

[붙임]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꼬락서니　　끄트머리　　모가치　　바가지　　바깥

사타구니　　싸라기　　이파리　　지붕　　지푸라기　　짜개

20항 1번처럼 명사에 접미사 '-이'가 붙어서 품사가 바뀌거나 20항 2번처럼 명사에 접미사 '-이'가 붙어 그 뜻이 달라지더라도 명사의 원형을 그대로 밝혀 적는다.

예를 들어 '곳곳이'는 '곳곳'(명사)+'이'(접미사)가 결합한 형태로 접미사 '이'로 인하여 명사가 부사가 되는 경우이며 이런 경우에는 '곳고시'라고 하지 않고 '곳곳'의 원형을 그대로 밝혀 '곳곳이'로 적음을 뜻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곰배팔이'는 '곰배팔'(명사)에 접미사 '이'가 결합한 형태로 명사라는 품사가 변하지 않는 것으로 '곰배파리'라고 적지 않고 원형을 밝혀 '곰배팔이'로 적는다.

하지만 [붙임]의 '꼬락서니'처럼 접미사 '이'가 아닌 다른 모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원형을 밝히지 않는다.

'꼬락서니'의 경우 명사 '꼴'과 접미사 '악서니'가 결합한 형태로 '꼴악서니'가 아닌 '꼬락서니'가 되며 그 외 '끄트머리'='끝'+'으머리', '모가치'='목'+'아치'의 형태이므로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제21항 명사나 혹은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명사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것

값지다 홑지다 넋두리 빛깔 옆댕이 잎사귀

2.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것

낚시 늙정이 덮개 뜯게질
갉작갉작하다 갉작거리다 뜯적거리다 뜯적뜯적하다 굵다랗다
굵직하다 깊숙하다 넓적하다
높다랗다 늙수그레하다 얽죽얽죽하다

다만, 다음과 같은 말은 소리대로 적는다.

(1)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

할짝거리다 널따랗다 널찍하다 말끔하다
말쑥하다 말짱하다 실쭉하다 실큼하다
얄따랗다 얄팍하다 짤따랗다 짤막하다
실컷

(2)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본뜻에서 멀어진 것

넙치 올무 골막하다 납작하다

제22항 용언의 어간에 다음과 같은 접미사들이 붙어서 이루어진 말들은 그 어간을 밝히어 적는다.

1. '-기-, -리-, -이-, -히-, -구-, -우-, -추-, -으키-, -이키-, -애-'가 붙는 것

맡기다 옮기다 웃기다 쫓기다 뚫리다
울리다 낚이다 쌓이다 핥이다 굳히다
굽히다 넓히다 앉히다 얽히다 잡히다

다만, '－이－, －히－, －우－'가 붙어서 된 말이라도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도리다(칼로 ~) 드리다(용돈을 ~) 고치다
바치다(세금을 ~) 부치다(편지를 ~) 거두다
미루다 이루다

2. '－치－, －뜨리－, －트리－'가 붙는 것

놓치다 덮치다 떠받치다 받치다 밭치다
부딪치다 뻗치다 엎치다 부딪뜨리다/부딪트리다
쏟뜨리다/쏟트리다 젖뜨리다/젖트리다
찢뜨리다/찢트리다 흩뜨리다/흩트리다

[붙임] '－업－, －읍－, －브－'가 붙어서 된 말은 소리대로 적는다.

미덥다 우습다 미쁘다

제23항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깔쭉이	깔쭈기	살살이	살사리
꿀꿀이	꿀꾸리	쌕쌕이	쌕쌔기
눈깜짝이	눈깜짜기	오뚝이	오뚜기
더펄이	더퍼리	코납작이	코납자기
배불뚝이	배불뚜기	푸석이	푸서기
삐죽이	삐주기	홀쭉이	홀쭈기

[붙임]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이'나 또는 다른 모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개구리 귀뚜라미 기러기 깍두기 꽹과리
날라리 누더기 동그라미 두드러기 딱따구리
매미 부스러기 뻐꾸기 얼루기 칼싹두기

'깔죽이'의 어근 '깔죽'은 '깔죽거리다'가 가능하다. 그 밖에 단어들에도 '-하다', '-거리다'가 붙어 '살살하다', '꿀꿀거리다', '쌕쌕거리다' 등이 가능하며 이런 단어들은 원형을 밝혀 적는다.

하지만 제23항과 [붙임]은 실제로 구분하기 애매한 점이 있다. 그 이유는 어떤 어근에 '-하다' 또는 '-거리다'가 붙는지 혹은 붙지 않는지 언중의 입장에서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개구리'는 '개굴'+'이'가 결합된 경우로 명사 '개굴'에 '거리다'가 붙어 '개굴거리다' 또는 '개굴하다' 가 가능할 것 같다. 하지만 표준어 원칙에 의하면 '개굴개굴하다'로 되어 있으므로 '개굴이'가 아닌 '개구리'로 적어야 한다.

따라서 평상시 이런 문제를 접했을 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단어를 분석해 보는 것은 물론 사전을 가까이 두고 그 어원과 쓰임에 늘 관심을 두는 것이 필수적이다.

제24항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시늉말 어근에 '-이다'가 붙어서 된 용언은 그 어근을 밝히어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깜짝이다	깜짜기다		속삭이다	속사기다
꾸벅이다	꾸버기다		숙덕이다	숙더기다
번득이다	번드기다		허덕이다	허더기다
번쩍이다	번쩌기다		헐떡이다	헐떠기다

제25항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는 경우

급히 꾸준히 도저히 딱히 어렴풋이 깨끗이

[붙임] '-하다'가 붙지 않는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는다.

갑자기 반드시(꼭) 슬며시

2. 부사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

곰곰이 더욱이 생긋이 오뚝이 일찍이 해죽이

우리는 흔히 '반듯이/반드시' 그리고 '곰곰이/곰곰히'를 헷갈려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제25항은 어떤 경우에는 '-이'를 쓰고 어떤 경우에는 '-히'를 쓸 것인지를 알려주는 항으로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는 편이다.

'-하다'가 붙는 어근이란, '급하다', '꾸준하다', '도저하다'(생각이나 학식이 깊다는 의미. 모르는 단어는 사전을 찾아 뜻과 어원을 살펴보길 추천함.)처럼 접미사 '-하다'가 붙어 용언을 이루는 형태를 말한다. 이렇게 '-하다'가 붙는 어근에는 접미사 '이' 또는 '히'를 붙여 부사로 만든다.

예를 들어 '갑자기'는 '갑작'에 '이'가 붙은 형태로 '갑작하다'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갑작이'가 아닌 원형을 무시하여 '갑자기'로 적어야 한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문제 하나! '반듯이'와 '반드시' 중에 어느 것인 올바른 표기일까? 답은 둘 다 맞다. 이유는 '반듯이'는 어그러지지 않고 올바르다는 의미의 '반듯하다'에서 파생되었으며 '이'가 붙어 '반듯이'가 되며, 반드시는 '-하다'가 붙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소리대로 적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제26항 '- 하다' 나 '- 없다' 가 붙어서 된 용언은 그 '- 하다' 나 '- 없다' 를 밝히어 적는다.

1. '- 하다' 가 붙어서 용언이 된 것

딱하다 숱하다 착하다 텁텁하다 푹하다

2. '- 없다' 가 붙어서 용언이 된 것

부질없다 상없다 시름없다 열없다 하염없다

제27항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국말이	꺾꽂이	꽃잎	끝장	물난리
값없다	겉늙다	굶주리다	낮잡다	맞먹다
받내다	벋놓다	빗나가다	빛나다	새파랗다
엿듣다	옻오르다	짓이기다	헛되다	

[붙임 1] 어원은 분명하나 소리만 특이하게 변한 것은 변한 대로 적는다.

할아버지 할아범

[붙임 2]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골병	골탕	끌탕	며칠	아재비
오라비	업신여기다	부리나케		

[붙임 3] '이[齒, 虱]'가 합성어나 이에 준하는 말에서 '니' 또는 '리'로 소리 날 때에는 '니'로 적는다.

간니	덧니	사랑니	송곳니	앞니
어금니	윗니	젖니	톱니	틀니
가랑니	머릿니			

제28항 끝소리가 'ㄹ'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 나는 대로 적는다.

다달이(달 - 달 - 이)	따님(딸 - 님)	마되(말 - 되)
마소(말 - 소)	무자위(물 - 자위)	바느질(바늘 - 질)
부나비(불 - 나비)	부삽(불 - 삽)	부손(불 - 손)
소나무(솔 - 나무)	싸전(쌀 - 전)	여닫이(열 - 닫이)
우짖다(울 - 짖다)	화살(활 - 살)	

제29항 끝소리가 'ㄹ'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은 'ㄷ'으로 적는다.

반짇고리(바느질~)	사흗날(사흘~)	삼짇날(삼질~)
섣달(설~)	숟가락(술 ~)	이튿날(이틀 ~)
잗주름(잘~)	푿소(풀~)	섣부르다(설~)
잗다듬다(잘~)	잗다랗다(잘~)	

원칙적으로 '꿀떡'(꿀+떡)과 같은 합성어나 '물질'(물+질)과 같이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결합한 파생어는 그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한다. 하지만 28항과 29항의 단어들은 역사적인 현상으로서 'ㄹ'이 떨어져 나가서나 'ㄹ'이 'ㄷ'으로 변하여 형태가 굳어진 경우이다. 이 경우 특별한 법칙이 없으므로 반복적으로 익혀야 한다.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1.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고랫재	귓밥	나룻배	나뭇가지	냇가
댓가지	뒷갈망	맷돌	머릿기름	모깃불
못자리	바닷가	뱃길	볏가리	부싯돌
선짓국	쇳조각	아랫집	우렁잇속	잇자국
잿더미	조갯살	찻집	쳇바퀴	킷값
핏대	햇볕	혓바늘		

(2) 뒷말의 첫소리 'ㄴ,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멧나물	아랫니	텃마당	아랫마을	뒷머리
잇몸	깻묵	냇물	빗물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도리깻열	뒷윷	두렛일	뒷일	뒷입맛
베갯잇	욧잇	깻잎	나뭇잎	댓잎

2.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귓병	머릿방	뱃병	봇둑	사잣밥
샛강	아랫방	자릿세	전셋집	찻잔
찻종	촛국	콧병	탯줄	텃세
핏기	햇수	횟가루	횟배	

(2) 뒷말의 첫소리 'ㄴ,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곗날 제삿날 훗날 툇마루 양칫물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가욋일 사삿일 예삿일 훗일

3. 두 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찻간(車間) 툇간(退間) 횟수(回數)

사이시옷은 순 우리말과 순 우리말이 결합하거나 순우리말과 한자어가 결합하는 경우 두 단어 사이에 발음상의 이유로 'ㅅ'을 첨가하는 것으로 우리말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사용되는 현상이다. 각 경우별로 단어의 결합과 단어의 발음을 잘 살펴 이해하고 단어별로 적용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제30항의 1번은 순 우리말과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 중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에 적용된다. 그 중에서 (1)번은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ㄲ, ㄸ, ㅃ, ㅆ, ㅉ)로 나는 것으로 예를 들면, '고래'와 '재'가 결합하게 되면 발음상 [고래째]가 된다. 이 때 뒷말 '재'의 첫소리가 된소리([째])로 발음되므로 사이시옷이 들어가게 된다. (2)번은 뒷말의 첫소리인 'ㄴ', 'ㅁ' 앞에서 'ㄴ'이 첨가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곗날'의 경우 '계'와 '날'이 결합된 합성어로 두 단어가 결합하게 되면 [곈날]이라고 발음된다. 따라서 뒷말 '날' 앞에서 'ㄴ'이 첨가되어 소리가 나게 되므로 사이시옷을 써야 한다. (3)번은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받침에 'ㄴ'과 첫소리에 'ㄴ'이 소리가 덧나는 경우로 '가외'와 '일'이 결합하게 되면 [가왼닐]이 된다. 발음상 받침에 'ㄴ'과 뒷말 첫소리에 'ㄴ'이 덧나므로 사이시옷을 첨가하여 '가욋일'로 적는다.

제30항 2번의 (1)~(3)번도 위와 같으나 단,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라는 차이가 있다.

사이시옷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제30항의 3번이다. 앞서 설명한 대로 사이시옷은 순 우리말과 순 우리말의 결합 또는 순 우리말과 한자어의 결합에만 해당된다. 따라서 '내과(內科)'처럼 [내꽈]로 발음되어 (1)번의 규정에 적합하더라도 '내'와 '과'가 한자어와 한자어의 결합이므로 사이시옷을 넣지 않는다. 하지만 한자어와 한자어가 결합된 경우라 하더라도 '곳간', '셋방', '숫자', 찻간', '툇간', '횟수' 6개 단어는 예외로 한다.

제31항 두 말이 어울릴 적에 'ㅂ' 소리나 'ㅎ' 소리가 덧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1. **'ㅂ' 소리가 덧나는 것**

댑싸리(대ㅂ싸리)	멥쌀(메ㅂ쌀)	볍씨(벼ㅂ씨)	
입때(이ㅂ때)	입쌀(이ㅂ쌀)	접때(저ㅂ때)	
좁쌀(조ㅂ쌀)	햅쌀(해ㅂ쌀)		

2. **'ㅎ' 소리가 덧나는 것**

머리카락(머리ㅎ가락)	살코기(살ㅎ고기)	수캐(수ㅎ개)	수컷(수ㅎ것)
수탉(수ㅎ닭)	안팎(안ㅎ밖)		
암캐(암ㅎ개)	암컷(암ㅎ것)	암탉(암ㅎ닭)	

제32항 단어의 끝모음이 줄어지고 자음만 남은 것은 그 앞의 음절에 받침으로 적는다.

(본말)	(준말)
기러기야	기럭아
어제그저께	엊그저께
어제저녁	엊저녁
가지고, 가지지	갖고, 갖지
디디고, 디디지	딛고, 딛지

제33항 체언과 조사가 어울려 줄어지는 경우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그것은	그건
나는	난
나를	날
무엇을	뭣을/무얼/뭘

제34항 모음 'ㅏ, ㅓ'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었-'이 어울릴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가아	가	가았다	갔다
나아	나	나았다	났다
타아	타	타았다	탔다
서어	서	서었다	섰다
켜어	켜	켜었다	켰다
펴어	펴	펴었다	폈다

제35항 모음 'ㅗ, ㅜ'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었-'이 어울려 'ㅘ/ㅝ, ㅘㅆ/ㅝㅆ'으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꼬아	꽈	|	꼬았다	꽜다
보아	봐	|	보았다	봤다
주어	줘	|	주었다	줬다

제36항 'ㅣ' 뒤에 '-어'가 와서 'ㅕ'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가지어	가져	|	가지었다	가졌다
견디어	견뎌	|	견디었다	견뎠다
치이어	치여	|	치이었다	치였다

제37항 'ㅏ, ㅕ, ㅗ, ㅜ, ㅡ'로 끝난 어간에 '-이-'가 와서 각각 'ㅐ, ㅖ, ㅚ, ㅟ, ㅢ'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싸이다	쌔다	|	누이다	뉘다
펴이다	폐다	|	뜨이다	띄다
보이다	뵈다	|	쓰이다	씌다

제38항 'ㅏ, ㅗ, ㅜ, ㅡ' 뒤에 '-이어'가 어울려 줄어질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싸이어	쌔어 싸여	|	뜨이어	띄어
보이어	뵈어 보여	|	쓰이어	씌어 쓰여
쏘이어	쐬어 쏘여	|	트이어	틔어 트여

제39항 어미 '-지' 뒤에 '않-'이 어울려 '-잖-'이 될 적과 '-하지' 뒤에 '않-'이 어울려 '-찮-'이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그렇지 않은	그렇잖은		만만하지 않다	만만찮다
적지 않은	적잖은		변변하지 않다	변변찮다

제40항 어간의 끝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소리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간편하게	간편케		다정하다	다정타
연구하도록	연구토록		정결하다	정결타
가하다	가타		흔하다	흔타

[붙임 1] 'ㅎ'이 어간의 끝소리로 굳어진 것은 받침으로 적는다.

않다	않고	않지	않든지
그렇다	그렇고	그렇지	그렇든지

[붙임 2]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거북하지	거북지		넉넉하지 않다	넉넉지 않다
생각하건대	생각건대		못하지 않다	못지않다

[붙임 3] 다음과 같은 부사는 소리대로 적는다.

결단코	결코	기필코	무심코	아무튼	요컨대
정녕코	필연코	하마터면	하여튼	한사코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꽃이	꽃마저	꽃밖에	꽃에서부터	꽃으로만
꽃이나마	꽃이다	꽃입니다	꽃처럼	어디까지나
거기도	멀리는	웃고만		

우리말에서 조사는 독립된 단어로 다루지만 실제적으로 언어를 사용할 때는 자립하여 쓸 수 없는 의존 형태소이므로 앞말에 붙여 씀을 원칙으로 한다.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것 수 만큼 이 바 지

아는 **것**이 힘이다. 나도 할 **수** 있다.
먹을 **만큼** 먹어라. 아는 **이**를 만났다.
네가 뜻한 **바**를 알겠다. 그가 떠난 **지**가 오래다.

의존 명사는 문법상으로 명사의 범주에 속하므로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는 제2항에 따라 의존 명사 또한 띄어 쓴다. 다만 의존 명사가 일반 명사와 다른 점은 혼자 독립적으로 쓸 수 없다는 점이다. 즉 '아는 것이 힘이다'에서 의존 명사를 수식하는 '아는'이 빠질 경우 '것이 힘이다'는 어법상 어긋나는 문장이 된다. 그 밖의 다른 의존 명사 또한 앞에 수식하는 말이 빠질 경우 어법상 어긋나므로 다른 말에 의존하여 함께 쓰인다.

하지만 의존 명사 중 몇몇은 의존 명사 뿐만 아니라 조사, 접미사, 어미 등으로 쓰이므로 아래의 경우처럼 구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만큼(의존명사)** 최선을 다 한 **만큼** 결과 또한 좋을 것이다.
- **만큼(조사)** 너**만큼** 키 큰 학생을 본 적이 없다.

- **뿐(의존명사)** 너를 사랑했을 **뿐** 괴롭힐 생각은 없었다.
- **뿐(접미사)** 내가 사랑한 사람은 너**뿐**이야.

- **대로(의존명사)** 네가 하는 **대로** 따라 해야지.
- **대로(조사)**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한다.

· **판(의존명사)** 한 **판** 벌려 보자.
· **판(명사)** 노름**판**을 기웃거리지 마라.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한 **개**	차 한 **대**	금 서 **돈**	소 한 **마리**
옷 한 **벌**	열 **살**	조기 한 **손**	연필 한 **자루**
버선 한 **죽**	집 한 **채**	신 두 **켤레**	북어 한 **쾌**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두**시** 삼십**분** 오**초**	제일**과**	삼**학년**
육**층**	1446**년** 10**월** 9**일**	2**대대**
16**동** 502**호**	제1실습**실**	80**원**
10**개**	7**미터**	

개, 대, 돈, 마리, 벌, 살, 손, 자루 등은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이고 이들 대부분은 독립적으로 쓸 수 없는 의존명사(42항 참고)에 속한다. 따라서 앞의 단어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층, 학년과 같이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년, 월, 일과 같이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이는 '붙여 쓸 수 있는' 허용 조항이다. 따라서 '두 **시** 삼십 **분** 오 **초**'가 원칙이지만 '두**시** 삼십**분** 오**초**'로도 쓸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제44항 수를 적을 적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십이**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팔
12**억** 3456**만** 7898 1**조** 2000**억**

아라비아 숫자에서 금액을 표기할 때 천 단위로 띄어 쓰듯이 우리말은 '만' 단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이를 좀더 풀어 쓰자면 만, 억, 조 단위가 나올 때 마다 띄어 쓴다고 생각하면 된다.

제45항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다음의 말들은 띄어 쓴다.

국장 **겸** 과장	열 **내지** 스물	청군 **대** 백군
책상, 걸상 **등**이 있다	이사장 **및** 이사들	사과, 배, 귤 **등등**
사과, 배 **등속**	부산, 광주 **등지**	

'겸', '내지', '대', '및'과 같이 두 말을 이어주는 말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고 '등', '등등', '등속', '등지'와 같이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들은 의존명사에 속하므로 또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제46항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

그때 그곳 좀더 큰것 이말 저말 한잎 두잎

제46항의 규정은 허용 규정으로, '그때 그곳'은 '그 때 그 곳'으로 씀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원칙에도 불구하고 46항이 삽입 된 이유는 한 음절이 이루어지는 단어가 여럿 이어질 경우, 쓰기에도 불편하고 읽을 때에 능률이 떨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ㄱ	ㄴ
불이 꺼져 **간다**.	불이 꺼져간다.
내 힘으로 막아 **낸다**.	내 힘으로 막아낸다.
어머니를 도와 **드린다**.	어머니를 도와드린다.
그릇을 깨뜨려 **버렸다**.	그릇을 깨뜨려버렸다.
비가 올 **듯하다**.	비가 올듯하다.
그 일은 할 **만하다**.	그 일은 할만하다.
일이 될 **법하다**.	일이 될법하다.
비가 올 **성싶다**.	비가 올성싶다.
잘 아는 **척한다**.	잘 아는척한다.

[붙임]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동사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

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잘도 놀아만 나는구나!	책을 읽어도 보고…….
네가 덤벼들어 보아라.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다.
그가 올 듯도 하다.	잘난 체를 한다.

보조용언은 독자적으로 문장의 서술어가 되지 못하고, 본용언 뒤에 붙어서 본용언의 뜻을 도와 주는 용언을 말한다. 즉, 본용언은 문장에서 주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보조용언은 부수적인 수단으로 주요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한편 보조용언과 본용언을 구별하는 쉬운 방법 중 하나는 본용언은 문장에서 제거하면 그 문장이 성립하지 않으나, 보조용언은 그것을 제거해도 성립한다.

예를 들면 '불이 꺼져 간다'에서 보조용언 '간다'를 제거하면 '불이 꺼진다'가 되어 문장이 성립하지만 본용언 '꺼져'를 제거하면 '불이 간다'로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한 보조 용언에는 '가다', '주다', '버리다'와 같은 동사가 보조용언이 되는 경우도 있고 '듯하다', '만하다', '법하다', '성싶다', '척하다'와 같이 의존명사 뒤에 '하다', '싶다'가 붙어 보조용언이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붙임]과 같이 다음 경우에는 보조용언은 띄어 쓴다.

첫째, 보조용언 앞말에 조사가 붙는 경우

예) '놀아만 나는구나' : 본용언에 '만'이라는 조사가 붙어 '나는구나' 보조용언을 띄어 씀.

둘째 보조용언 앞말이 합성 동사인 경우

예) '덤벼들어 보아라' : 본용언 '덤벼들어'가 '덤벼'와 '들어'가 합쳐진 합성 동사 이므로 보조용언 '보아라'를 띄어 씀.

셋째, 보조용언 중간에 조사가 들어가는 경우

예) '듯도 하다' : 보조용언 '듯하다' 사이에 조사 '도'가 첨가되어 띄어 씀.

제48항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김양수(金良洙)	서화담(徐花潭)	채영신 씨
최치원 선생	박동식 박사	충무공 이순신 장군

[붙임] 성과 이름, 성과 호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띄어 쓸 수 있다.

남궁억/남궁 억	독고준/독고 준
황보지봉(皇甫芝峰)/황보 지봉	

성과 이름, 관직, 호 등은 모두 별개의 단어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 한자 문화권에 속하는 나라들에서는 성명을 붙여 쓰는 것이 통례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통례를 따르고 있다. 따라서 본인의 이름을 쓰는 경우 '홍 길동'처럼 성과 이름을 띄어 쓰는 경우가 종종 있는 데에 이는 잘못된 표기이다.

하지만 붙임과 같이 성이 두 자 이상이거나 성과 이름, 상과 호의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 분명한 구분을 위해 띄어 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제49항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ㄱ	ㄴ
대한 중학교	대한중학교
한국 대학교 사범 대학	한국대학교 사범대학
제50항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ㄱ	ㄴ
만성 골수성 백혈병	만성골수성백혈병
중거리 탄도 유도탄	중거리탄도유도탄

고유 명사, 전문 용어도 단어의 일종으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한 중학교'처럼 고유 명사를 단어별로 띄어 쓸 경우, 하나의 대상으로 인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위별로 붙여 쓸 수 있다. 예를 들면 '한국 대학교 사범 대학 특수 교육과'가 원칙이지만 '한국대학교 사범대학 특수교육과'의 표기도 허용한다.

제51항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1. '이'로만 나는 것

가붓이	깨끗이	나붓이	느긋이	둥긋이	헛되이
따뜻이	반듯이	버젓이	산뜻이	의젓이	가까이
고이	날카로이	대수로이	번거로이	많이	적이
겹겹이	번번이	일일이	집집이	틈틈이	

2. ‘히’로만 나는 것

극히	급히	딱히	속히	작히
족히	특히	엄격히	정확히	

3. ‘이, 히’로 나는 것

솔직히	가만히	간편히	나른히	무단히
각별히	소홀히	쓸쓸히	정결히	과감히
꼼꼼히	심히	열심히	급급히	답답히
섭섭히	공평히	능히	당당히	분명히
상당히	조용히	간소히	고요히	도저히

제51항은 맞춤법 문제에서 자주 나오면 실제 글을 쓸 때도 ‘일일이’와 ‘일일히’로 쓸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 부사 뒤에 ‘이’와 ‘히’를 구분하여 적을 때도 적용되는 규칙성이 있다. 예를 들어 첩어 명사 뒤, ㅂ불규칙 용언의 어간 뒤, ‘하다’가 붙지 않는 용언 어간 뒤에는 ‘이’를 적고 ‘하다’가 붙는 어근 뒤에는 ‘히’를 적는다. 하지만 이러한 규칙이 상당히 복잡하고 또 원칙과 달리 관용적으로 굳어져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규칙을 적용하기보다 위 조항에 따라 발음을 정확히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편할 수 있다. 따라서 평상시 ‘히’로 끝나거나 ‘이/히’로 끝나는 경우 ‘히’를 의식하며 발음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제52항 한자어에서 본음으로도 나고 속음으로도 나는 것은 각각 그 소리에 따라 적는다.

(본음으로 나는 것)	(속음으로 나는 것)
승낙(承諾)	수락(受諾), 쾌락(快諾), 허락(許諾)
만난(萬難)	곤란(困難), 논란(論難)
안녕(安寧)	의령(宜寧), 회령(會寧)
분노(忿怒)	대로(大怒), 희로애락(喜怒哀樂)
토론(討論)	의논(議論)
오륙십(五六十)	오뉴월, 유월(六月)
목재(木材)	모과(木瓜)
십일(十日)	시방정토(十方淨土), 시왕(十王), 시월(十月)
팔일(八日)	초파일(初八日)

제53항 다음과 같은 어미는 예사소리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으)르거나	-(으)르꺼나
-(으)르걸	-(으)르껄
-(으)르게	-(으)르께
-(으)르세	-(으)르쎄
-(으)르세라	-(으)르쎄라
-(으)르수록	-(으)르쑤록
-(으)르시	-(으)르씨
-(으)르지	-(으)르찌
-(으)르지니라	-(으)르찌니라
-(으)르지라도	-(으)르찌라도
-(으)르지어다	-(으)르찌어다
-(으)르지언정	-(으)르찌언정
-(으)르진대	-(으)르찐대
-(으)르진저	-(으)르찐저
-올시다	-올씨다

[붙임] 의문을 나타내는 다음 어미들은 된소리로 적는다.

-(으)르까? -(으)르꼬? -(스)ㅂ니까?
-(으)리까? -(으)르쏘냐?

아직까지 '할게'를 '할께'로 적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는 이전의 맞춤법 규정에 의해 'ㄹ께'로 적었기 때문이지만 현재는 'ㄹ게'로 적어야 한다. 위 항에서 밝혔 듯이 의문을 나타내는 경우를 제외하고 받침 'ㄹ' 뒤에 연결되는 어떤 경우도 된소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 구분하기가 쉽다.

제54항 다음과 같은 접미사는 된소리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심부름꾼	심부름군	귀때기	귓대기
익살꾼	익살군	볼때기	볼대기
일꾼	일군	판자때기	판잣대기
장꾼	장군	뒤꿈치	뒷굼치
장난꾼	장난군	팔꿈치	팔굼치
지게꾼	지겟군	이마빼기	이맛배기
때깔	땟갈	코빼기	콧배기
빛깔	빛갈	객쩍다	객적다
성깔	성갈	겸연쩍다	겸연적다

'-군/-꾼'은 '꾼'으로, '-갈/-깔'은 '깔'로, '-대기/-때기'는 '때기'로, '-굼치/-꿈치'는 '꿈치'로 통일하여 적는다. 그리고 '-배기/-빼기', '-적다/-쩍다'는 [빼기], [쩍다]로 발음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배기', '적다'로 쓴다.

제55항 두 가지로 구별하여 적던 다음 말들은 한 가지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맞추다(입을 맞춘다. 양복을 맞춘다.)	마추다
뻗치다(다리를 뻗친다. 멀리 뻗친다.)	뻐치다

제56항 '-더라, -던'과 '-든지'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는 '-더라, -던'으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지난 겨울은 몹시 춥더라.	지난 겨울은 몹시 춥드라.
깊던 물이 얕아졌다.	깊든 물이 얕아졌다.
그렇게 좋던가?	그렇게 좋든가?
그 사람 말 잘하던데!	그 사람 말 잘하든데!
얼마나 놀랐던지 몰라.	얼마나 놀랐든지 몰라.

2. 물건이나 일의 내용을 가리지 아니하는 뜻을 나타내는 조사와 어미는 '(-)든지'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배든지 사과든지 마음대로 먹어라	배던지 사과던지 마음대로 먹어라
가든지 오든지 마음대로 해라.	가던지 오던지 마음대로 해라.

한 가지만 기억해 두라! 과거 의미일 때는 '-더라/-던', 선택의 의미일 때는 '-든지'. 비록 간단하지만 매우 유용하고 중요한 규칙이다.

제57항 다음 말들은 각각 구별하여 적는다.

가름	둘로 가름.
갈음	새 책상으로 갈음하였다.
거름	풀을 썩인 거름.
걸음	빠른 걸음.
거치다	영월을 거쳐 왔다.
걷히다	외상값이 잘 걷힌다.
걷잡다	걷잡을 수 없는 상태.
겉잡다	겉잡아서 이틀 걸릴 일.
그러므로(그러니까)	그는 부지런하다. 그러므로 잘 산다.
그럼으로(써)	그는 열심히 공부한다. 그럼으로(써)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은혜에 보답한다.
노름	노름판이 벌어졌다.
놀음(놀이)	즐거운 놀음.
느리다	진도가 너무 느리다.
늘이다	고무줄을 늘인다.
늘리다	수출량을 더 늘린다.
다리다	옷을 다린다.
달이다	약을 달인다.

다치다	부주의로 손을 다쳤다.
닫히다	문이 저절로 닫혔다.
닫치다	문을 힘껏 닫쳤다.
마치다	벌써 일을 마쳤다.
맞히다	여러 문제를 더 맞혔다.
목거리	목거리가 덧났다.
목걸이	금 목걸이, 은 목걸이.
바치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받치다	우산을 받치고 간다.
	책받침을 받친다.
받히다	쇠뿔에 받혔다.
밭치다	술을 체에 밭친다.
반드시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반듯이	고개를 반듯이 들어라.
부딪치다	차와 차가 마주 부딪쳤다.
부딪히다	마차가 화물차에 부딪혔다.
부치다	힘이 부치는 일이다.
	편지를 부친다.
	논밭을 부친다.
	빈대떡을 부친다.
	식목일에 부치는 글.
	회의에 부치는 안건.
	인쇄에 부치는 원고.
	삼촌 집에 숙식을 부친다.
붙이다	우표를 붙인다.
	책상을 벽에 붙였다.
	흥정을 붙인다.
	불을 붙인다.
	감시원을 붙인다.
	조건을 붙인다.

	취미를 붙인다.
	별명을 붙인다.
시키다	일을 시킨다.
식히다	끓인 물을 식힌다.
아름	세 아름 되는 둘레.
알음	전부터 알음이 있는 사이.
앎	앎이 힘이다.
안치다	밥을 안친다.
앉히다	윗자리에 앉힌다.
어름	두 물건의 어름에서 일어난 현상.
얼음	얼음이 얼었다.
이따가	이따가 오너라.
있다가	돈은 있다가도 없다.
저리다	다친 다리가 저린다.
절이다	김장 배추를 절인다.
조리다	생선을 조린다. 통조림, 병조림.
졸이다	마음을 졸인다.
주리다	여러 날을 주렸다.
줄이다	비용을 줄인다.
하노라고	하노라고 한 것이 이 모양이다.
하느라고	공부하느라고 밤을 새웠다.
-느니보다(어미)	나를 찾아오느니보다 집에 있거라.
-는 이보다(의존 명사)	오는 이가 가는 이보다 많다.
-(으)리만큼(어미)	나를 미워하리만큼 그에게 잘못한 일이 없다.
-(으)ㄹ 이만큼(의존 명사)	찬성할 이도 반대할 이만큼이나 많을 것이다.
-(으)러(목적)	공부하러 간다.

-(으)려(의도)	서울 가려 한다.
-(으)로서(자격)	사람으로서 그럴 수는 없다.
-(으)로써(수단)	닭으로써 꿩을 대신했다.
-(으)므로(어미)	그가 나를 믿으므로 나도 그를 믿는다.
(-ㅁ, -음)으로(써)(조사)	그는 믿음으로(써) 산 보람을 느꼈다.

제4장 한글 표준어 규정

제4장 한글 표준어 규정

제1항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외래어는 따로 사정한다.

제3항 다음 단어들은 거센소리를 가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끄나풀	끄나불	
나팔 – 꽃	나발 – 꽃	
녘	녁	동~, 들~, 새벽~, 동 틀 ~.
부엌	부억	
살 – 쾡이	삵 – 괭이	
칸	간	1. ~막이, 빈 ~, 방 한 ~. 2. ‘초가삼간, 윗간’ 의 경우에는 ‘간’ 임.
털어 – 먹다	떨어 – 먹다	재물을 다 없애다.

* 나팔(현대 금관 악기 중 하나)과 나발(옛 관악기 중 하나)은 각각 독립된 단어로 사용한다. 하지만 꽃을 나타낼 경우 ‘나팔꽃’만 표준어로 인정한다.

* ‘칸’은 공간의 구분이나 넓이를 나타내는 말이며 ‘간’은 ‘칸’의 잘못된 표기이다. 다만 ‘초가삼간’, ‘고깃간’, ‘고물간’, ‘마구간’과 같이 관습적으로 굳어진 표현의 경우에는 ‘간’을 사용한다.

* ‘털다’와 ‘떨다’는 둘 다 붙어 있는 것을 떼어낸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털다’는 흔들어서 떼어내는 경우, ‘떨다’는 손으로 툭툭 쳐서 떼어내는 경우에 쓰인다. 그리고 ‘털어먹다’에서 ‘털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없앤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제4항 다음 단어들은 거센소리로 나지 않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가을 – 갈이	가을 – 카리	
거시기	거시키	
분침	푼침	

제5항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로 굳어져서 널리 쓰이는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
(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강낭 – 콩	강남 – 콩	
고삿	고샅	겉~, 속~.
사글 – 세	삭월 – 세	'월세' 는 표준어임.
울력 – 성당	위력 – 성당	떼를 지어서 으르고 협박하는 일.

제5항의 단어들은 모두 ㄴ의 경우처럼 그 어원이 분명하다.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이 어원과 상관없이 발음되거나 사용되어 그 원형을 버리고 굳어진 형태의 ㄱ을 표준어로 삼는다.

* '고샅'은 이전까지는 지붕을 이을 때에 쓰는 새끼 또는 좁은 골목길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쓰였다. 하지만 현재에는 지붕을 이는 새끼의 의미일 때는 '고삿', 좁은 골목길의 의미일 때는 '고샅'을 사용한다.

제6항 다음 단어들은 의미를 구별함이 없이, 한 가지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돌	돐	생일, 주기.
둘 – 째	두 – 째	'제2, 두 개째' 의 뜻.
셋 – 째	세 – 째	'제3, 세 개째' 의 뜻.
넷 – 째	네 – 째	'제4, 네 개째' 의 뜻.
빌리다	빌다	1. 빌려 주다, 빌려 오다. 2. '용서를 빌다' 는 '빌다' 임.

제6항 다음 단어들은 의미를 구별함이 없이, 한 가지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다만, '둘째'는 십 단위 이상의 서수사에 쓰일 때에 '두째'로 한다.

ㄱ	ㄴ	비 고
열두 – 째 스물두 – 째		열두 개째의 뜻은 '열둘째'로. 스물두 개째의 뜻은 '스물둘째'로.

* 이전까지 생일을 의미할 때는 '돌', 주기를 의미할 때는 '돐'로 구분하였으나 현재는 그 둘을 구분하지 않고 '돌'로 사용한다.

* '둘째', '셋째', '넷째'는 양을 나타내는 양수사,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사 모두 동일하게 사용한다. 다만, '첫째, 둘째, 셋째 … 열째, 열한째, 열두째, 열셋째'처럼 서수사의 십 단위를 헤아리는 '열두째'에서는 'ㄹ'이 탈락한다. 그리고 '사과 열둘째를 먹었다'처럼 양수사의 십 단위 '열둘째'는 'ㄹ'을 그대로 붙여 사용한다.

제7항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수 – 꿩	수 – 퀑/숫 – 꿩	'장끼'도 표준어임.
수 – 나사	숫 – 나사	
수 – 놈	숫 – 놈	
수 – 사돈	숫 – 사돈	
수 – 소	숫 – 소	'황소'도 표준어임.
수 – 은행나무	숫 – 은행나무	

다만 1. 다음 단어에서는 접두사 다음에서 나는 거센소리를 인정한다. 접두사 '암-'이 결합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수 – 캉아지	숫 – 강아지	암 – 캉아지
수 – 캐	숫 – 개	암 – 캐
수 – 컷	숫 – 것	암 – 컷
수 – 키와	숫 – 기와	암 – 키와
수 – 탉	숫 – 닭	암 – 탉
수 – 탕나귀	숫 – 당나귀	암 – 탕나귀
수 – 톨쩌귀	숫 – 돌쩌귀	암 – 돌쩌귀
수 – 퇘지	숫 – 돼지	암 – 퇘지
수 – 평아리	숫 – 병아리	암 – 평아리

다만 2. 다음 단어의 접두사는 '숫-'으로 한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숫 – 양	수 – 양	
숫 – 염소	수 – 염소	
숫 – 쥐	수 – 쥐	

* 암/수를 구별하는 경우 명사 앞에 접두사 '수'를 붙이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다만1]처럼 접두사 '수'가 붙어 두의 명사가 거센소리가 날 경우 명사의 거센소리를 인정하여 붙인다. '수캉아지'는 '수'와 '강아지'가 결합하게 되면 발음이 [수캉아지]가 된다. 따라서 거센소리를 인정하여 표기 또한 '수캉아지'로 한다. 이 경우 비고처럼 '암캉아지'에도 그래도 적용된다.

하지만 '개미'와 '거미'의 경우 '수'가 붙으면 '수캐미', '수커미'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 적을 때는 '수개미', '수거미'로 적는다. 따라서 위의 각 조항을 바탕으로 원칙을 알되 예외 조항인 [다만1], [다만2]의 예시된 단어는 반복적으로 익혀 두어야 한다.

제8항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다음 단어는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깡충 – 깡충	깡총 – 깡총	큰말은 '껑충껑충' 임.
– 둥이	– 동이	← 童 – 이. 귀 –, 막 –, 선 –, 쌍 –, 검 –, 바람 –, 흰 –.
발가 – 숭이	발가 – 송이	센말은 '빨가숭이', 큰말은 '벌거숭이, 뻘거숭이' 임.
보퉁이	보통이	
봉죽	봉족	← 奉足. ~꾼, ~ 들다.
뻗정 – 다리	뻗장 – 다리	
아서, 아서라	앗아, 앗아라	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말.
오뚝 – 이	오똑 – 이	부사도 '오뚝 – 이' 임.

* 대부분 익숙한 대로 'ㄱ'을 사용하면 된다. 하지만 '깡총깡총'이 아닌 '깡충깡충'이 표준어인 점, 그리고 '오뚝이 솟은 코' 처럼 부사로 사용될 경우도 '오뚝이' 혹은 '오뚝'으로 표기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오똑'은 '오뚝'의 잘못된 표기임.)

제9항 'ㅣ' 역행 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만 다음 단어들은 그러한 동화가 적용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 내기	– 나기	서울 –, 시골 –, 신출 –, 풋 –.
냄비	남비	
동댕이 – 치다	동당이 – 치다	

[붙임 1] 다음 단어는 'ㅣ' 역행 동화가 일어나지 아니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아지랑이	아지랭이	

[붙임 2] 기술자에게는 '– 장이', 그 외에는 '– 쟁이'가 붙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미장이	미쟁이	
유기장이	유기쟁이	
멋쟁이	멋장이	
소금쟁이	소금장이	
담쟁이 – 덩굴	담장이 – 덩굴	
골목쟁이	골목장이	
발목쟁이	발목장이	

* [붙임1]은 원칙보다 '아지랑이'가 표준어임을 명심하면 된다.

* [붙임2]는 기술과 관련된 '장인(匠人)'의 의미일 때는 '장이'를, 그 외(사람을 낮추어 부르는 말, 사물의 이름, 별칭 등)에는 '쟁이'를 붙인다. 참고로 '점쟁이'이는 점치는 사람의 의미가 있으나 이를 기술로 보지 않아 '점장이'로 쓰지 않는다.

제10항 다음 단어는 모음이 단순화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괴팍 – 하다	괴퍅 – 하다/괴퐥 – 하다	
– 구먼	– 구면	
미루 – 나무	미류 – 나무	← 美柳 ~.
여느	여늬	
온 – 달	왼 – 달	만 한 달.
으레	으례	
허우대	허위대	
허우적 – 허우적	허위적 – 허위적	허우적 – 거리다.

제11항 다음 단어에서는 모음의 발음 변화를 인정하여, 발음이 바뀌어 굳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구려	-구료	
깍쟁이	깍정이	1. 서울 ~, 알~, 찰~ 2. 도토리, 상수리 등의 받침은 '깍정이' 임.
나무라다	나무래다	
미수	미시	미숫 - 가루.
바라다	바래다	'바램[所望]'은 비표준어임.
상추	상치	~쌈.
시러베 - 아들	실업의 - 아들	
주책	주착	← 主着. ~망나니, ~없다.
튀기	트기	혼혈아
허드레	허드래	허드렛 - 물. 허드렛 - 일.

제11항 다음 단어에서는 모음의 발음 변화를 인정하여, 발음이 바뀌어 굳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 '나무래다', '바래다'는 방언으로 취급, '나무라다'와 '바라다'가 표준어이다. 따라서 그 명사형은 '나무람', '바람'이 맞다.

* 시러베아들은 실없는 사람을 낮추어 부르는 말로 발음 그대로를 표준어로 삼는다.

제12항 '웃-' 및 '윗-'은 명사 '위'에 맞추어 '윗-'으로 통일한다.
(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위 – 짝	웃 – 짝	
위 – 쪽	웃 – 쪽	
위 – 채	웃 – 채	
위 – 층	웃 – 층	
위 – 치마	웃 – 치마	
위 – 턱	웃 – 턱	~ 구름[上層雲].
위 – 팔	웃 – 팔	

다만 1.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위 –'로 한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윗 – 넓이	웃 – 넓이	
윗 – 눈썹	웃 – 눈썹	
윗 – 니	웃 – 니	
윗 – 당줄	웃 – 당줄	
윗 – 덧줄	웃 – 덧줄	
윗 – 도리	웃 – 도리	
윗 – 동아리	웃 – 동아리	준말은 ‘윗동’임.
윗 – 막이	웃 – 막이	
윗 – 머리	웃 – 머리	
윗 – 목	웃 – 목	
윗 – 몸	웃 – 몸	
윗 – 바람	웃 – 바람	
윗 – 배	웃 – 배	
윗 – 벌	웃 – 벌	
윗 – 변	웃 – 변	
윗 – 사랑	웃 – 사랑	
윗 – 세장	웃 – 세장	
윗 – 수염	웃 – 수염	
윗 – 입술	웃 – 입술	
윗 – 잇몸	웃 – 잇몸	
윗 – 자리	웃 – 자리	
윗 – 중방	웃 – 중방	

다만 2. '아래, 위'의 대립이 없는 단어는 '웃-'으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웃 – 국	윗 – 국	
웃 – 기	윗 – 기	
웃 – 돈	윗 – 돈	
웃 – 비	윗 – 비	~ 걷다.
웃 – 어른	윗 – 어른	
웃 – 옷	윗 – 옷	

* 일상에서 '위'를 쓸 것인가 아니면 '웃', '윗'를 쓸 것인가 고민을 할 때가 있다. 이럴 경우 제12항에 규정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윗'으로 쓰면 된다. 하지만 [다만1]에서 '윗'이 된소리(-짝, -쪽)나 거센소리(-층, -턱) 앞에 붙을 경우 '위'를 사용한다.

*[다만2]의 경우 '위'와 대립하는 '아래'가 없는 경우에는 '웃'을 쓴다. '웃돈'은 '윗돈'에 대립하는 '아랫돈'이 없기 때문에 '웃돈'이 표준어가 된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웃옷'은 맨 겉에 입는 옷(잠바나 코트)을 의미하는 단어로, 만일 상의, 하의를 의미할 때는 '윗옷', '아래옷'을 쓴다.

제13항 한자 '구(句)'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는 '귀'로 읽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로 통일한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구법(句法)	귀법	
구절(句節)	귀절	
결구(結句)	결귀	
경구(警句)	경귀	
대구(對句)	대귀	~법(對句法).
문구(文句)	문귀	
성구(成句)	성귀	~어(成句語).
시구(詩句)	시귀	
어구(語句)	어귀	
인용구(引用句)	인용귀	
절구(絶句)	절귀	

다만, 다음 단어는 '귀'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귀 – 글 글 – 귀	구 – 글 글 – 구	한시 등에서 두 마디가 한 덩어리가 되도록 지은 글

* 한자어 '句'를 '구'와 '귀'로 달리 발음하던 것은 '구'로 통일하고 [다만]의 경우에만 '귀'를 씀

제14항 준말이 널리 쓰이고 본말이 잘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똬리	또아리	
무	무우	~강즙, ~말랭이, ~생채, 가랑~, 갓~, 왜~, 총각~.
미다	무이다	1. 털이 빠져 살이 드러나다. 2. 찢어지다.
뱀	배암	
빔	비음	설~, 생일~.
생 – 쥐	새앙 – 쥐	
솔개	소리개	
장사 – 치	장사 – 아치	

제15항 준말이 쓰이고 있더라도, 본말이 널리 쓰이고 있으면 본말을 표준어로 삼는다. (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경황 – 없다	경 – 없다	
궁상 – 떨다	궁 – 떨다	
귀이 – 개	귀 – 개	
내왕 – 꾼	냉 – 꾼	
돗 – 자리	돗	
뒤웅 – 박	뒝 – 박	
뒷물 – 대야	뒷 – 대야	
마구 – 잡이	막 – 잡이	
맵자 – 하다	맵자다	
부스럼	부럼	정월 보름에 쓰는 '부럼'은 표준어임.
살얼음 – 판	살 – 판	
수두룩 – 하다	수둑 – 하다	
암 – 죽	암	
일구다	일다	
죽 – 살이	죽 – 살	
퇴박 – 맞다	퇴 – 맞다	
한통 – 치다	통 – 치다	

* [제14항], [제15항]처럼 준말과 본말 중 어느 하나가 잘 쓰이지 않으면 잘 쓰이는 것을 표준어로 정한다.

제16항 준말과 본말이 다 같이 널리 쓰이면서 준말의 효용이 뚜렷이 인정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표준어로 삼는다.(ㄱ은 본말이며, ㄴ은 준말임.)

<table>
<tr><th>ㄱ</th><th>ㄴ</th><th>비 고</th></tr>
<tr><td>거짓 – 부리</td><td>거짓 – 불</td><td>작은말은 ‘가짓부리, 가짓불’ 임.</td></tr>
<tr><td>노을</td><td>놀</td><td>저녁~.</td></tr>
<tr><td>막대기</td><td>막대</td><td></td></tr>
<tr><td>망태기</td><td>망태</td><td></td></tr>
<tr><td>머무르다</td><td>머물다</td><td rowspan="3">ㄱ
|
ㄴ 모음 어미가 연결될 때에는 준말의 활용형을 인정하지 않음.</td></tr>
<tr><td>서두르다</td><td>서둘다</td></tr>
<tr><td>서투르다</td><td>서툴다</td></tr>
<tr><td>석새 – 삼베</td><td>석새 – 베</td><td rowspan="6">외우며, 외워 : 외며, 외어.

‘찌꺽지’ 는 비표준어임.</td></tr>
<tr><td>시 – 누이</td><td>시 – 뉘/시 – 누</td></tr>
<tr><td>오 – 누이</td><td>오 – 뉘/오 – 누</td></tr>
<tr><td>외우다</td><td>외다</td></tr>
<tr><td>이기죽 – 거리다</td><td>이죽 – 거리다</td></tr>
<tr><td>찌꺼기</td><td>찌끼</td></tr>
</table>

* [제16항]처럼 준말과 본말이 다 같이 널리 쓰이는 것은 두 가지를 다 표준어로 인정되므로 ‘ㄱ’과 ’ㄴ‘의 사례 모두 알아 두어야 한다. 다만 ‘머무르다’, ‘서두르다’, ‘서투르다’에 ‘어’와 같은 모음 어미가 연결될 때는 ‘머물어’, ‘서둘어’, ‘서툴어’가 아니라 ‘머물러’, ‘서둘러’, ‘서툴러’로 쓴다.

제17항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 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귀 – 띔	귀 – 틤	
귀 – 지	귀에 - 지	
꼭두 – 각시	꼭둑 – 각시	
냠냠 – 거리다	얌냠 – 거리다	
너[四]	네	~ 돈, ~ 말, ~ 발, ~ 푼.
넉[四]	너/네	~ 냥, ~ 되, ~ 섬, ~ 자.
더부룩 – 하다	더뿌룩 – 하다/듬뿌룩– 하다	
봉숭아	봉숭화	'봉선화' 도 표준어임.
빰 – 따귀	뺨 – 따귀/빰 – 따구니	'빰' 의 비속어임.
서[三]	세/석	~ 돈, ~ 말, ~ 발, ~ 푼.
석[三]	세	~ 냥, ~ 되, ~ 섬, ~ 자.
– 습니다	– 읍니다	먹습니다, 갔습니다, 없습니다, 있습니다, 좋습니다.
– 올시다	– 올습니다	
잠 – 투정	잠 – 투세/잠 – 주정	
짓 – 무르다	짓 – 물다	
짚 – 북데기	짚 – 북세기	'짚북더기' 도 비표준어임.
천장(天障)	천정	'천정부지(天井不知)' 는 '천정' 임.
흉 – 업다	흉 – 헙다	돼지 부르는 소리.

* [제17항]은 고유어, 고어, 한자어의 단수 표준어에 관한 규정으로 언어 사용의 혼란을 막기 위해 'ㄴ'을 버리고 'ㄱ'만 인정한다.

* '너[四]와 넉[四]', '서[三]와 석[三]'은 뒤에 오는 단위에 따라 표준어가 달라지므로 단위의 변화에 주의하여 익힌다.

* '복숭아'는 '봉선화'도 표준어로 인정하고, '천정'은 '천정부지' 외에는 '천장'으로 써야 한다.

제18항 다음 단어는 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도 허용한다.

ㄱ	ㄴ	비 고
네	예	
쇠 –	소 –	– 가죽, – 고기, – 기름, – 머리, – 뼈.
괴다	고이다	물이 ~, 밑을 ~.
꾀다	꼬이다	어린애를 ~, 벌레가 ~.
쐬다	쏘이다	바람을 ~.
죄다	조이다	나사를 ~.
쬐다	쪼이다	볕을 ~.

제19항 어감의 차이를 나타내는 단어 또는 발음이 비슷한 단어들이 다 같이 널리 쓰이는 경우에는,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ㄱ, ㄴ을 모두 표준어로 삼음.)

ㄱ	ㄴ	비 고
거슴츠레 – 하다	게슴츠레 – 하다	
고까	꼬까	~신, ~옷.
고린 – 내	코린 – 내	
교기(驕氣)	갸기	교만한 태도.
구린 – 내	쿠린 – 내	
꺼림 – 하다	께름 – 하다	
나부랭이	너부렁이	

* [제18항], [제19항]은 원칙적인 규칙이 있기보다 언어적 편리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지정한 복수표준어 또는 허용되는 말이다. ‘ㄱ’과 ’ㄴ’ 모두 인정되므로 눈여겨보아야 한다.

제20항 사어(死語)가 되어 쓰이지 않게 된 단어는 고어로 처리하고, 현재 널리 사용되는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난봉	봉	
낭떠러지	낭	
설거지 – 하다	설겆다	
애달프다	애닯다	
오동 – 나무	머귀 – 나무	
자두	오얏	

제21항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용도를 잃게 된 것은, 고유어 계열의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길품 – 삯	보행 – 삯	
까막 – 눈	맹 – 눈	
늙 – 다리	노닥다리	
마른 – 갈이	건 – 갈이	
마른 – 빨래	건 – 빨래	
박달 – 나무	배달 – 나무	
밥 – 소라	식 – 소라	
사래 – 논	사래 – 답	
사래 – 밭	사래 – 전	
성냥	화곽	
외 – 지다	벽 – 지다	
잎 – 담배	잎 – 초	
잔 – 돈	잔 – 전	
죽데기	피 – 죽	‘죽더기’도 비표준어임.
지겟 – 다리	목 – 발	
푼 – 돈	분 – 전/푼 – 전	

제22항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생명력을 잃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면, 한자어 계열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개다리 – 소반 겸 – 상 고봉 – 밥 단 – 벌 마방 – 집 민망 – 스럽다/면구 – 스럽다 산 – 누에 산 – 줄기 수 – 삼 어질 – 병 윤 – 달 장력 – 세다 총각 – 무	개다리 – 밥상 맞 – 상 높은 – 밥 홑 – 벌 마바리 – 집 민주 – 스럽다 멧 – 누에 멧 – 줄기/멧 – 발 무 – 삼 어질 – 머리 군 – 달 장성 – 세다 알 – 무/알타리 – 무	

* [제20항], [제21항], [제22항] 은 고유어, 고어, 한자어의 단수 표준어에 관한 규정으로 언어 사용의 혼란을 막기 위해 'ㄴ'을 버리고 'ㄱ'만 인정한다.

제23항 방언이던 단어가 표준어보다 더 널리 쓰이게 된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 이 경우, 원래의 표준어는 그대로 표준어로 남겨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도 표준어로 남겨 둠.)

ㄱ	ㄴ	비 고
멍게 물 – 방개 애 – 순	우렁쉥이 선두리 어린 – 순	

* 원칙적인 규칙이 있기보다 언어적 편리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지정한 복수표준어 또는 허용되는 말이다. 'ㄱ'과 'ㄴ' 모두 인정되므로 눈여겨보아야 한다.

제24항 방언이던 단어가 널리 쓰이게 됨에 따라 표준어이던 단어가 안 쓰이게 된 것은, 방언이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귀밑 – 머리	귓 – 머리	
까 – 뭉개다	까 – 무느다	
막상	마기	
빈대 – 떡	빈자 – 떡	
생인 – 손	생안 – 손	준말은 '생 – 손'임.
역 – 겹다	역 – 스럽다	
코 – 주부	코 – 보	

제25항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 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 게끔	– 게시리	
겸사 – 겸사	겸지 – 겸지/겸두 – 겸두	
고구마	참 – 감자	
고치다	낫우다	병을 ~.
골목 – 쟁이	골목 – 자기	
광주리	광우리	
괴통	호구	자루를 박는 부분.
국 – 물	멀 – 국/말 – 국	
군 – 표	군용 – 어음	
길 – 잡이	길 – 앞잡이	'길라잡이'도 표준어임.
까다롭다	까탈 – 스럽다/까탈 – 스럽다	
까치 – 발	까치 – 다리	선반 따위를 받치는 물건.
꼬창 – 모	말뚝 – 모	꼬창이로 구멍을 뚫으면서 심는 모.
나룻 – 배	나루	'나루[津]'는 표준어임.
납 – 도리	민 – 도리	
농 – 지거리	기롱 – 지거리	다른 의미의 '기롱지거리'는 표준어임.
다사 – 스럽다	다사 – 하다	간섭을 잘 하다.
다오	다구	이리 ~.
담배 – 꽁초	담배 – 꼬투리/담배 –	꽁치/담배 – 꽁추
담배 – 설대	대 – 설대	
대장 – 일	성냥 – 일	

뒤져 – 내다	뒤어 – 내다	
뒤통수 – 치다	뒤꼭지 – 치다	
등 – 나무	등 – 칡	‘등’의 낮은 말.
등 – 때기	등 – 떠리	
등잔 – 걸이	등경 – 걸이	
떡 – 보	떡 – 충이	
똑딱 – 단추	딸꼭 – 단추	
매 – 만지다	우미다	
먼 – 발치	먼 – 발치기	
며느리 – 발톱	뒷 – 발톱	
명주 – 붙이	주 – 사니	
목 – 메다	목 – 맺히다	
밀짚 – 모자	보릿짚 – 모자	
바가지	열 – 바가지/열 – 박	
바람 – 꼭지	바람 – 고다리	튜브의 바람을 넣는 구멍에 붙은, 쇠로 만든 꼭지.
반 – 나절	나절 – 가웃	
반두	독대	그물의 한 가지.
버젓 – 이	뉘연 – 히	
본 – 받다	법 – 받다	
부각	다시마 – 자반	
부끄러워 – 하다	부끄리다	
부스러기	부스럭지	
부지깽이	부지팽이	
부항 – 단지	부항 – 항아리	부스럼에서 피고름을 빨아 내기 위하여 부항을 붙이는 데 쓰는, 자그마한 단지.
붉으락 – 푸르락	푸르락 – 붉으락	
비켜 – 덩이	옆 – 사리미	김맬 때에 흙덩이를 옆으로 빼내는 일, 또는 그 흙덩이.
빙충 – 이	빙충 – 맞이	작은말은 ‘뱅충이’.
빠 – 뜨리다	빠 – 치다	‘빠트리다’도 표준어임.
뻣뻣 – 하다	왜긋다	
뽐 – 내다	느물다	
사로 – 잠그다	사로 – 채우다	자물쇠나 빗장 따위를 반 정도만 걸어 놓다.
살 – 풀이	살 – 막이	상투 튼 이를 놀리는 말.
상투 – 쟁이	상투 – 꼬부랑이	
새앙 – 손이	생강 – 손이	

샛 – 별	새벽 – 별	
선 – 머슴	풋 – 머슴	
섭섭 – 하다	애운 – 하다	
속 – 말	속 – 소리	국악 용어 ‘속소리’는 표준어임.
손목 – 시계	팔목 – 계/팔뚝 – 시계	
손 – 수레	손 – 구루마	‘구루마’는 일본어임.
쇠 – 고랑	고랑 – 쇠	
수도 – 꼭지	수도 – 고동	
숙성 – 하다	숙–지다	
순대	골집	
술 – 고래	술 – 꾸러기/술 – 부대/ 술 – 보/술 – 푸대	
식은 – 땀	찬 – 땀	
신기 – 롭다	신기 – 스럽다	‘신기하다’도 표준어임.
쌍동 – 밤	쪽 – 밤	
쏜살 – 같이	쏜살 – 로	
아주	영판	
안 – 걸이	안 – 낚시	씨름 용어.
안다미 – 씌우다	안다미 – 시키다	제가 담당할 책임을 남에게 넘기다.
안쓰럽다	안 – 슬프다	
안절부절 – 못하다	안절부절 – 하다	
앉은뱅이 – 저울	앉은 – 저울	
알 – 사탕	구슬 – 사탕	
암 – 내	곁땀 – 내	
앞 – 지르다	따라 – 먹다	
애 – 벌레	어린 – 벌레	
얕은 – 꾀	물탄 – 꾀	
언뜻	펀뜻	
언제나	노다지	
얼룩 – 말	워라 – 말	
– 에는	– 엘랑	
열심 – 히	열심 – 로	
입 – 담	말 – 담	
자배기	너벅지	
전봇 – 대	전선 – 대	
주책 – 없다	주책 – 이다	‘주착 → 주책’은 제11항 참조.
쥐락 – 펴락	펴락 – 쥐락	
– 지만	– 지만서도	← – 지마는.

짓고 – 땡	지어 – 땡/짓고 – 땡이	
짧은 – 작	짜른 – 작	
찹 – 쌀	이 – 찹쌀	

제26항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

복 수 표 준 어	비 고
가는 – 허리/잔 – 허리	
가락 – 엿/가래 – 엿	
가뭄/가물	
가엾다/가엽다	가엾어/가여워, 가엾은/가여운.
감감 – 무소식/감감 – 소식	
개수 – 통/설거지 – 통	‘설겆다’는 ‘설거지 - 하다’로.
개숫 – 물/설거지 – 물	
갱 – 엿/검은 – 엿	
– 거리다/ – 대다	가물 - , 출렁 - .
거위 – 배/횟 – 배	
것/해	내 ~, 네 ~, 뉘 ~.
게을러 – 빠지다/게을러 – 터지다	
고깃 – 간/푸줏 – 간	‘고깃 – 관, 푸줏 – 관, 다림 – 방’은 비표준어임.
곰곰/곰곰 – 이	
관계 – 없다/상관 – 없다	
교정 – 보다/준 – 보다	
구들 – 재/구재	
귀퉁 – 머리/귀퉁 – 배기	‘귀퉁이’의 비어임.
극성 – 떨다/극성 – 부리다	
기세 – 부리다/기세 – 피우다	
기승 – 떨다/기승 – 부리다	
깃 – 저고리/배내 – 옷/배냇 – 저고리	
꼬까/때때/고까	~신, ~옷.
꼬리 – 별/살 – 별	
꽃 – 도미/붉 – 돔	
나귀/당 – 나귀	
날 – 걸/세 – 뿔	윷판의 째밭 다음의 셋째 밭.
내리 – 글씨/세로 – 글씨	
넝쿨/덩굴	‘덩쿨’은 비표준어임.
녘/쪽	동~, 서~.

눈 – 대중/눈 – 어림/눈 – 짐작	
느리 – 광이/느림 – 보/늘 – 보	
늦 – 모/마냥 – 모	← 만이앙 – 모.
다기 – 지다/다기 – 차다	
다달 – 이/매 – 달	
– 다마다/ – 고말고	
다박 – 나룻/다박 – 수염	
닭의 – 장/닭 – 장	
댓 – 돌/툇 – 돌	
덧 – 창/겉 – 창	
독장 – 치다/독판 – 치다	
동자 – 기둥/쪼구미	
돼지 – 감자/뚱딴지	
되우/된통/되게	
두동 – 무니/두동 – 사니	윷놀이에서, 두 동이 한데 어울려 가는 말.
뒷 – 갈망/뒷 – 감당	
뒷 – 말/뒷 – 소리	
들락 – 거리다/들랑 – 거리다	
들락 – 날락/들랑 – 날랑	
딴 – 전/딴 – 청	
땅 – 콩/호 – 콩	
땔 – 감/땔 – 거리	
– 뜨리다/ – 트리다	깨 –, 떨어 –, 쏟 –.
뜬 – 것/뜬 – 귀신	
마룻 – 줄/용총 – 줄	돛대에 매어 놓은 줄. ‘이어줄’은 비표준어임.
마 – 파람/앞 – 바람	
만장 – 판/만장 – 중(滿場中)	
만큼/만치	
말 – 동무/말 – 벗	
매 – 갈이/매 – 조미	
매 – 통/목 – 매	
먹 – 새/먹음 – 새	‘먹음 – 먹이’는 비표준어임.
멀찌감치/멀찌가니/멀찍이	
멱통/산 – 멱/산 – 멱통	
면 – 치레/외면 – 치레	
모 – 내다/모 – 심다	모 – 내기, 모 – 심기.
모쪼록/아무쪼록	
목판 – 되/모 – 되	

목화 – 씨/면화 – 씨	
무심 – 결/무심 – 중	
물 – 봉숭아/물 – 봉선화	
물 – 부리/빨 – 부리	
물 – 심부름/물 – 시중	
물추리 – 나무/물추리 – 막대	
물 – 타작/진 – 타작	
민둥 – 산/벌거숭이 – 산	
밑 – 층/아래 – 층	
바깥 – 벽/밭 – 벽	
바른/오른[右]	~손, ~쪽, ~편.
발 – 모가지/발 – 목쟁이	‘발목’의 비속어임.
버들 – 강아지/버들 – 개지	‘벌거지, 벌러지’는 비표준어임.
벌레/버러지	
변덕 – 스럽다/변덕 – 맞다	
보 – 조개/볼 – 우물	
보통 – 내기/여간 – 내기/예사 – 내기	‘행 – 내기’는 비표준어임.
볼 – 따구니/볼 – 퉁이/볼 – 때기	‘볼’의 비속어임.
부침개 – 질/부침 – 질/지짐 – 질	‘부치개 – 질’은 비표준어임.
불똥 – 앉다/등화 – 지다/등화 – 앉다	
불 – 사르다/사르다	
비발/비용(費用)	
뾰두라지/뾰루지	
살 – 쾡이/삵	삵 – 피.
삽살 – 개/삽사리	
상두 – 꾼/상여 – 꾼	‘상도 – 꾼, 향도 – 꾼’은 비표준어임.
상 – 씨름/소 – 걸이	
생/새앙/생강	
생 – 뿔/새앙 – 뿔/생강 – 뿔	‘쇠뿔’의 형용.
생 – 철/양 – 철	1. ‘서양철’은 비표준어임. 2. ‘生鐵’은 ‘무쇠’임.
서럽다/섧다	‘설다’는 비표준어임.
서방 – 질/화냥 – 질	
성글다/성기다	
– (으)세요/ – (으)셔요	
송이/송이 – 버섯	
수수 – 깡/수숫 – 대	
술 – 안주/안주	

– 스레하다/ – 스름하다	거무 –, 발그 –.
시늉 – 말/흉내 – 말	
시새/세사(細沙)	
신/신발	
신주 – 보/독보(櫝褓)	
심술 – 꾸러기/심술 – 쟁이	
씁쓰레 – 하다/씁쓰름 – 하다	
아귀 – 세다/아귀 – 차다	
아래 – 위/위 – 아래	
아무튼/어떻든/어쨌든/하여튼/여하튼	
앉음 – 새/앉음 – 앉음	
알은 – 척/알은 – 체	
애 – 갈이/애벌 – 갈이	
애꾸눈 – 이/외눈 – 박이	‘외대 – 박이, 외눈 – 퉁이’는 비표준어임.
양념 – 감/양념 – 거리	
어금버금 – 하다/어금지금 – 하다	
어기여차/어여차	
어림 – 잡다/어림 – 치다	
어이 – 없다/어처구니 – 없다	
어저께/어제	
언덕 – 바지/언덕 – 배기	
얼렁 – 뚱땅/엄벙 – 뗑	
여왕 – 벌/장수 – 벌	
여쭈다/여쭙다	
여태/입때	‘여직’은 비표준어임.
여태 – 껏/이제 – 껏/입때 – 껏	‘여직 – 껏’은 비표준어임.
역성 – 들다/역성 – 하다	‘편역 – 들다’는 비표준어임.
연 – 달다/잇 – 달다	
엿 – 가락/엿 – 가래	
엿 – 기름/엿 – 길금	
엿 – 반대기/엿 – 자박	
오사리 – 잡놈/오색 – 잡놈	‘오합 – 잡놈’은 비표준어임.
옥수수/강냉이	~떡, ~묵, ~밥, ~튀김.
왕골 – 기직/왕골 – 자리	
외겹 – 실/외올 – 실/홑 – 실	‘홑겹 – 실, 올 – 실’은 비표준어임.
외손 – 잡이/한손 – 잡이	
욕심 – 꾸러기/욕심 – 쟁이	
우레/천둥	우렛 – 소리, 천둥 – 소리.

우지/울 – 보	
을러 – 대다/을러 – 메다	
의심 – 스럽다/의심 – 쩍다	
– 이에요/ – 이어요	
이틀 – 거리/당 – 고금	학질의 일종임.
일일 – 이/하나 – 하나	
일찌감치/일찌거니	
입찬 – 말/입찬 – 소리	
자리 – 옷/잠 – 옷	
자물 – 쇠/자물 – 통	
장가 – 가다/장가 – 들다	‘서방 – 가다’는 비표준어임.
재롱 – 떨다/재롱 – 부리다	
제 – 가끔/제 – 각기	
좀 – 처럼/좀 – 체	‘좀–체로, 좀–해선, 좀–해’는 비표준어임.
줄 – 꾼/줄 – 잡이	
중신/중매	
짚 – 단/짚 – 뭇	
쪽/편	오른~, 왼~.
차차/차츰	
책 – 씻이/책 – 거리	
척/체	모르는 ~, 잘난 ~.
천연덕 – 스럽다/천연 – 스럽다	
철 – 따구니/철 – 딱서니/철 – 딱지	‘철 – 때기’는 비표준어임.
추어 – 올리다/추어 – 주다	‘추켜 – 올리다’는 비표준어임.
축 – 가다/축 – 나다	
침 – 놓다/침 – 주다	
통 – 꼭지/통 – 젖	통에 붙은 손잡이.
파자 – 쟁이/해자 – 쟁이	점치는 이.
편지 – 투/편지 – 틀	
한턱 – 내다/한턱 – 하다	
해웃 – 값/해웃 – 돈	‘해우 – 차’는 비표준어임.
혼자 – 되다/홀로 – 되다	
흠 – 가다/흠 – 나다/흠 – 지다	

* 원칙적인 규칙이 있기보다 언어적 편리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지정한 복수표준어 또는 허용되는 말이다. ‘ㄱ′과 ’ㄴ′ 모두 인정되므로 눈여겨보아야 한다.

제5장 기출 문제 및 정답

제5장 기출 문제 및 정답

2007년 제11회 점역 교정사 국가공인 민간자격 3급 국어 점역 시험 문제

＊ 수험번호와 이름을 쓰시오.
＊ 다음 문장을 정확히 점역하시오(총점 40점).

현대인에게 있어 행복은 잃어버린 숙제장이다. 누구나 이제는 행복이란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기를 주저한다. 그것은 하나의 장식 문자가 되어 버렸다. 사기 그릇 뚜껑이나 아이들 복건이나 시골 아이들의 금박댕기, 그리고 돗자리와 베갯모와 주머니와 방석……. 그런 것들 위에 어쩌다가 수놓인 '복'자를 보면 이미 사자가 되어 버린 옛날 금석문을 대하는 느낌이다. 옥편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글자 같다.
실상 철이 든다는 말과 행복이란 말은 역비례한다. 행복을 장식품처럼 생각하며 세상을 살아 갈 수 있게 될 때 사람들은 비로소 어른이라고 불러 준다. 이웃집 개 이름만 하더라도 '해피'이다. 행복은 그렇게 전락하고 만 것 같다. 책상머리에 불이 켜지는 그런 시각에 나는 이따금, 이웃집에서 그 개를 부르는 소리를 듣는다. "해피~" 어둠의 조소가 잔잔하게 밀려오는 골목길을 향해서 기침을 하듯 혹은 각혈을 하듯 이웃집의 미망인은 개를 부른다. 여운도 없이 번져가는 목소리다. 나에게는 그것이 처량하면서도 모질게만 들린다.

약은 화학적 합성물이다. 약이면서 독이다.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다. 현명하게 먹지 않으면 건강을 지키려고 먹었던 약 때문에 생명을 잃는다. 제약사가 건네는 사용 설명서를 전부 살펴보는 의사는 전체의 1%에 불과하다. 실제로 약물 부작용이 미국인 사망 원인의 3위다.
약이 만들어지고 승인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식품의약국과의 검은 파트너십, 허술한 부작용 보고 과정, 의사와 약사가 약을 조제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오류를 폭로한다. 그렇다고 "약을 무조건 먹지 마라."는 말은 아니다. "약을 복용한 후에 전에 없던 증세가 나타나면 먼저 약부터 끊어라, 약 대신 허브나 음식·운동으로 건강을 지켜라."라고 충고한다.

신록이 짙어가는 6월. 서울시에서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독특하고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준비하여 시민고객들이 직접 참여하셔서 특별한 체험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남산골한옥마을, 운현궁, 서울

열린극장 등에서 마련하고 있는 문화 체험의 기회를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문화의 향기로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2007년 6월 1일(금)~6월 30일(토)
 나. 행사 시간: 평일(10:00~22:00)/토・일・공휴일(10:00~19:00)
 다. 문의 전화: (02) 433-15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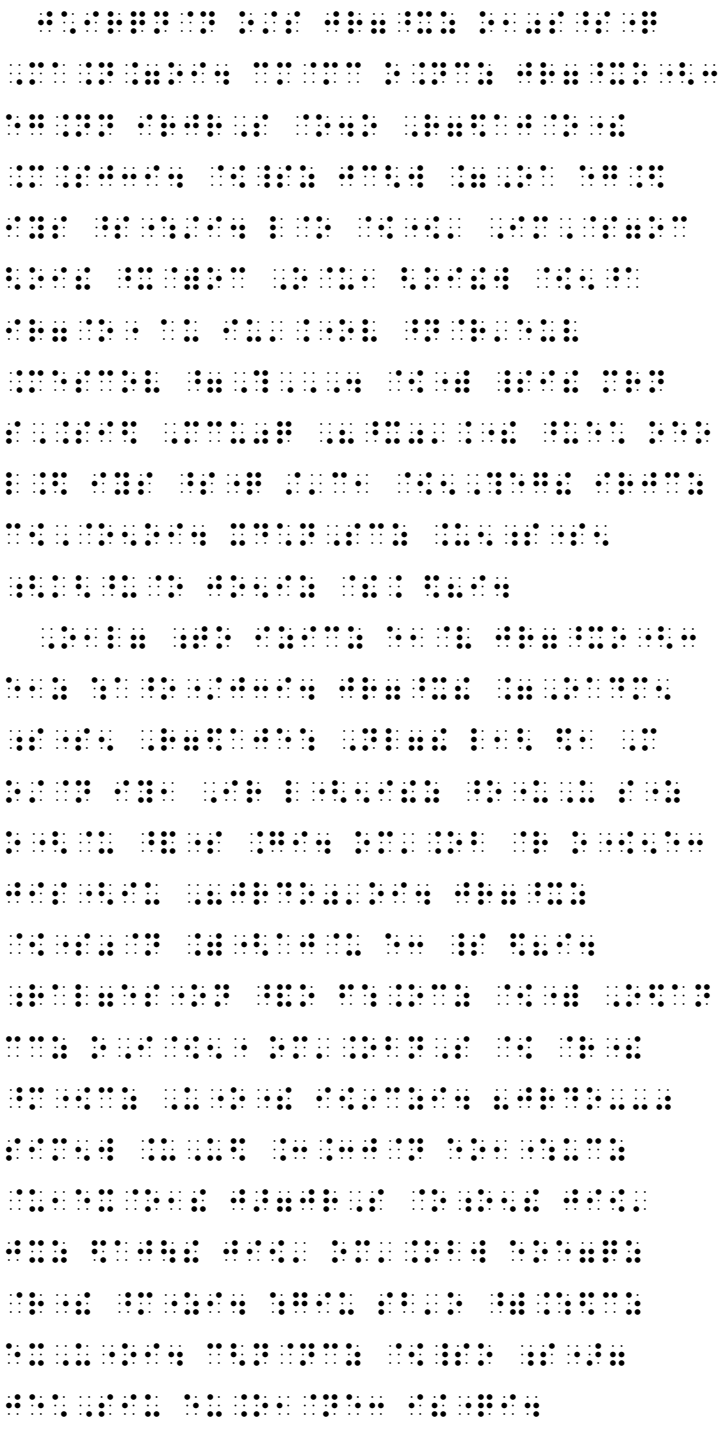
 기억하자 6・25. 잊지 말자 동족상쟁!

 땅을 깊이 팠더니 맑은 샘물이 콸콸 솟아났다.

 두 시간이 넘는 치열한 공방에도 불구하고 승부는 0:0 무승부로 끝이 났다.

 그는 바닥에 쭈그리고 앉았다. 그리고 멍한 얼굴로 먼 산을 바라보았다.

〈11회 기출문제 정답〉



⠠⠴⠉⠮⠀⠠⠴⠉⠮⠀⠠⠴⠉⠮⠀⠠⠴⠉⠮
⠠⠴⠉⠮⠀⠠⠴⠉⠮⠀⠠⠴⠉⠮

⠠⠴⠉⠮⠀⠠⠴⠉⠮⠀⠠⠴⠉⠮⠀⠠⠴⠉⠮⠀⠠⠴⠉⠮⠀⠠⠴⠉⠮
⠠⠴⠉⠮⠀⠠⠴⠉⠮⠀⠠⠴⠉⠮⠀⠠⠴⠉⠮

⠠⠴⠉⠮⠀⠠⠴⠉⠮⠀⠠⠴⠉⠮⠀⠠⠴⠉⠮⠀⠠⠴⠉⠮⠀⠠⠴⠉⠮
⠠⠴⠉⠮⠀⠠⠴⠉⠮⠀⠠⠴⠉⠮⠀⠠⠴⠉⠮⠀⠠⠴⠉⠮⠀⠠⠴⠉⠮
⠠⠴⠉⠮⠀⠠⠴⠉⠮

⠠⠴⠉⠮⠀⠠⠴⠉⠮⠀⠠⠴⠉⠮⠀⠠⠴⠉⠮⠀⠠⠴⠉⠮⠀⠠⠴⠉⠮
⠠⠴⠉⠮⠀⠠⠴⠉⠮⠀⠠⠴⠉⠮⠀⠠⠴⠉⠮⠀⠠⠴⠉⠮⠀⠠⠴⠉⠮
⠠⠴⠉⠮⠀⠠⠴⠉⠮⠀⠠⠴⠉⠮⠀⠠⠴⠉⠮⠀⠠⠴⠉⠮⠀⠠⠴⠉⠮

1. 다음 중 (1-2-3-4-5-6점)에 해당되는 부호는?
(정답) ①
(해설) 1-2-3-4-5-6점의 명칭은 온표이다. 말소표는 사용하지 않는 명칭이다.
2. 다음 중 '애'가 이어 나올 때 그 사이에 붙임표를 적어 나타내야 하는 모음이 아닌 것은?
(정답) ①
(해설) '와' 뒤에 붙임표(-)가 없이 바로 '애'가 나오면 '왜'로, 우 뒤에 붙임표 없이 '애'가 나오면 '위'로, '워' 다음에 '애'가 붙임표 없이 나오면 '웨'로 잘못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예' 다음에 '애'가 붙어 나오더라도 같은 형태의 점형의 글자가 없으므로 '예'와 '애' 사이에 붙임표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
3. 다음 중 옛글자의 이름이 잘못된 것은?
(정답) ④
(해설) 여린 히읗(ㆆ)의 점형은 (5, 2-4-5점)이다.
4. (정답) ④ 'ㅋ'은 '키읔'으로 발음한다.
5. (정답) ② 사전을 찾는 순서는 자음의 경우 'ㄱ ㄲ ㄴ ㄷ ㄸ ㄹ ㅁ ㅂ ㅃ ㅅ ㅆ ㅇ ㅈ ㅉ ㅊ ㅋ ㅌ ㅍ ㅎ' 순서를 따르고, 모음은 'ㅏ ㅐ ㅑ ㅒ ㅓ ㅔ ㅕ ㅖ ㅗ ㅘ ㅙ ㅚ ㅛ ㅜ ㅝ ㅞ ㅟ ㅠ ㅡ ㅢ ㅣ'의 순서를 따른다, 단, 자음과 모음의 조합 시 자음을 우선으로 하고 같은 자음에서는 모음의 순서를 고려한다.

순번	오자	수정	풀 이
1	거치지	걷히지	걷히다: ‘거두다’의 피동 거치다: 오거나 가는 길에 어디를 지나거나 들르다
2	얼룩이	얼루기	[맞춤법 23항] ‘얼룩'에 조사가 붙은 형태면 바르지만, '얼룩얼룩한 점이나 무늬' 또는 '그런 점이나 무늬가 있는 짐승이나 물건'을 뜻하면 '얼루기'로 씀.
3	세방	셋방	[맞춤법 30항]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찻간(車間) 툇간(退間) 횟수(回數)는 예외적으로 사이시옷을 첨가함.
4	굴찍하고	굵직하고	'꽤 굵다'를 의미하는 '굵직하다'는 된소리로 표기하지 않으며 겹받침 'ㄺ'의 철자 표기에 주의
5	송글송글	송골송골	송골송골하다
6	꼼꼼이	꼼꼼히	[맞춤법 51항] ‘이’,‘히’로 소리나는 경우 ‘히’로 적음.
7	쌍동이	쌍둥이	[표준어 8항] 접미사 '-둥이'는 일부 명사나 어근에 붙어 '그러한 특징을 가진 어린아이' 또는 '그러한 성질을 지닌 사람이나 동물'의 뜻을 나타냄. 예) 귀염둥이, 업둥이, 흰둥이, 순둥이 등
8	시이 적절한	시의적절한	‘그 당시의 사정이나 요구에 아주 알맞다’의 형용사로, 한 단어로 취급함.
9	수째	숫제	부사로서 '무엇을 하기 전에 차라리', '있는 대로 모두', '오로지 또는 전혀' 따위를 의미
10	옛스러운	예스러운	'옛'은 '지나간 때의' 뜻을 나타내는 관형사. ‘예부터’의 '아주 먼 과거'의 뜻을 나타내는 명사이므로 '예부터' 또는 '예스러운'으로 씀.
11	낭떨어지	낭떠러지	[표준어 20항] '절벽'을 뜻하는 말은 소리나는 대로 표기한 '낭떠러지'를 표준어로 인정함.
12	초가 삼칸	초가삼간	[표준어 3항] ‘칸’이 표준어이지만 ‘초간삼간’, ‘윗간’의 경우는 ‘간’을 씀.
13	쪼리랴	졸이랴	조리다: 양념의 맛이 재료에 푹 스며들도록 국물이 거의 없을 정도로 바짝 끓여내는 것을 이름 졸이다: 찌개나 국의 국물을 줄게 하는 것을 이름 따라서 '생선을 ~'의 경우는 '조리다'와 어울려 쓰이는 것이 적합하며, '국물을 ~'의 경우는 '졸이다'와 어울려 쓰이는 것이 적합함.
14	밀어부쳐라	밀어붙여라	밀어붙이다
15	변화물상	변화무상	變化無常: 변화가 심하여 종잡을 수 없음.
16	뜽금 없는	뜬금없는	뜬금없다
17	맹숭맹숭	맨송맨송 맹숭맹숭	**국립국어원의 표준어 규정에 따라 2011년 9월부터 ‘맹숭맹숭’, ‘맨숭맨숭’, ‘맨송맨송’도 표준어로 인정함.**
18	무지목메	무지몽매	無知蒙昧: 아는 것이 없고 사리에 어두움.
19	오지라비	오지랖이	오지랖
20	텔레비젼	텔레비전	[외래어] 'ㅈ, ㅊ' 뒤에서는 '쟈, 져, 죠, 쥬, 챠, 쳐, 쵸, 츄'가 아닌, '자, 저, 조, 주, 차, 처, 초, 추'로 적음.

2007년 제12회 점역 교정사 국가공인 민간자격 3급 국어 점역 시험 문제

＊ 수험번호와 이름을 쓰시오.
＊ 다음 문장을 정확히 점역하시오(총점 40점).

옛 공동체 문화 ‘울력’은 살아 있다

마을 사람들이 보수나 노동의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도와주는 봉사적 노동을 우리는 ‘울력’이라 한다. 이 울력은 품앗이, 두레 등과 함께 옛날 우리네 공동체 의식의 상징이기도 했다. 이러한 울력을 통해 아름다운 마을을 가꿔 가는 곳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만수 1구(대곡마을) 사람들이 그 주인공들이다.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꽃과 나무를 심고 돌탑을 쌓아 마을의 휴식 공간을 만들면서 주민 공동체 의식을 복원하고 옛 농촌의 정서까지 되살리고 있는 것. 동악산을 배경으로, 달과 별을 조명 삼아 자리하고 있는 대곡마을은 옛 농촌과 산촌의 정서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돌담들. 따스한 가을 햇볕이 비추는 돌담 위로 빨갛게 익은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담장 위에 늘어진 호박 덩굴도 정겹다. 돌담으로 이어진 마을이 참 푸근한 느낌을 준다. 돌담 아래로 콩과 깨, 고추, 곶감, 고운대 등을 말려 놓은 모습에서도 전형적인 옛날 시골 마을의 향수가 느껴진다. 다듬이질과 장작 패기에 시간 가는 줄 몰랐던 우리네 부모님들의 삶이 보이는 듯하다.

주민들의 울력은 쉼터를 만든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 마을 진입로의 꽃길을 가꾸는 것은 노인회에서 책임지기로 했다. 쉼터와 정자 주변 관리는 청년회가, 제초와 주변 환경 정화 활동은 부녀회에서 맡기로 역할 분담을 했다. 모두가 울력의 힘이다.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7대 대통령 선거

1. 선거일: 2007. 12. 19. (수)
2. 선거 기간: 2007. 11. 27.~2007. 12. 19. 23일간
3. 선거권: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의 국민
4. 투표 시간: 오전 6시~오후 6시
5. 투표 개시: 투표 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기표소 등 이상 유무 검사 후 투

표를 개시함

6. 투표 절차: 투표소 입소→선거인명부에 의한 본인 여부 확인→투표 용지 수령→기표소에서 기표→투표함 투입→퇴소

* 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선거과 (02) 503-2093~4

〈12회 기출문제 정답〉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다음 화폐 기호 중 틀린 것은?

(정답) ③

(해설) 엔화(¥)의 점형은 (4, 1-3-4-5-6점)이다.

2. 다음 표시 문자 중 잘못 표기된 것은?

(정답) ②

(해설) '가~하' 중 '나, 다, 마, 바, 자, 카, 타, 파, 하'를 표시문자로 사용할 경우 일반적인 한글점자규정의 예에 따라 '아'를 생략하여 적는다. 따라서 ②번의 예를 바르게 표시하기 위해서는 아(1-2-6점)을 삭제하여야 한다.

3. 다음 표기 중 올바른 것은?

(정답) ①

(해설) 특별한 날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가운뎃점(·)이 숫자와 숫자 사이에 있을 경우 가운뎃점 뒤의 숫자에는 수표(3-4-5-6점)을 붙이지 않으므로 ①번이 정답이다.

② 숫자와 숫자 사이에 사용하는 쌍반점(:)의 뒤에 나오는 숫자에는 수표를 붙이지 않는다.

③에 나온 표기법은 이전 한국점자규칙에서 사용되던 규칙이다.

④ 영어 알파벳 다음 숫자가 나오고 그 뒤에 한글이 있을 때 숫자 앞에서 로마자 닺는기호(2-5-6점)은 적지 않아도 된다.

4. 다음 중 문장부호의 이름과 표기가 틀리게 짝지어진 것은?

(정답) ④

(해설) 가위표 모양의 숨김표의 점형은 (4-5-6, 1-3-4-6, 1-2-3점)이다.

5. (정답) ① [외래어 표기법]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

ㄱ(기역) ㄴ(니은) ㄷ(디귿) ㄹ(리을) ㅁ(미음)

ㅂ(비읍) ㅅ(시옷) ㅇ(이응) ㅈ(지읒) ㅊ(치읓)

ㅋ(키읔) ㅌ(티읕) ㅍ(피읖) ㅎ(히읗)

ㅏ(아) ㅑ(야) ㅓ(어) ㅕ(여) ㅗ(오)

ㅛ(요) ㅜ(우) ㅠ(유) ㅡ(으) ㅣ(이)

순번	오자	수정	풀 이
1	물신	물씬	[맞춤법 5항] ‘ㄹ' 받침 뒤에 오는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므로 ’물씬‘으로 적음.
2	은익	은닉	[맞춤법 10항] 단어의 첫머리가 아닌 경우 두음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음.
3	냉냉한	냉랭한	[맞춤법 11항] 첫 음절에 위치하지 않은 한자음은 원래 음가대로 표기함.
4	누누히	누누이	[맞춤법 51항] ‘이’로만 발음되는 경우 ‘이’로 적음.
5	늙수구레한	늙수그레한	늙수그레하다: '보기에 꽤 늙다'의 의미를 지닌 형용사
6	딱다구리	딱따구리	[맞춤법 23항]‘-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이’나 또는 다른 모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음.
7	불이나케	부리나케	[맞춤법 27항]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함.
8	자질그레한	자질구레한	기본형: 자질구레하다
9	댓가	대가	[맞춤법 30항] ‘代價’는 한자어와 한자어의 결합이므로 사이시옷을 적지 않음.
10	해꼬지	해코지	남을 해치고자 하는 짓
11	나지막히	나지막이	'나즈막하다'는 '나지막하다'가 그 표준어이며, 부사화 접미사'-이'가 붙음.
12	춥든지	춥던지	[맞춤법 56항] 과거 있었던 일에는 ‘던지’를 씀.
13	고르덴	코르덴	[외래어] ‘코르덴’, ‘코듀로이’: 누빈 것처럼 골이 지게 짠, 우단과 비슷한 옷감
14	낭떨어지	낭떠러지	[표준어 20항] '절벽'을 뜻하는 말은 소리나는 대로 표기한 '낭떠러지'를 표준어로 인정함.
15	자선남비	자선냄비	[표준어 9항] l 역행동화의 영향을 인정하여 ‘냄비’를 표준어로 삼음.
16	아둥바둥	아등바등	무엇을 이루려고 애를 쓰거나 우겨대는 모양
17	개기는	개개는	‘개기다’는 '개개다'의 사투리
18	갸날픈	가냘픈	기본형: 가냘프다
19	덤테기	덤터기	억울한 누명이나 오명
20	주구장창	주야장천	晝夜長川: 밤낮으로 쉬지 아니하고 연달아

2008년 제13회 점역·교정사 국가공인 민간자격 3급 국어 점역시험 문제

＊ 수험번호와 이름을 쓰시오.
＊ 다음 문장을 정확히 점역하시오(총점 40점).

저소득층·영세 자영업자에 유류세 지원
치솟는 유가 리터당 2천 원 돌파

국제 석유시장의 척도인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가격이 배럴당 133달러까지 치솟으며 '3차 오일쇼크'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22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가격판에 리터당 2천 원을 넘긴 가격이 적혀 있다.

날로 치솟는 유가에 정부가 서민들에게 '유가환급금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 근로소득자와 영세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1년간 총급여 3,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는 연 24만 원을 소득세 환급으로 돌려받는다. 유가 상승으로 높아진 유류비 부담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성격이다.

정부가 이 같은 조세환급제도를 실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근로소득자·자영업자에 유류세 부담 지원"

한승수 국무총리는 8일 오전 고위당정회의를 마친 뒤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근로자·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주요한 뼈대는 유가환급금 제도다. 한 총리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담 증가분의 일부를 소득세 환급을 통해 보전하겠다"며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총급여가 3,000만 원 이하(전체 근로자의 72%·900만 명)인 근로자는 월 2만 원씩 1년간 24만 원을, 총급여가 3,000만~3,600만 원 이하(80만 명)인 근로자는 3개 구간으로 나뉘어 1년간 각각 18만·12만·6만 원씩 지원 받는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전체 자영업자의 85%·390만 명)인 자영업자는 1년간 24만 원을,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2,000~2,400만 원 이하(10만 명)인 자영업자는 각각 18만·12만·6만 원씩 지원 받는다.

환급 대상자는 6개월 단위로 국세청에 신청해 지급 받으면 된다.

또한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유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의 안방 유류세도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버스와 화물차, 연안화물선 등 대중교통과 물류 운송 수단에도 유가 상승분의 50%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 같은 대책 실시에 필요한 재원을 약 10조 5,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한 총리는 "재정지출은 3조 4,000억 원, 유가환급금 등 감세를 통한 지원은 7조 1,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당장 금년에 필요한 6조 2,000억 원은 작년도 세계잉여금과 유가상승에 따른 세수증가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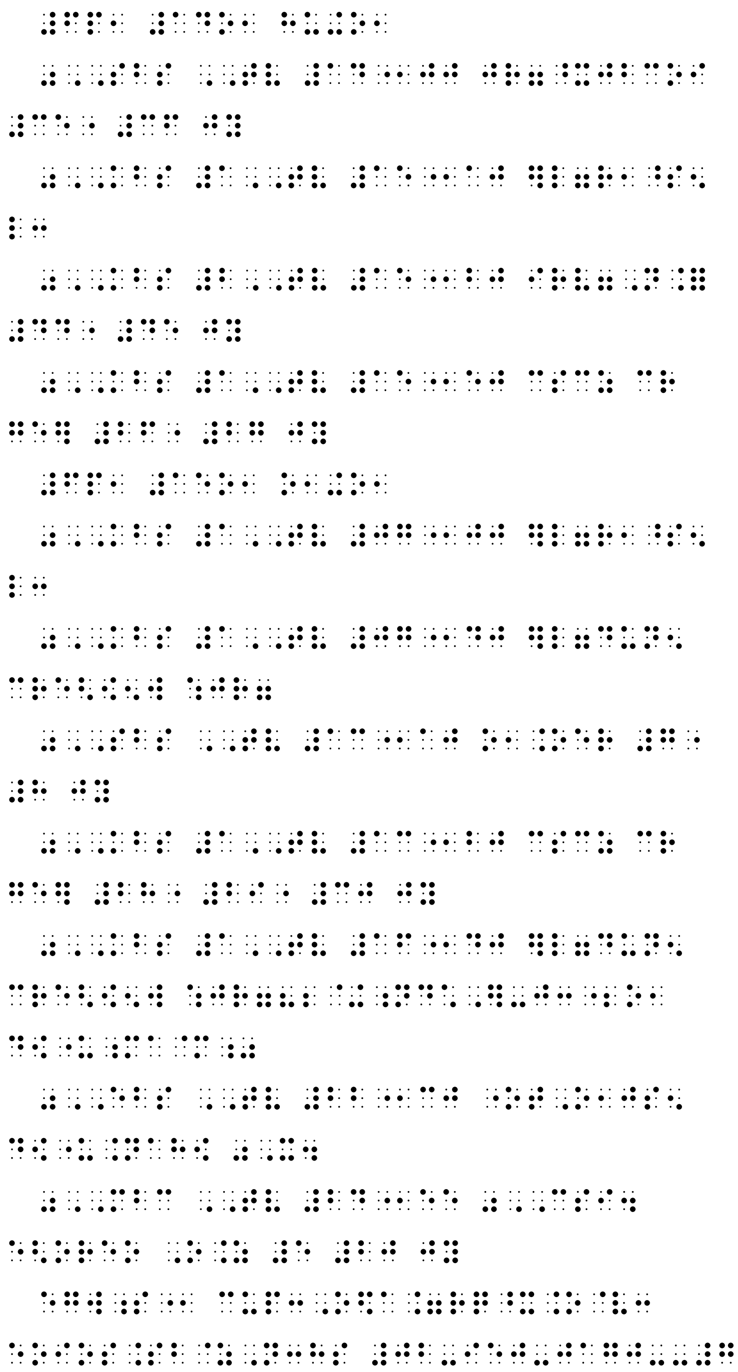
중·장기대책도 내놨다. 화물차와 어선의 구조조정 지원, 석유제품시장의 경쟁 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 서울-수도권 간 광역버스에 대한 통합환승할인운임제 시행 등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제고,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원 확대, 국내외 유망 광구 개발을 위한 융자지원 확대,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재원확보 강화 등이 그것이다.

여당 "유류세 인하로는 서민 피부에 와닿지 않아"

정부와 한나라당이 유류세 일괄 인하가 아닌 유류세 지원 쪽으로 방향을 튼 이유는 적더라도 일단 서민의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기 위해서다. '쇠고기 정국'으로 험악해진 민심을 다스리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중파 시각장애인 화면해설방송 안내
6월 14일 토요일
SBS TV 14:00 행복합니다 35, 36회
KBS 1TV 15:10 영상앨범 산
KBS 2TV 15:20 대왕세종 44, 45회
KBS 1TV 15:50 너는 내 운명 26, 27회
6월 15일 일요일
KBS 1TV 07:00 영상앨범 산
KBS 1TV 07:40 영상포엠 내마음의 여행
SBS TV 13:10 일지매 7, 8회
KBS 1TV 13:20 너는 내 운명 28, 29, 30회
KBS 1TV 16:40 영상포엠 내마음의 여행(교체편성-한·일 프로축구)
EBS TV 22:30 리얼실험프로젝트 X
MBC TV 24:55 CSI 마이애미 시즌 5 20회
문의처 :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미디어접근센터 02-950-0170~7

〈13회 기출문제 정답〉



1. (정답) ① 미쟁이→미장이, 세째→셋째, 윗층→위층

2. 다음 중 옛 글자의 이름과 표기가 틀리게 짝지어진 것은?

(정답) ④

(해설) 모음자 'ㅠ'의 점형은 (1-4-6, 4-5-6, 1-3-5점)이다.

3. (정답) ③ [맞춤법] 제31항 두 말이 어울릴 적에 'ㅂ' 소리나 'ㅎ' 소리가 덧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4. (정답) ④ [외래어 표기법] 제3항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7개)만을

쓴다.

5. 다음 중 점역 및 점자 인쇄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정답) ②

(해설) 보기 ②번의 '아이즈2000'은 화면읽기 프로그램이다.

순번	오자	수정	풀 이
1	등안시하는	등한시하는	등한시하다 : 소홀하게 보아 넘기다
2	다구치셨다	다그치셨다	‘다구치다’는 사투리로 표준어는 ‘다그치다’임.
3	야멸차게	야멸치게	야멸치다 : 자기만 생각하고 남의 사정을 돌볼 마음이 없다.
4	길다랗게	기다랗게	'매우 길거나 생각보다 길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표준어는 '기다랗다'이며 이를 형용사형으로 활용한 것도 ‘길다란’이 아니라 ‘기다란’임.
5	대면대면	데면데면	‘데면데면’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친밀감이 없음을 나타내는 ‘데면스럽다’의 부사형임.
6	볼성사나운	볼썽사나운	볼썽사납다 : 사람이나 사물의 모습이 보기에 역겹다.
7	괘심하지만	괘씸하지만	‘괴심(‘掛心)’은 걱정스러운 마음을 뜻하는 한자어이고 ’괘씸하다‘는 ’분하고 밉살스럽다‘는 의미이므로 이 경우 ’괘씸하다‘가 맞음
8	째째하게	쩨쩨하게	사람이 잘고 인색하다.'의 뜻을 나타내는 표준어는 '쩨쩨하다’임.
9	꾀제제한	꾀죄죄한	옷차림이나 모양새가 매우 지저분하고 궁상스럽다는 ‘꾀죄죄하다’이며 ‘괴죄죄하다’의 큰말임.
10	웅큼씩	움큼씩	'물건을 한 손으로 움켜쥔 분량'의 뜻으로 '움큼'이 올바른 표기임.
11	볼맨소리를	볼멘소리를	모음 /ㅔ/와 /ㅐ/는 발음이 유사하여 철자상의 오류를 범하기 쉬움.
12	굼뱅이	굼벵이	모음 /ㅔ/와 /ㅐ/는 발음이 유사하여 철자상의 오류를 범하기 쉬움.
13	몽리	몽니	‘몽리’는 ‘이익을 얻다’, ‘몽니’는 ‘심술을 을 부리는 성질’을 뜻하므로 이 경우 ‘몽니’가 맞음.
14	맨얼굴	민얼굴	'민얼굴/본얼굴'이 사전에 나오지만 '맨얼굴'은 현재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음.
15	조무라기	조무래기	자질구레한 물건, 아이를 얕잡아 부르는 말은 ‘조무래기’임.
16	산수갑산	삼수갑산	三水甲山 : 우리나라에서 가장 험한 산골이었던 ‘삼수’와 ‘갑산’에서 유래.
17	자초지경	자초지종	自初至終 :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
18	무소불이	무소불위	無所不爲 : 하지 못하는 일이 없음.
19	침소공대	침소봉대	針小棒大 : 작은 일을 크게 불리어 떠벌림.
20	젭싸게	잽싸게	기본형 : 잽싸다

2008년 제14회 점역·교정사 국가공인 민간자격 3급 국어 시험 점역 문제

＊ 수험번호와 이름을 쓰시오.
＊ 다음 문장을 정확히 점역하시오.(총점 40점)

옛날에 줄무늬를 한 애벌레 한 마리가 오랫동안 자신의 보금자리였던 알을 깨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세상아, 안녕!" 하고 애벌레는 말했습니다.
"햇빛이 비치는 이 세상은 참 찬란도 하구나. 그동안 배가 많이 고팠어."
애벌레는 곧바로 나뭇잎을 갉아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잎을 먹어 치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잎을…… 또 다른 잎을……

불행한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에 비해 30%가량 더 많은 시간 TV를 시청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라이브사이언스'가 15일(현지 시간) 전했다. 국립여론조사기관인 '일반사회여론조사'가 1975~2006년 미국 성인 30,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 행복한 사람들은 1주일에 평균 19시간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불행한 사람은 1주일에 평균 25시간 시청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교육정도·소득수준·나이·혼인여부 등을 고려한 뒤에도 바뀌지 않았다.

사냥과 공해, 기후 변화 등으로 전 세계의 동식물 869종이 멸종됐고 그 밖에 1만 7천여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한 가운데 절대 지구에서 사라져서는 안 될 동식물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주장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넷 판은 이 분야의 전문가 5명이 모여 '대체 불가능한—세계에서 가장 귀한 종'이라는 토론회를 벌일 예정이며 영장류와 박쥐, 벌, 균류, 플랑크톤이 후보군에 올랐다고 15일 보도했다.

2008 거창겨울연극제(어린이·청소년 연극제) 참가 신청 안내
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는 학교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연극 교육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공연 제작 활동과 무대예술 현장 체험을 지원합니다. 이번 거창겨울연극제는 문화예술 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높여주며, 유쾌한 감동과 사랑을 선사할 것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따뜻한 이야기와 특별한 만남이 있는 곳. 거창겨울연극제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가. 신청 기간: 2008년 10월 27일(월)~11월 07일(금)
나. 문의: 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팀(055-943-4152~3)
다. 장소: 거창연극학교 장미극장

Ⅲ. 민족 독립 운동의 전개
02.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1) 3·1운동
① 역사적 배경

〈14회 기출문제 정답〉

⠥⠼⠁⠥ ⠼⠉⠑⠊⠁ ⠛⠊⠿
⠼⠊ ⠡⠁⠇⠨⠹ ⠘⠗⠈⠻

1. 파일을 사용하여 점자의 입·출력이 가능하고, 점자의 부피 문제를 해결한 점자 기기는?
(정답) ③
(해설) 시각장애인이 점역, 텍스트 파일을 이용하여 도서의 형태로 출력하지 않고도 직접 점자를 볼 수 있는 주변기기는 점자정보단말기이다.
2. 과거는 물론 현재에도 일반 텍스트와 컴퓨터 점자 등에서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점자 방식은?
(정답: ④
(해설) 4점식 점자는 '뉴욕점자'로 사용되었고, 6점식 점자는 '브라유식 점자'로 현재 대부분의 점자가 이 체계를 따르고 있다. 8점식 점자는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문자를 표기할 때 사용된다. 하지만, 10점식 점자는 아직 사용된 적이 없다.
3. 한글 점자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④
(해설) 한국 점자 표기방식은 풀어쓰기 방식으로 적으며, 모음자와 '예' 사이에서 점자의 줄이 바뀔 때에는 붙임표(-)를 적지 않는다. 또한 옛이응(ㆁ)의 점형은 (5, 1-4-5점)이다.
4. (정답) ② [표준발음법] 제17항 받침 'ㄷ, ㅌ(ㄾ)'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무릎에 [무르베], 꽃을 [꼬츨]은 홑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이므로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흙으로 [흘그로]와 같이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에 있는 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5. (정답) ③ [맞춤법]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순번	오자	수정	풀 이
1	차돌배기	차돌박이	접미사 '-박이'는 '무엇이 박혀 있는 것'을 나타내며 접미사 '-배기'는 '특정한 곳이나 물건, 사람'을 나타내는 데 쓰임. 예) 점박이, 차돌박이, 알짜배기, 진짜배기
2	마추려고	맞추려고	기본형: 맞추다
3	햇쌀	햅쌀	[맞춤법 31항]두 말이 어울릴 적에 'ㅂ' 소리나 'ㅎ' 소리가 덧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음.
4	승락	승낙	[맞춤법 52항] 한자어 '승낙'은 본음으로 소리나는 경우임.
5	출산률	출산율	[맞춤법 11항]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률'은 '열, 율'로 적음.
6	녹슬은	녹슨	'녹슬다'가 기본형 이고, 'ㄹ' 탈락 규칙이 적용됨
7	괴로왔다	괴로웠다	[맞춤법 18항] 'ㅂ'이 '우'로 바뀜.
8	잠궈라	잠가라	기본형이 '잠그다'로 '아'가 붙어 '잠가'가 됨.
9	설겆이	설거지	[표준어 20항] 고어 '설겆다'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사어로 '설거지하다'가 기본형임.
10	치루나요	치르나요	기본형: 치르다
11	전셋방	전세방	[맞춤법 30항] '傳貰+房' 한자어와 한자어의 결합으로 사이시옷을 쓰지 않음. 단, 전셋집의 경우 한자어와 순우리말의 결합이므로 사이시옷을 첨가함.
12	돼어	되어	'되다'가 기본형으로 '되어'는 활용형, '돼'는 '되어'의 준말임.
13	도와줄께	도와줄게	[맞춤법 53항] 'ㄹ게' 'ㄹ걸' 등 의문형을 제외하고는 모두 예사소리로 씀.
14	쥬스	주스	[외래어] 'ㅈ, ㅊ' 뒤에서는 'ㅑ, ㅕ, ㅛ, ㅠ, ㅒ, ㅖ, ㅊ, ㅊ, ㅊ'가 아닌, 'ㅏ, ㅓ, ㅗ, ㅜ, ㅏ, ㅓ, ㅗ, ㅜ'로 적음.
15	붙였다	부쳤다	'부치다'는 '힘이 모자라다', '편지나 물건을 보내다', '논밭을 다루어서 농사짓다', '어떤 문제를 의논 대상으로 내놓다', '원고를 인쇄에 넘기다'의 뜻이 있음.
16	먹을려고	먹으려고	'먹+으려고'의 결합 구조로 'ㄹ'은 불필요한 첨가임.
17	주제	주재	주제: 대화나 연구 따위에서 중심이 되는 문제. 주재: 어떤 일을 중심이 되어 맡아 처리함.
18	세째	셋째	[표준어 6항] '셋째', '넷째'가 표준어임.
19	윗층	위층	[표준어 12항] 거센소리(ㅊ) 앞에서는 '위'로 씀.
20	도너츠	도넛	[외래어] 짧은 모음 다음의 어말 무성 파열음([p], [t], [k])은 받침으로 적고 외래어 받침은 'ㄱ,ㄴ,ㄹ,ㅁ,ㅂ,ㅅ,ㅇ' 만을 쓰므로 '도넛'이 됨.

2009년 제15회 점역·교정사 국가공인 민간자격 3급 국어 시험 점역 문제

※ 수험번호와 이름을 쓰시오.
※ 다음 문장을 정확히 점역하시오.(총점 40점)

시각장애를 의학적으로 해결하려는 연구노력이 캘리포니아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카메라를 이용하여 시상을 촬영한 후 뇌에 전달하도록 하여 볼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시세포는 1억 2천만 개에 달하여 이를 모두 정확히 상을 연결하지 않는 한 그 상이 선명할 수는 없다. 그리고 미래에 길을 가다가 태양을 보면서 눈을 찡그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눈의 카메라의 배터리가 다 되어 충전을 하고 있는 중일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 한번만이라도 엄마의 얼굴과 아름다운 저녁놀을 볼 수만 있다면……

"'가짜 장애인'이 뭐야?"
"응, 그것은 장애 등급 판정을 잘못 받아 그 동안 중증으로 인정하여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 언론 등에서 가짜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이야!"
"장애 판정이 왜 잘못되는 것이지?"
"장애인이 현재 정부의 시책이 부족하여 더 많은 혜택을 보기 위하여 등급을 낮추기 위해 불법으로 장애 등급을 받았다는 거지 뭐……"
"등급을 장애인이 스스로 판정하나?"
"의사가 잘못한 것이지만 장애인이 원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나 봐."
"의사가 의견이 서로 다른 것이지 잘못은 아니지."
"정부가 의사를 믿지 못하여 국민연금에서 다시 판정을 하여 서로 다르면 가짜나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 더 문제야!"
"복지예산을 더 늘려달라는 단체들의 주장에 부도덕성을 부각시켜 잘해주면 부정과 게으름이 커진다고 올가미를 씌우는 거지. 바로 두 번 죽이는 거야."

※ 다음 단어의 뜻과 생각은?
야애: 들에 낀 안개; 김○○ 씨, 나는 그것 처음 듣는 말이야.
서예가: 글을 예술적으로 쓰는 사람; 음, 그럼 굳이 붓글씨일 필요는 없군. 요즘말로 현수막 광고업자인가? 우애 깊은 서예가 친구가 있으면 좋겠군.

제3장 그 밖의 것
제7절 행렬
제8절 기타 기호
제9절 수학 점자의 형태적 표기

〈15회 기출문제 정답〉

1. _점역·교정사_를 점역할 경우 5점을 모두 몇 개 사용하게 되는가?

(정답) ③

(해설) '점역·교정사' 중 5점이 들어가는 점형은 '역'에서 '여(1-5-6점)'에, 가운뎃점(· 5, 2-3점)에, '정(4-6, 1-2-4-5-6점)'에 각각 들어가므로 정답은 ③번이다.

2. 약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④

약어는 모두 7개이며 약어 앞에 다른 음절이 붙어 나오면 약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나 약어 뒤에 다른 음절이 붙어 나오면 약어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약어는 품사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④번이다.

3. 다음 중 쉼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③

(해설) 반점 뒤에 나오는 음절은 띄어 써야 하며, 숫자의 자릿점으로 표기될 때는 (2점)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숫자와 숫자 사이에 가운뎃점(·)이 있을 때에는 가운뎃점의 앞과 뒤를 띄지 않는다. 반점이 고문 시작기호(5점과 점형이 같으나 고문 시작기호 뒤의 음절은 붙여 쓰므로 반점과의 혼동의 우려가 없으므로 고문이 나오더라도 반점을 생략하지 않는다.

4. (정답) ① [표준어 발음법] 제10항 겹받침 "ㄳ", "ㄵ", "ㄶ, ㄺ, ㄻ", "ㅄ"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ㄹ, ㅂ]으로 발음한다.

햇볕은[해벼튼], 낯으로[나츠로] [표준어 발음법] 제13항 홑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밥솥이[밥쏘치] [표준어 발음법] 제17항 받침 "ㄷ, ㅌ(ㄾ)"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5. (정답) ① [맞춤법] 제48항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순번	오자	수정	풀 이
1	티귿	티읕	[맞춤법 4항] ‘ㄷ’은 ‘디귿’으로 읽지만 ‘ㅌ’은 티읕으로 읽음.
2	애닯은	애달픈	‘애닯다’는 노래, 시 등에서 많이 쓰이나 이는 고어(古語)의 잔재일 뿐, ‘애달프다’를 표준어로 삼음.
3	싹뚝	싹둑	[맞춤법 제5항]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함.
4	알콜	알코올	[외래어] 영어 단어 'alcohol'은 보는 바와 같이 세 개의 음절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우리말 표기에서도 '알콜'보다는 '알코올'이 더 정확함..
5	간들어지게	간드러지게	기본형: 간드러지다
6	하마트면	하마터면	기본형: 하마터면
7	가냘퍼서	가냘파서	'으' 변칙 형용사 '가냘프다'가 바른 표기이다. 그러므로 '가냘파'로 활용됨.
8	모짜르트	모차르트	[외래어] 외래어 표기법에 따름.
9	홧병	화병	[맞춤법 30항] ‘火病’은 한자어와 한자어의 결합이므로 사이시옷을 쓰지 않음.
10	개인	갠	‘개인’은 ‘개다’의 피동형인 ‘개이다’의 형용사형으로, 이 경우에는 피동형이 아닌 사동형 ‘개다’의 형용사형인 ‘갠’이 바름.
11	갯수	개수	[맞춤법 30항] ‘個數’는 한자어와 한자어의 결합이므로 사이시옷을 쓰지 않음.
12	팜플렛	팸플릿	[외래어] 팸플릿은 영어의 ‘pamphlet’에서 온 말로 영어 발음에 따라 ‘팸플릿’으로 씀.
13	줏어서	주워서	‘줏어서’는 경기, 제주, 평안 지역의 사투리임.
14	얻어먹을려면	얻어먹으려면	‘-을려면’은 사투리이며 불필요하게 받침이나 음절을 더한다든지 변형한다든지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것은 바르지 않음.
15	얼굴이였다	얼굴이었다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의 경우엔 어간의 마지막 음절 중성이 양성모음이면 '-았-'을, 음성모음이면 '-었-'을 써야 함. 다만 어간이 '하'로 끝나는 경우엔 '-였-'을 씀.
16	미류나무	미루나무	[표준어 10항] 모음이 단순화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음.
17	시행하십시요	시행하십시오	[맞춤법 15항] 연결형 어미는 ‘-요’로 쓰며 종결형 어미 ‘-오’는 ‘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씀.
18	되서야	돼서야	'되다'가 기본형으로 '되어'는 활용형, '돼'는 ‘되어’의 준말임.
19	시행코져	시행코자	‘시행코자’는 ‘시행하고자’의 준말로 모음조화에 따라 ‘저’가 아닌 ‘자’를 씀.
20	샜다	새웠다	새우다: 한숨도 자지 아니하고 밤을 지내다. 새다: 날이 밝아 오다.

제16회 점역·교정사 국가공인 민간자격 3급 국어 시험 점역 문제

※ 수험번호와 이름을 쓰시오.
※ 다음 문장을 정확히 점역하시오.(총점 40점)

성인이 되고 15년이 지났지만 병원에 가면 의사나 간호사들은 항상 내게 똑같은 질문을 한다. “혼자 오셨어요?” 그들은 나를 독립된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상담 및 병세에 대한 진료 상황을 동료인(예: 활동 보조인 및 부모)과 상담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장애여성들은 굴욕감과 소외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IV. 장애인의 심리와 가족 지원
1. 장애인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1) 장애인 가족의 심리적 단계
(1) 슈하르트(1985)의 심리적 단계
① 의혹: 명확치는 않으나 무슨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의심하는 단계
② 확신: 문제를 확신하는 단계
③ 조치: 해결책을 알아보려고 병원 등을 찾아 헤매는 단계
④ 우울증: 병원, 복지관 등 여러 곳에서도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여 심리적 우울증을 가짐
⑤ 수용: 장애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단계
⑥ 공동체 형성: 문제해결을 위해 모임 결성

장애인 복지가 요즘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
장애인 판정 체제가 새로이 도입되고, 환자적 시혜적 재활복지에서 장애를 사회적 차별의 문제와 억압의 문제로 보고 이를 해방시키기 위한 제도와 정당한 편의제공으로 접근권 보장과 사회적 서비스화하여 직접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바우처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지.
그렇구나. 그래서 장애인수당도 연금화되고, 활동보조인제도도 장기요양보험으로 바뀌는 것이구나.
그렇지. 그리하여 새로운 서비스 전달체계가 필요한 것이지 않겠니?

장애인과 장애우의 차이
장애자의 ‘놈 자’ 자보다 장애인이 훨씬 이미지가 개선된 단어로 장애인이라 법에서 고쳐 부르기로 한 것이다.
※ 장애우는 보다 친밀하게 불러보고자 만든 말이다.
그러나 복수나 소유격이 필요한 친구라는 의미로 인하여 장애우는 1인칭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단어이다.

친구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부르는 단어이고, 한국의 문화관습상 나이와 관계없이 부르기에는 부적합한 말이다.

친구라는 의미가 들어가서 의미가 좋아지는 것보다 아예 부정적인 의미가 되고 있다. 친구가 필요한 즉, 도움이 필요한 비독립적인 동정적 의미가 있어 장애인 인식에 부정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

정말 소화액이 치받아 소화하기 힘들군 그래

4·20 장애인의 날 토론회 개최
일시: 2010년 4월 20일 14:20~16:00
장소: 여의도 이룸센터 2층 대회의실
주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참석자: ○○○명

〈16회 기출문제 정답〉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정답) 한글점자의 문장부호 중 부호 다음에 띄어 쓰지 않는 것은?

(정답) ③

(해설) (.), (!)는 종결형 기호이므로 이 기호 뒤에 다른 음절이 나올 때에는 띄어 써야 한다. 쌍반점(:)은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하나 비를 나타낼 때 숫자와 숫자 사이에 쓰여 시간, 장·절을 사용할 때는 뒤의 말을 붙여 쓸 쑤 있다. 하지만 가운뎃점(·)은 반드시 뒤의 말을 붙여 써야 하므로 답은 ③번이다.

2. 다음 중 모음연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①

(해설) ② ‘예’가 받침 없는 글자 뒤에 이어 나올 때에는 ‘예’가 쌍시옷받침으로 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와 앞의 글자 사이에 붙임표를 적는다. 따라서 붙임표는 ‘예’의 앞에 위치한다.

③ ‘애(1-2-3-5점)’은 ‘야, 와, 우, 워’ 뒤에 붙어 ‘얘, 왜, 위, 웨’의 글자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딴이’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야, 와, 우, 워’ 뒤에 모음으로 쓰인 ‘애’가 오면 위의 글자들과 혼동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혼동을 막기 위해 ‘야, 와, 우, 워’ 뒤에 모음 ‘애’가 오면 그 사이에 붙임표를 적어서 “뒤에 쓰인 ‘애’는 모음으로 쓰인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준다.

④ 모음연쇄란 연속해서 모음이 이어지는 것으로 ‘아’ 뒤에 모음이 오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다음 중 점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①

(해설) 현재 점역프로그램, 점자정보단말기의 점번호는 찍기 기준으로 왼쪽 위에서 아래로 1, 2, 3점이다.

4. (해답) ④ 오지랖이[오지라피], 부엌에[부어케] : [표준어 발음법] 제13항 홑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값이[갑씨], 닭을 [달블] : [표준어 발음법] 제14항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에 있는 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이 경우, "ㅅ"은 된소리로 발음함.)

5. (정답) ② [맞춤법]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순번	오자	수정	풀 이
1	육월	유월	[맞춤법 52항] 한자어에서 본음으로도 나고 속음으로도 나는 것은 각각 그 소리에 따라 적음.
2	같애	같아	어미 '-애'는 '-아'로 써야 옳음.
3	갈은	간	[맞춤법 18항] '갈다'와 같이 어간에 다른 어미가 붙어 어간과 어미가 벗어나는 경우 벗어나는 대로 적음.
4	런닝셔츠	러닝셔츠	[외래어]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음.
5	햇쌀	햅쌀	[맞춤법 31항]두 말이 어울릴 적에 'ㅂ' 소리나 'ㅎ' 소리가 덧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음.
6	만듬니다	만듭니다	기본형 '만들다'로 어미 활용 시 '만듭니다'로 적음.
7	넓직한	널찍한	[맞춤법 21항] 겹소리의 끝소리가 소리 나지 않는 경우 소리 나는 대로 적음.
8	바꼈다	바뀌었다	기본형 '바꾸다'에 과거형 어미 '었'이 붙을 경우 '바꾸었다'로 씀.
9	출산률	출산율	[맞춤법 11항]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률'은 '열, 율'로 적음.
10	레크레이션	레크리에이션	[외래어]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음.
11	잡어라	잡아라	모음조화 원칙에 따라 양성모음 뒤에는 양성모음, 음성모음 뒤에는 음성모음이 옴. 따라서 '잡' 뒤에는 양성모음 '아'가 붙어야 함.
12	덛저고리	덧저고리	[맞춤법 제7항]'ㄷ' 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ㅅ'으로 적음.
13	싹뚝싹뚝	싹둑싹둑	[맞춤법 제5항]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함.
14	큰일이예요	큰일이에요	'여'는 어간 '하'에 붙어 반말을 나타내는 어미이므로, 이 때에는 '-어'를 써야 함.
15	안절부절하면	안절부절못하면	'안절부절'은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양'을 의미하는 단어이므로 이 경우 의미상 '안절부절못하다'를 써야 함.
16	딱다구리	딱따구리	[맞춤법 23항]'-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이'나 또는 다른 모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음.
17	잎아리	이파리	[맞춤법 20항]'잎'에 '아리'가 결합된 경우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음.
18	곰곰히	곰곰이	[맞춤법 25항] 부사 '곰곰'에 '이'가 붙어 부사가 되는 경우이므로 그 원형을 밝혀 적음.
19	넉넉치는	넉넉지는	[맞춤법 40항] '넉넉하지'의 준말은 '하'가 그대로 생략된 형태로 씀.
20	전세집	전셋집	[맞춤법 30항] 전셋집의 경우 한자어와 순우리말의 결합이므로 사이시옷을 첨가함. 단 '전세방'은 '傳貰+房' 한자어와 한자어의 결합으로 사이시옷을 쓰지 않음.

제17회 점역·교정사 국가 공인 민간 자격 3급 국어 시험 점역 문제

※ 수험 번호와 이름을 쓰시오.
※ 다음 문장을 정확히 점역하시오.(총점 40점)

꼬마 토끼 동동이는 남들과 달랐어요. 다른 토끼들은 귀가 길었지만 동동이 귀는 그렇지 않았어요. 짧고 둥글고 두툼해서 마치 작은 버섯 같았지요. 엄마는 동동이 귀가 귀엽고 특별하다고 말하지만, 동동이는 속이 상했어요. 동동이는 자기 귀를 길쭉하게 만들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냈어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도 보고, 채소처럼 쑥쑥 자랄까 싶어 몸을 땅에 심은 후 귀에 물을 주기도 하고, 빨래집게로 귀를 집어 빨랫줄에 매달리기도 하고 …….

과연 동동이는 소망대로 자기 귀를 길쭉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과 관련하여, 한국은행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는 연 단위로 적용되는 물가 목표와 월 단위로 적용되는 콜금리 목표 두 가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통화신용정책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한국은행권 발행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의 최저지급준비율,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재할인, 기타 여신 업무의 기준 및 이자율을 결정한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에서의 증권매매 및 통화안정증권 발행·상환 등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의 예금 및 여신에 대한 이자의 최고율, 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의 최장 기한 및 담보의 종류에 대한 제한 등을 결정한다.

금값, 도매가 20만 원 넘었다—역대 최고가 경신!

순금 한 돈(3.75g)의 도매가격이 20만 원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순금 한 돈의 도매가격은 20만 200원으로 사상 최고치였던 전날 기록을 하루 만에 갈아치웠다. 국내에서 도매가격이 20만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작년 최고가에 비해서는 무려 6,600원이나 올랐고, 전날보다는 4,400원이나 비싸진 것이다. 이에 따라 시중에서 순금 1돈짜리 돌반지를 사려면 21만~22만 원 정도는 부담해야 하는 형편이다.

이처럼 금값이 급등한 이유는 유럽발 금융위기에 따른 원·달러 환율의 상승과 더불어 국제 금 시세까지 뛰었기 때문이다.

2010 FIFA 남아공 월드컵 경기 일정 정보

[6/23 경기 일정]

ㄱ. 조 : B조
ㄴ. 시간 : 3시 30분
ㄷ. 장소 : 더반
ㄹ. 대진 : 나이지리아 대 대한민국

ㅁ. 결과 : 2 : 2

〈17회 기출문제 정답〉

⠿⠂ ⠊⠗⠨⠟⠐⠂ ⠉⠣⠕⠨⠕⠐⠕⠣ ⠊⠗ ⠊⠗⠚⠒ ⠑⠟⠈⠍⠁

⠿⠢ ⠈⠳⠈⠧⠐⠂ ⠼⠃⠐⠂⠃

1. (정답) ② [맞춤법] 제48항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이 조항에서 호칭어, 관직명을 붙여 쓸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

2. 다음 중 옛글자를 나타낸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해설) 딴이는 (4-5-6, 1-3-5점)으로 쓴다.

3. (정답) ③ 넓다[널따], 밟다[발따] : [표준어 발음법] 제10항 겹받침 ″ㄳ″, ″ㄵ″, ″ㄼ, ㄽ, ㄾ″, ″ㅄ″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ㄹ, ㅂ]으로 발음한다. 다만, ″밟-″은 자음 앞에서 [밥]으로 발음하고, ″넓-″은 넓-죽하다[넙쭈카다] 넓-둥글다[넙뚱글다] 경우에 [넙]으로 발음한다.

간단하다[간단하다], 교과서[교과서] 그대로 발음한다.

4. 한글점자규정에 근거하여 점자 표기가 틀린 것은?

(정답) ①

(해설) ② 보통 '나, 다, 마, 바, 자, 카, 타, 파, 하'가 받침을 포함하고 있으면 '아'를 생략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팠'의 경우 '아'를 생략하면 '폐'로 읽힐 수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아'를 생략하지 않는다. ③은 약어에 해당하는 단어 뒤에 다른 음절이 붙어 있어도 약어 약자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그리하여도'의 '그리하여' 약자를 사용할 수 있다. ④에서 붙임표(-)로 숫자가 연결되어 있을 때 붙임표 뒤의 숫자에는 수표를 붙이지 않으므로 맞는 표기이다. ① '꼈다'는 '것'의 약자(4-5-6, 2-3-4점)을 사용할 수 없고 '꺼'에 쌍시옷받침(3-4점)을 써서 (6, 4, 2-3-4, 3-4점)으로 적어야 한다.

5. 점자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정답) ④

(해설) ①: 군사용 메시지 전달을 위해 점자를 고안한 사람은 바르비에이며, 12점형의 점자를 고안하였다.

②: 현재 미국에서는 6점식의 브라유점자만이 사용되고 있다.

③: 현재 한글점자는 박두성 선생이 창안한 것으로 풀어쓰기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④: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된 점자 형식은 뉴욕포인트(4점식)으로 홀 여사에 의해 도입되었고 평양에서 시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4점식 점자를 사용하여 교육이 이루어졌다.

순번	오자	수정	풀 이
1	귓밥	귀지	귓밥: 귓불 즉 귓바퀴의 아래쪽에 붙어 있는 살. 귀지: 귓구멍 속에 낀 때.
2	뵈요	봬요/뵈어요	'요'는 연결 어미 또는 보조사로 사용되며 보조사의 경우 어간 뒤에 바로 붙을 수 없음. '봬요'는 '뵈+어+요'의 준말임.
3	주십시요	주십시오	[맞춤법 15항] 연결형 어미는 '-요'로 쓰며 종결형 어미 '-오'는 '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씀.
4	같애	같아	어미 '애'는 '아'로 써야 함.
5	팜플렛	팸플릿	[외래어] 팸플릿은 영어의 'pamphlet'에서 온 말로 영어 발음에 따라 '팸플릿'으로 씀.
6	돋구려고	돋우려고	돋우다: 위로 높아지게 하다, 감정을 자극해 상기하게 하다, 부추기다 돋구다: 더 높게 하다
7	자랑스런	자랑스러운	'-스럽다'가 붙어 형용사가 된 말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받침 'ㅂ'이 '우'로 바뀌므로 '-스러운, -스러우나, -스러우니' 등으로 활용함.
8	낚지	낙지	기본형: 낙지
9	우뢰	우레	'우레'와 '천둥'은 복수표준어임.
10	썩혀서	썩여서	썩이다: 걱정이나 근심 따위로 마음이 몹시 괴로운 상태가 되다 썩히다: 유기물이 부패 세균에 의하여 분해되다
11	리모콘	리모컨	'리모컨'은 원래 'remote control'의 일본식 조어로 추정됨.
12	설젖이	설거지	[표준어 20항] 고어 '설겆다'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사어로 '설거지하다'가 기본형임.
13	산산히	산산이	[맞춤법 51항] '이'로만 발음나는 경우 '이'를 씀.
14	바람이였어	바람이었어	'였'은 어간 '하'뒤에 붙거나 '이었'이 합쳐진 말로 '바람이었어'의 경우 과거 시제인 '었'을 씀.
15	높일려면	높이려면	기본형: 높이다
16	채제비	체재비	滯在費: 객지에 가서 머물러 지내는 데 드는 비용.
17	아인쉬타인	아인슈타인	
18	그림에 떡	그림의 떡	발음에 따른 오류로, 발음할 때는 '에'와 '의' 두 가지로 소리나지만 '의'만 씀
19	디은	디귿	[맞춤법 4항]
20	댓가	대가	[맞춤법 30항] '代價'는 한자어와 한자어의 결합이므로 사이시옷을 적지 않음.

2010년도 제18회 점역·교정사 국가 공인 민간 자격 3급 국어 시험 점역 문제

※ 수험 번호와 이름을 쓰시오.
※ 다음 문장을 정확히 점역하시오.(총점 40점)

나무가 아픈 것 같아요

어느 날 벨라는 집 앞의 키다리 나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키다리 나무에서 나뭇잎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벨라는 구급상자를 가져와 약을 발라 주고, 반창고를 붙여 주고, 청진기를 가만히 대 보았어요. 나무가 너무 오래 서 있어서 아픈 것 같았어요. 계속 나뭇잎을 들고 서 있는 나무의 팔도 너무 아플 것 같았어요. 그때 쌩 하고 바람이 불더니 또다시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졌죠. 이런, 나무가 감기에 걸린 것이 틀림없어요. 벨라는 담요를 가져와 나무에 덮어 주었어요.

"십 원짜리도 돈입니까?"라고 묻는 당신에게

안녕하십니까? 저는 10원입니다.

어? 다들 콧방귀를 뿡 뀌시지만 저도 1962년에 처음 태어났을 때만 해도 지폐로 태어나 지금 만 원 부러울 것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신세가 80년대 공중전화 비용이 되더니 90년대에는 풍선껌 하나, 그리고 지금은 지갑이 아니라 집안 구석구석에 떨어져 있는 신세입니다.

안락한 동전지갑이나 화려한 저금통은 이제 옛말이죠. 저는 꽃을 덜 시들게 하기 위해 꽃병에 잠기거나, 심지어 전자파 차단을 위해 컴퓨터 옆 면에 붙여지기까지 한다! 어허, 이거 참 화폐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가 4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컨벤시아에서 마스코트와 엠블럼 선포식을 열었다.

마스코트는 천연기념물인 백령도 점박이 물범 삼남매다. 조직위는 "물범이 분단된 한반도의 남북을 자유로이 오간다는 점에 착안했다."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물범 삼남매의 이름은 인천아시안게임의 주경기장 모티브인 빛·바람·춤에서 따왔다. 대회 엠블럼은 아시아의 이니셜 'A'를 사람으로 형상화를 한 것으로 아시아인들이 손잡고 비상하는 모습을 표현했다.

오늘 환율 어떻게 보시나요?

유로존 재정 악화 위기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23일 원달러 환율은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일랜드 위기가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으로 완화되는 듯했으나 아일랜드 정치 불안 사태와 포르투갈 등 주변국으로의 재정 위기 확대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유로-달러 환율이 하락 반전했다. 22일(현지 시간) 뉴욕 외환시장에서

유로-달러 환율은 오후 4시 현재 전날보다 0.68% 하락한 1.3621달러를 나타냈다.

〈18회 기출문제 정답〉

⠠⠊⠲ ⠈⠁⠉⠁ ⠎⠕⠗⠞⠊⠝⠛⠕⠗⠊⠵⠕ ⠉⠕⠙⠑⠲
⠠⠊⠊⠲ ⠈⠁⠉⠁ ⠎⠕⠗⠞⠊⠝⠛⠕⠗⠊⠵⠕ ⠉⠕⠙⠑⠲
⠠⠊⠊⠊⠲ ⠈⠁⠉⠁ ⠎⠕⠗⠞⠊⠝⠛⠕⠗⠊⠵⠕ ⠉⠕⠙⠑⠲
⠠⠊⠧⠲ ⠈⠁⠉⠁ ⠎⠕⠗⠞⠊⠝⠛⠕⠗⠊⠵⠕ ⠉⠕⠙⠑⠲
⠠⠧⠲ ⠈⠁⠉⠁ ⠎⠕⠗⠞⠊⠝⠛⠕⠗⠊⠵⠕ ⠉⠕⠙⠑⠲

1. 다음 점자 표기 중 올바른 것은?

(정답) ②

(해설) ①: 순서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ㄱ'은 뒤에 온점(.)이 있더라도 표시하지 않는다.

③: 여기서 사용된 로마숫자 'Ⅲ'은 앞에 로마자 2중대문자기호(6, 6점)을 사용하여 적는다.

④: MP3 다음에 로마자 닫는기호는 적지 않는다.

2. (정답) ④ 샅샅이[삳싸치] [표준어 발음법] 제23항 받침 "ㄱ(ㄲ, ㅋ, ㄳ, ㄺ), ㄷ(ㅅ, ㅆ, ㅈ, ㅊ, ㅌ), ㅂ(ㅍ, ㄼ, ㄿ, ㅄ)"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제17항 받침 "ㄷ, ㅌ(ㄾ)"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샅샅이'는 받침 'ㅌ'이 [ㄷ]으로 발음나기 때문에 두 조항을 조합하면 [삳싸치]로 발음하는 것이 옳다.

깨끗이[깨끄시], 밤낮으로[밤나즈로], 밥솥을[밥쏘틀] : [표준어 발음법] 제13항 홑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3. 다음 중 한국점자규정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 ③

(해설) 한글과 한글 사이에 연산기호(+, −, ×, ÷, = 등)가 나올 때에는 연산기호의 앞과 뒤를 모두 띄어 적어야 한다.(예: 비 + 바람 = 비바람)

4. 점자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해설) ① 점자의 한칸 점형은 빈칸을 제외하고 63가지이다.
② 11월 4일은 우리 나라의 점자기념일이다.
5. (정답) ② [표준어] 제9항 기술자에게는 '-장이', 그 외에는 '-쟁이'가 붙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순번	오자	수정	풀 이
1	어슴프레	어슴푸레	기본형: 어슴푸레하다
2	세넷	서넛	[표준어 17항] 수를 나타내는 '셋', '넷'은 그 쓰임에 따라 '서', '석', '너', '넉'의 형태로 사용됨. '세'와 '네'가 합쳐진 이 경우는 '서넛'이 맞음
3	폭증했다	폭등했다	폭증: 갑자기 큰 폭으로 증가함 폭등: 물건의 값이나 주가 따위가 갑자기 큰 폭으로 오름.
4	먹대	먹데	'-대'는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남이 말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때 쓰이고, '-데'는 화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나중에 보고하듯이 말할 때 쓰이는 말로 '-더라'와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데 쓰임.
5	수북히	수북이	[맞춤법 25항] '이'로만 발음나는 경우
6	쓰여지지	써지지/ 쓰이지/씌지	'쓰이다'는 '쓰다'의 피동형으로 굳이 '~지다'를 붙여 피동일 이유가 없으며 특히 이 경우 피동형을 쓸 필요가 없음.
7	지경이였다	지경이었다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의 경우엔 어간의 마지막 음절 중성이 양성모음이면 '-았-'을, 음성모음이면 '-었-'을 써야 함. 다만 어간이 '하'로 끝나는 경우엔 '-였-'을 씀.
8	틀리다고	다르다고	'틀리다'는 셈이나 사실 따위가 그르다는 의미이고 '다르다'는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같지 않음을 의미함.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다르다'가 적합함.
9	또아리	똬리	[표준어 14항] 준말(똬리)이 널리 쓰이고 본말(또아리)이 잘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음.
10	제껴서	젖혀서	'제끼다'는 '제치다'의 사투리 표현임. '제치다'는 '거치적거리지 않도록 치우다'의 의미이며 '물건의 안쪽이 겉으로 드러나게 하다'의 뜻으로 사용하였을 때는 '젖히다'가 맞음.
11	부담되서	부담돼서	'되다'가 기본형으로 '되어'는 활용형, '돼'는 '되어'의 준말임.
12	컨텐츠	콘텐츠	[외래어]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발음대로 적음.
13	닫으므로써	닫음으로써	[맞춤법 57항]'(으)므로'는 인과관계, '(-ㅁ, -음)으로(써)'는 수단이나 방법에 쓰임. 또한 '(-ㅁ, -음)으로'에는 '써'가 붙을 수 있으나 '(으)므로'에는 '써'가 붙을 수 없음.
14	부숴지고	부서지고	기본형 '부수다'를 피동으로 쓸 경우 '부서지다'로 씀.
15	용이자	용의자	범죄의 혐의가 뚜렷하여 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을 뜻하는 단어는 '용의자'임.
16	쟝르	장르	
17	겉잡을	걷잡을	겉잡다: 겉으로 보고 대강 짐작하여 헤아리다 걷잡다: 한 방향으로 치우쳐 흘러가는 형세 따위를 붙들어 잡다, 마음을 진정하다
18	저물녁	저물녘	[표준어 3항]'녘'은 거센소리를 표준어로 삼음
19	돋굴	돋울	돋구다: 안경의 도수 따위를 높이다 돋우다: 위로 끌어 올려 도드라지게 높이다
20	정답없음		

제19회 점역·교정사 국가 공인 민간 자격 3급 국어 시험 점역 문제

※ 수험 번호와 이름을 쓰시오.
※ 다음 문장을 정확히 점역하시오.(총점 40점)

로미오와 줄리엣

오랜 세월 서로 앙숙으로 지내오던 두 가문의 아들과 딸인 로미오와 줄리엣은 이국적이고 정열적인 도시 베로나의 가면무도회에서 서로 첫눈에 반해 영원히 함께할 것을 맹세한다. 그러나 로미오는 친구의 싸움에 말려들어 줄리엣의 사촌을 죽이게 되고 베로나에서 추방당하게 된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룻밤을 함께 보내고 로미오는 도피한다. 그 후 줄리엣은 파리스와 결혼시키려는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일시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는 약을 마시고 죽은 척한다. 로미오는 줄리엣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와 슬픔에 빠진 나머지 독약을 먹고 자살하고, 깨어난 줄리엣 역시 숨진 로미오를 발견하고 단검으로 가슴을 찔러 자살한다.

"컵라면 국물 다 마시면 안 돼."

시중에 판매되는 컵라면의 평균 나트륨 함량이 1,779밀리그램으로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하루 나트륨 권고량의 약 89%에 달한다. 가장 높게는 무려 2,717밀리그램이 함유되어 컵라면 하나만 먹더라도 하루치 권고량을 훌쩍 넘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소비자들이 컵라면의 국물을 적게 먹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만을 초래하는 당의 함량은 음료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과일주스는 1회 제공량(200㎖)당 22.6g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3개월간 9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전국 57개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간식류 24품목 250여 건에 대한 트랜스·포화지방, 당, 나트륨 함량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모집 정보〕

㉠ 모집 개요

1. 모집 현황

(1) 모집 분야 : 홍보, 서무 업무 지원

ㄱ. 모집 인원 : 1명

ㄴ. 지원 자격 : 엑셀, 한글, MS오피스 등 컴퓨터 활용 가능자

2. 근무 여건

(1) 근무 시간 : 주 5일, 8시간 근무(09:30~17:30 단, 협의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2) 근무 보수 : 일급 35,000원(일 1시간 휴게 시간 외 시급 5,000원 상당)

3. 모집 기간 : 2011년 1월 3일(월)~1월 21일(금)

4. 주소 : 100-250 서울 중구 예장동
*문의처 : 운영총괄팀

오늘의 환율입니다.
원화 기준 1$당 1,083원 / 100¥당 1,328원입니다.

〈19회 기출문제 정답〉

⠠⠠⠓⠗⠎⠊

⠠⠠ ⠠⠓⠁⠝⠛⠥⠇ ⠠⠠⠠⠎⠑⠞⠞⠊⠝⠛⠎

⠠⠠⠠⠎⠑⠞⠞⠊⠝⠛⠎ ⠠⠠⠠⠉⠕⠍⠏⠁⠗⠊⠎⠕⠝⠎

⠠⠠⠠⠓⠁⠝⠛⠥⠇ ⠠⠠⠠⠎⠑⠞⠞⠊⠝⠛⠎ ⠠⠠⠠⠁⠝⠙ ⠠⠠⠠⠉⠕⠍⠏⠁⠗⠊⠎⠕⠝⠎

1. 다음 중 한글점자규정에 근거하여 점자표기가 올바르지 않은 것은?

(정답) ②

(해설) 숨김표를 표기할 때에는 각 모양의 숨김표 점형 앞에 4-5-6점을 적고, 각 모양에 해당하는 숨김표 점형을 개수대로 적은 다음 1-2-3점을 적는다.

2. 다음 중 한글점자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해설) 묵자본에서 반점(,)을 사용하여 장과 절을 구별하여도 점자에서는 쌍반점(:)으로 대체하여 장과 절을 표기해야 한다.

3. (정답) ① 고가도로[고가도로] 그대로 발음한다.

무릎에[무르페], 솥을[소틀] : [표준어 발음법] 제13항 홑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흙이[흘기] : [표준어 발음법] 제14항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에 있는 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4. 다음 중 한글점자의 문장부호 중 마침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③

(해설) 온점(.), 느낌표(!), 물음표(?)는 모두 마침표로 사용할 수 있는 문장부호이다.

5. (정답) ② [맞춤법]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순번	오자	수정	풀 이
1	닥딸	닦달	'닥딸'은 '남을 단단히 윽박질러서 혼 냄'을 의미하는 '닦달'을 소리 나는 대로 쓴 것임.
2	넙적한	넓적한	[맞춤법 21항] 어간 '넓' 뒤에 접미사 '적하다'가 붙은 경우 원형을 밝혀 씀.
3	세네	서너	[표준어 17항] 수를 나타내는 '셋', '넷'은 그 쓰임에 따라 '서', '석', '너', '넉'의 형태로 사용됨. '세'와 '네'가 합쳐진 이 경우는 '서너'가 맞음
4	연필깎기	연필깎이	'연필 깎기'는 '연필을 깎다'의 명사형으로 이때 '연필'과 '깎기'를 띄어 써야 하며, '연필을 깎는 기구'를 뜻하는 경우 '연필깎이'로 써야함.
5	숫놈	수놈	[표준어 7항] 수컷을 의미하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함.
6	길래	기에	**2011년 9월 2일자로 길래와 기에가 복수표준어로 인정되었습니다.**
7	매마른	메마른	기본형: 메마르다
8	기브스	깁스	[외래어] 깁스(Gips)가 원래 바른 외래어 표기법임.
9	좋데	좋대	'-대'는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남이 말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때 쓰이고, '-데'는 화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나중에 보고하듯이 말할 때 쓰이는 말로 '-더라'와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데 쓰임.
10	깨끗치	깨끗지	접미사 '-하다'가 줄어든 꼴은 용언의 활용 형태가 부사로 전성된 것으로서 소리 나는 대로 적음.
11	싯귀	시구	[표준어 19항] 한자 '구(句)'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는 '귀'로 읽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로 통일하며, '詩句'는 한자어와 한자어가 결합한 형태이므로 사이시옷을 쓰지 않음.
12	주십시요	주십시오	[맞춤법 15항] 연결형 어미는 '-요'로 쓰며 종결형 어미 '-오'는 '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씀.
13	데이타	데이터	[외래어]'data'는 영어 발음에 따라 '데이터'로 적음.
14	겉잡을	걷잡을	겉잡다: 겉으로 보고 대강 짐작하여 헤아리다 걷잡다: 한 방향으로 치우쳐 흘러가는 형세 따위를 붙들어 잡다, 마음을 진정하다
15	널부러져	널브러져	기본형: 널브러지다
16	어거지	억지	'어거지'는 '억지'의 잘못된 표현임.
17	철저이	철저히	[맞춤법 51항] '히'로만 발음나기 때문에 '이'가 아닌 '히'로 씀.
18	극낙	극락	[맞춤법 12항] 첫머리 외에는 두음법칙을 적용받지 않음.
19	시래기국	시래깃국	[맞춤법 30항] '시래기+국'로 순우리말과 순우리말이 결합하면서 된소리 발음([꾹])이 나는 경우 사이시옷을 씀.
20	더우기	더욱이	[맞춤법 25항] 부사 '더욱'에 '이'가 붙어 부사가 된 경우임.

제20회 점역·교정사 국가 공인 민간 자격 3급 국어 시험 점역 문제

※ 수험 번호와 이름을 쓰시오.
※ 다음 문장을 정확히 점역하시오.(총점 40점)

구름빵

어느 날 아침 눈을 떠 보니, 창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나는 동생을 깨워 밖으로 나갔어요. 오늘은 뭔가 재미있는 일이 생길 것 같았지요.

"어, 이게 뭐지?"

작은 구름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어요. 작은 구름은 너무너무 가벼웠어요. 우리는 구름이 날아가지 않도록 조심조심 안고서 엄마한테 갖다 주었어요. 엄마는 큰 그릇에 구름을 담아 따뜻한 우유와 물을 붓고, 이스트와 소금과 설탕을 넣어 반죽을 해서 작고 동그랗게 빚은 다음 오븐에 넣었지요.

"자, 이제 45분만 기다리면 맛있게 익을 거야. 그럼 아침으로 먹자꾸나."

빵이 완성되자 모두들 빵을 하나씩 먹었어요. 그러더니 몸이 부웅 떠올랐어요.

책에 빠진 가을, 북 페스티벌 즐기기

알맞게 선선해진 날씨는 책장을 넘기는 사람들을 삼삼오오 야외로 불러내고, 맑은 햇볕에 고추 말리듯 거리마다 책이 펼쳐진다. 고요하고도 뜨거운 북 페스티벌 현장으로 들어가 보자.

10/1~10/9까지 파주출판단지에서 펼쳐지는 "파주 북소리 2011"은 100여 개 출판사와 1,000명의 저자가 함께한다. 각 출판사 사옥에서 강연과 창작 워크숍이 진행되고, 국내 대표 작가들이 독자들과 만나 자신의 작품 세계를 들려준다. 특히, 「노벨문학상 110주년 특별전」에서는 수상 작가들의 체취가 묻어 있는 유품과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30여 개의 출판사가 참여하는 『제4회 2011 서울 북 페스티벌』은 '책의 길'을 주제로 덕수궁에서 펼쳐진다. 석조전 회랑에서는 덕수궁 도서관이 문을 열고, 서울을 주제로 한 세 권의 책을 미로로 제작한 '길따라 책따라'에서는 책 속에 나온 장소를 직접 탐험할 수 있다. 또한, 고종이 연회를 즐기던 정관헌에서는 시와 음악이 함께하는 고궁 음악회가 열린다.

NASA, 화성에 보낼 유인 우주선 공개

2011년 ○○월 ○○일 오전 08 : 09

미항공우주국(NASA)은 우주 탐험선 프로젝트의 '우주 발사 시스템' 디자인과 구체적 개발 계획을 처음 공개했다. 1차로 제작되는 로켓 우주선은 자유의 여신상 키와 비슷한 98m로 약 77톤을 운반할 수 있으며, 2차로 최종 제작될 화성 탐사 우주선의 높이는 40층 빌딩과 맞먹는 122m로서 약 143톤 상당을 운반할 수 있도록 제

작된다. 나사의 우주 탐험 프로젝트에 따르면 2017년 무인 우주선 시험 비행에 이어 2021년 유인(4인) 우주 비행, 2025년 소행성 탐사, 2030년 화성 유인 탐사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회 기출문제 정답〉

⠠⠠⠚⠥⠝⠠⠠⠚⠥⠝⠠⠠⠚⠥⠝⠠⠠⠚⠥⠝⠠⠠⠚⠥⠝
⠠⠠⠚⠥⠝⠠⠠⠚⠥⠝⠠⠠⠚⠥⠝⠠⠠⠚⠥⠝⠠⠠⠚⠥⠝
⠠⠠⠚⠥⠝⠠⠠⠚⠥⠝⠠⠠⠚⠥⠝⠠⠠⠚⠥⠝⠠⠠⠚⠥⠝
⠠⠠⠚⠥⠝⠠⠠⠚⠥⠝⠠⠠⠚⠥⠝⠠⠠⠚⠥⠝⠠⠠⠚⠥⠝
⠠⠠⠚⠥⠝⠠⠠⠚⠥⠝⠠⠠⠚⠥⠝⠠⠠⠚⠥⠝⠠⠠⠚⠥⠝
⠠⠠⠚⠥⠝⠠⠠⠚⠥⠝⠠⠠⠚⠥⠝⠠⠠⠚⠥⠝⠠⠠⠚⠥⠝
⠠⠠⠚⠥⠝⠠⠠⠚⠥⠝⠠⠠⠚⠥⠝⠠⠠⠚⠥⠝⠠⠠⠚⠥⠝
⠠⠠⠚⠥⠝⠠⠠⠚⠥⠝⠠⠠⠚⠥⠝⠠⠠⠚⠥⠝⠠⠠⠚⠥⠝
⠠⠠⠚⠥⠝⠠⠠⠚⠥⠝⠠⠠⠚⠥⠝⠠⠠⠚⠥⠝⠠⠠⠚⠥⠝

1. 다음 중 점자표기가 올바르지 않은 것은?

(정답) ②

(해설) 그리고 약어(1, 1-3-6점)은 다른 음절 뒤에 붙어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찡그리고'의 '그리고'는 약어로 사용할 수 없다.

2. (정답) ③ 부엌에[부어케], 지읒이[지으시] : [표준어 발음법] 제13항 홑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굵다랗다[국따라타] : [표준어 발음법] 제23항 받침 "ㄱ(ㄲ, ㅋ, ㄳ, ㄺ), ㄷ(ㅅ, ㅆ, ㅈ, ㅊ, ㅌ), ㅂ(ㅍ, ㄿ, ㅀ, ㅄ)"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3. 다음 한글점자규정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정답) ④

(해설) 각주에 쓰인 별표는 앞말과 뒷말을 붙여 쓴다.

4. 다음 중 점형이 같은 것끼리 묶이지 않은 것은?

(정답) ③

(해설) ①: 물음표(?), 여는따옴표(")는 모두 (2-3-6점)으로 적는다.

②: 긴소리표(：), 점역자주 기호는 모두 (6, 3점)으로 적는다.

④: 줄표(—)와 물결표(~)는 모두 (3-6, 3-6점)으로 적는다.

③: 아포스트로피(')는 (3점), 자릿점으로 사용된 반점(,)은 (2점)으로 적는다.

5. (정답) ④ [표준어] 제22항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생명력을 잃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면, 한자어 계열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순번	오자	수정	풀 이
1	걱정이예요	걱정이에요	'여'는 어간 '하'에 붙어 반말을 나타내는 어미이므로, 이때에는 '-어'를 써야 함.
2	출산률	출산율	[맞춤법 11항]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률'은 '열, 율'로 적음.
3	도너츠	도넛	[외래어] 짧은 모음 다음의 어말 무성 파열음 ([p], [t], [k])은 받침으로 적고 외래어 받침은 'ㄱ,ㄴ,ㄹ,ㅁ,ㅂ,ㅅ,ㅇ' 만을 쓰므로 '도넛'이 됨.
4	느즈막이	느지막이	'좀 느직하다'를 뜻하는 형용사는 '느지막하다'이며 부사는 '느지막이'임.
5	세째	셋째	[표준어 6항] '셋째', '넷째'가 표준어임.
6	원할한	원활한	기본형 : 원활하다
7	윗이	윗니	[맞춤법 27항]'이'가 합성어나 이에 준하는 말에서 '니' 또는 '리'로 소리날 때에는 '니'로 적음.
8	조렸다	졸였다	조리다: 양념의 맛이 재료에 푹 스며들도록 국물이 거의 없을 정도로 바짝 끓여내는 것을 이름 졸이다: 찌개나 국의 국물을 줄게 하는 것, 마음을 태우며 속을 태움을 이름
9	은근이	은근히	[맞춤법 51항] '이' 또는 '히'로 발음나는 경우 '히'로 통일하여 적음. '은근이'는 '은근히'의 옛말임.
10	애기	애기/이야기	'이야기'의 준말은 '애기'이며, '애기'는 '아기', '아이'의 잘못된 표현임.
11	읽으므로써	읽음으로써	[맞춤법 57항]'(으)므로'는 인과관계, '(-ㅁ, -음)으로(써)'는 수단이나 방법에 쓰임. 또한 '(-ㅁ, -음)으로'에는 '써'가 붙을 수 있으나 '(으)므로'에는 '써'가 붙을 수 없음.
12	붙였으니	부쳤으니	'부치다'는 '힘이 모자라다', '편지나 물건을 보내다', '논밭을 다루어서 농사짓다', '어떤 문제를 의논 대상으로 내놓다', '원고를 인쇄에 넘기다'의 뜻이 있음.
13	볼성사나운	볼썽사나운	볼썽사납다 : 사람이나 사물의 모습이 보기에 역겹다.
14	짧다란	짤따란	[맞춤법 21항] 겹소리의 끝소리가 소리 나지 않는 경우 소리 나는 대로 적음.
15	피면	피우면	'피우다'는 '피다'의 사동사. 문법적으로 쉽게 표현하면 '피다'는 앞에 '이/가/은/는'의 조사와 호응하고 '피우다'는 '을/를'과 호응함. 예를 들면 '꽃이 피다'와 '꽃을 피우다'임.
16	부줏돈	부좃돈	[표준어 8항] '扶助'는 한자에서 비롯하여 어원을 밝혀 적고 '부조+돈'의 한자어와 순한글의 조합에서 '돈'이 된소리 발음이 나므로 사이시옷을 삽입함.
17	야밤도주	야반도주	夜半逃走 : 남의 눈을 피하여 한밤중에 도망함.
18	점장이	점쟁이	[맞춤법 9항] '장이'는 기술자에게, 그 외에는 '쟁이'가 붙음. '점쟁이'의 경우 점을 치는 기술로 볼 수 있으나 오래전부터 점치는 사람을 얕잡아 부르는 의미에서 '점쟁이' 부름.
19	되려	도리어 되레	'되려'는 '도리어'의 방언임.
20	돈까스	돈가스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된소리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으나 표기할 때는 올바르게 예사소리로 표기하여야 함.

제6장 실전 모의 점역 문제 및 정답

제6장 실전 모의 점역 문제 및 정답

제1회 실전 모의 점역 문제

점역·교정사 국가 공인 민간 자격 3급 국어 점역 문제

*** 다음 문장을 정확히 점역하시오.(총점 40점)**

처음 해미읍성을 찾은 때는 청명한 가을날이었다. 점심때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지만 평일이라 성 앞거리는 퍽 한적했다. 공사 안내판이 서 있고 이곳저곳 노변이 뜯겨 있었지만 힘써 뭔가를 만들고 고쳐보겠다는 부산스러움은 보이지 않았다.

성문을 들어서면 벌써 과거 시대다. 그 짧은 통로 하나에서 시간이동을 실감할 수 있었던 것도 해미읍성에서만 갖는 특별한 경험이었다. 낙안읍성 안쪽의 그 재현된 초가 마을이며 관아 등도 정답긴 하지만 그것은 오늘에 덧칠된 과거의 무늬 같아서 쉬 식상할 수도 있었다. 낙안과 달리 관아 건물들만 복원 보수한 고창읍성은 그 청결감이 기특하지만 박제된 과거를 보는 듯한 아쉬움을 남긴다. 아무튼 낙안, 고창, 해미의 읍성들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읍성임에 틀림이 없으며 따라서 현대의 운용 면에서도 상호 차별성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다.

앞머리카락을 길러서 일자로 만든 뒤 청순함을 연출하고 싶다면? 참고 기르면 되지만, 앞머리카락은 자라는데 유독 시간이 오래 걸린다. 모발이 자라는 속도가 유독 느린 사람은 1년이 걸리기도 한다. 뒷머리카락은 찰랑찰랑 잘 자라는데, 앞머리카락을 기르기는 왜 이렇게 힘이 든 걸까. 머리카락은 보통 10만개 정도 되는데, 부위에 따라 자라는 속도가 다르다. 이는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크지만, 물리적인 요인도 피해갈 수 없다. 이마와 바로 이어진 앞머리, 정수리에 있는 모발은 자외선에 쉽게 노출돼 수분을 빼앗기고 건조해 잘 끊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 부위는 정수리 아래부터 목 뒤까지 자라는 모발보다 10~20% 더디게 자라며, 자라더라도 잘 빠진다.

2011년도 제2차 점역・교정사 국가공인 민간자격 시험계획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요

1) 시험명 : 제20회 점역・교정사 국가공인 민간 자격 시험

2) 시험일 : 2011년 10월 8일

시험시간
- 3급 국어
비시각장애인 10:00~11:20
시각장애인 10:00~12:00
- 2급 수학/과학(컴퓨터)
비시각장애인 13:00~14:20
시각장애인 13:00~15:00
3) 시험장소 : 서울시립상계직업전문학교

2. 응시자격

1) 3급〔국어〕: 20세 이상으로 고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 또는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의 점역·교정 업무 3년 이상의 경력자
2) 2급〔영어, 수학/과학(컴퓨터), 음악〕: 3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제 대학이상 졸업자/졸업예정자 또는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의 점역·교정 업무 4년 이상의 경력자

3. 구비서류

1) 응시 원서 1부
2) 장애인 복지 카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3개월 이내)
4) 최종학력 증명서 1부
5)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6) 점역·교정사 민간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7) 반명함판 사진 2매(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사진 3×4㎝)
8) 의사소견서(뇌병변 및 중증상지지체(1~3급)장애인 중 시험 시간의 조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4. 검정료 : 3만원

1) 우편접수 시 입금계좌번호 : 우리은행 225-055292-13-064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 납부한 검정료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한다. 단, 검정실시일 3일전에 통보한 자에 한한다.

5. 원서교부 및 접수

1) 교부 및 접수기간 : 2011년 9월 19일(월)~9월 23일(금)
2)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우)139-831 서울시 노원구 상계6동 771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점자도서관 전화 02) 950-0192
3) 신청서 접수는 내방 또는 등기우편에 한함(등기우편은 마감일 소인 유효)

〈 정 답 〉

제2회 실전 모의 점역 문제

점역·교정사 국가 공인 민간 자격 3급 국어 점역 문제

＊ 다음 문장을 정확히 점역하시오.(총점 40점)

오랜 시간 흘러도 변함없는 작지만 소중한 가치!
책의 주인공들은 평범함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바로 내 가족, 내 이웃들이다. 10년이라는 세월을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잊고 살아온 소중한 것을 생각하게 해주며 갱팍한 세상을 살아갈 파릇파릇한 희망과 기운을 전해준다. 마음으로 배운 용기, 이웃들의 따스한 손길, 언제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가족, 함께한 날들의 소중함과 그러한 삶 속에 숨은 지혜까지 짤막한 이야기를 통해 보여준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가 수록되어 소리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했다.
저자 소개 : 박인식
KBS 한국방송 프로듀서. 사랑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이자 고난을 헤쳐 나가는 힘이라 굳게 믿으며, 매일매일 따뜻한 눈과 사랑의 창으로 세상을 들여다보는 것이 직업인 사람. 오직 사람과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소소한 일상에 관심을 두는 사람. 사람과 함께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 최고의 낙인 사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건강하게, 열심히, 잘 사는 것이 목표인 사람.
그림 : 신재원
전라남도 완도 출생. 군산대학교 미술학과(동양화 전공)를 전공하고 일러스트레이터 '원아'로 활동. 《송아지 아버지》, 《끄는 부모 미는 부모》 등이 있다.

'백제 역사유적 지구'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사무국을 만든다. 문화재청은 충청남도, 전라북도, 익산시, 공주시, 부여군과 '백제 역사유적 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22일 오후 문화재청 대회의실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월 8일 세계유산 우선 등재추진 대상으로 선정된 백제 역사유적 지구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해 마련된 것. 협약식에 이어 등재추진준비위원회 위원 위촉식도 함께 열렸다. 추진위에서는 등재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등의 일을 하게 된다. 백제 역사유적 지구란 익산과 공주, 부여에 소재하는 백제시대 문화유산을 하나로 묶은 것으로, 문화재청은 이들을 함께 묶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5개 광역·기초자치 단체는 내년 초 대전에 통합사무국을 발족하고 이를 중심으로 공동 연구와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 등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도실명인지원센터에서는 중도실명인을 대상으로 단기간의 기초 점자쓰기와 읽

기, 흰지팡이를 활용한 보행교육 과정으로 2012년도 기초재활교육 겨울특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2012년도 중도실명인재활교육(점자, 보행) 겨울 특강교육
2. 교육기간 : 2012년 1월 09일(월)~1월 30일(월) 주 3회(월/수/금)
3. 인　　원 : 등록시각장애인 10명
4. 교육시간 :

① 중급반 : 10:00~12:00
② 초급반 : 13:00~16:00

5. 교육내용 : 점자쓰기, 점자읽기, 흰지팡이 사용법
6. 장　　소 : 중도실명인 기초재활교육실
7. 모집기간 : 2011년 12월 12일(월)~2011년 12월 30일(금), 전화/방문접수 가능
8. 문　　의 : 중도실명인지원센터 (02-880-0891~2)

〈 정 답 〉

제3회 실전 모의 점역 문제

점역·교정사 국가 공인 민간 자격 3급 국어 점역 문제

*** 다음 문장을 정확히 점역하시오.(총점 40점)**

스티브 잡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 방식을 바꾸었다. 테크놀로지와 콘텐츠를 융합시켜 인류의 생활방식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혁신했다. 그는 '정말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파고들었다. 그렇지만 그는 결코 과학기술 만능주의에 물들지 않았다. 죽음을 겸허히 인정하며 떠났다. 더 행복해지려면, 지식이 아닌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낙관주의적인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하다.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쓴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에서 조르바가 살았던 것처럼.

스티브 잡스(1955~2011)가 죽었다. 언제나 검은색 터틀넥 셔츠, 동그란 안경, 그리고 턱을 뒤덮은 수염으로 특징을 이루는 그를 더는 볼 수 없게 되었다. 애플의 공식 웹사이트는 스티브 잡스의 흑백 사진으로 채워져 있다. 그리고 "스티브의 영민함과 열정, 에너지가 혁신의 원천이 됐으며 이 덕분에 우리 삶은 윤택해지고 향상됐다."는 애도 성명을 내놓았다. 그는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 몇 주 만에 입양기관을 통해 한 가정에 입양되었다. 오리건 주 리드대 철학과에 입학했으나 한 학기 만에 중퇴하고 만다. 그는 컴퓨터를 전문가가 아니라 개인 누구나가 쓸 수 있게 하고, 아이팟·아이폰·아이패드를 내놓으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 방식,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즐기는 방식을 바꾸었다. 인류의 디지털 혁명을 이끌며 공학에 심미적 본능이라는 숨결을 집어넣고, 테크놀로지와 콘텐츠를 융합시켜 인류의 생활방식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혁신한다. 사용 가능한 거의 모든 지식을 손바닥 안에 쥘 수 있는 작은 기물 안에 집약한 아이폰과 아이패드는 정말 놀랍지 않은가?

관절질환은 나이가 들면 생기는 병으로 인식되어 있다. 그러나 관리에 따라 관절 건강 상태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관절을 움직일 때, 관절 압박이 심한 동작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절질환 예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무릎 관절에 독이 되는 자세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인 무릎 관절염은 무릎관절 내부에 뼈 끝부분을 싸고 있는 말랑말랑한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서 뼈와 뼈끼리 맞부딪혀 염증과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관절염을 예방하려면 관절 사이에 연골의 손상을 최소화 해야 한다. 무릎 연골은 과중한 무게 부하가 걸리거나, 운동축을 벗어난 동작을 취할 때 손상된다. 손상된 연골은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연골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년 여성들이 잘 취하는 쪼그리고 앉는 자세는 체중의 8배 힘이 무릎 관절에 가해지기 때문에 좋지 않다. 스포츠를 즐기다가 무릎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도 많은데, 스키나 축구를 하면서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동작을 취하면 관성 때문에 무릎 관절 속에 뒤틀리는 힘

이 작용해 반달모양의 반월상 연골판이 찢어지거나, 무릎 인대가 찢어지는 부상이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쪼그려 앉는 자세, 장시간동안 양반다리를 하거나 무릎을 구부정하게 굽히는 자세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불가피하게 이런 자세를 한 다음 2~3일 이상 안정을 취해도 통증이 있으면 병원을 찾는다.

장애인 전기요금 지원

① 근거규정: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2003년 3월 시행)

②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중증장애인(1~3급), 전기요금의 20% 감면

③ 지원 절차

가.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나. 구비서류: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

다. 문의처

ㄱ 문의전화: 국번없이 123

〈 정 답 〉

〈 부 록 〉

〈부록1〉 잘못 적기 쉬운 말

<맞는 표기> <틀린 표기>	<맞는 표기> <틀린 표기>
가게 가개	구태여 구태어
가고파 가곺아	굳이 구지
가까워 가까와	굵다랗다 굵따랗다
가까이 가까히	굽이굽이 구비구비
가려고/하려고(~ 한다.) 갈려고/할려고	귀머거리 귀먹어리
가려지다 가리워지다	그믐 그뭄
가르치다(국어를 ~.) 가리키다	그을다 끌다
가리키다(먼 곳을 ~.) 가르치다	그치다(울음을 ~.) 끄치다/끝이다
가벼이 가벼히	글자 글짜
가운데 가운대	긁적긁적 극적극적
가지런하다 가즈런하다	기울이다 기우리다
간니/젖니 간이/젖이	깃발 깃빨
간질이다 간지르다	깊숙이 깊숙히
갈고리 갈구리	까다로워 까다로와
갉작갉작 각작각작	까마귀 깜아귀
갑자기 갑작히/갑짜기	깔때기 깔대기
개다(날씨가 ~.) 개이다	깨끗지 않다 깨끗치 않다
객쩍다(객쩍은 소리) 객적다	꼬락서니 꼴악서니
거르다 걸르다	끄트머리 끝으머리
거뭇거뭇 검웃검웃	끝장 끝짱
거의 거이	나들이 나드리
거추장스럽다 거치장스럽다	나머지 남어지
거친/녹슨 거칠은/녹슬은	나지막하다 낮으막하다
건너다(길을 ~.) 건느다	날짜 날자
걸쭉하다 걸찍하다	납작하다 낣작하다/납짝하다
겁쟁이 겁장이	낭떠러지 낭떨어지
-겹다(눈물~, 힘~) -겨웁다	냄비 남비
고달프다 고닯으다	넉넉지/서슴지(~ 않다.) 넉넉치/서슴치
-고자 함 -고저 함	널따랗다 넓다랗다
곧이곧대로 고지곳대로	널찍하다 넓직하다/널직하다
곧이듣다 고지듣다	넓적다리 넙적다리
골병(~이 들다.) 곯병	넝쿨/덩굴 덩쿨
골짜기 골자기	넷째/셋째 네째/세째
곱슬머리/고수머리 곱수머리/곱실머리	노나 먹다 논아 먹다
괴로워/새로워 괴로와/새로와	노른자 노란자

<맞는 표기> <틀린 표기>	<맞는 표기> <틀린 표기>
녹슨/거친 녹슬은/거칠은	맵시 맵씨
높다랗다 높따랗다	머리말 머릿말
눈살 눈쌀	멋쩍다(멋쩍은 표정) 멋적다
눈썹 눈섭/눈섶	메스껍다 매스껍다
느지감치 늦으감치	메슥거리다 메식거리다
늘어놓다/늘어서다 느러놓다/느러서다	며칠 몇날 몇일 ?날
다가서다/다가앉다 닥아서다/닥아앉다	모가지 목아지
다리미 대리미	목돈 몫돈
닦달하다 닥달하다	몹시 몹씨
담배꽁초 담배꽁추/담배꽁치	무릅쓰다 무릎쓰다
더불어 더부러	미닫이/여닫이 미다지/여다지
더욱이 더우기	바가지 박아지
덥석(~ 손을 잡다.) 덥썩	바람(우리의 ~) 바램
도리어 도리여/도로혀	번쩍이다 번쩌기다
돌떡 돐떡	법석(~을 떨다.) 법썩
돌멩이 돌맹이	벚나무 벗나무
돌부리/총부리 돌뿌리/총뿌리	별안간 벼란간
돌이켜보다 도리켜보다	부랴부랴 불야불야
됐다/되었다 됬다	부엌 부억
둘러싸여(삼면이 바다로 ~) 둘러쌓여	비로소 비로서
뒤꿈치/팔꿈치 뒷굼치/팔굼치	빚쟁이 빚장이
뒤미쳐(~ 따라가다.) 뒤미쳐	뻐꾸기 뻐꾹이
뒤치다꺼리 뒤치닥거리	뽐내다 뽑내다
뒤탈 뒷탈	살코기 살고기
뒤편 뒷편	삼가다 삼가하다
드디어 드디여	색시 색씨
드러나다 들어나다	생각다 못해 생각타 못해
들여다보다 드려다보다	서둘러/머물러 서둘어/머물어
따라라(물 ~.) 딸아라	서슴지/넉넉지 서슴치/넉넉치
뙤약볕 뙤악볕	섣달 섯달
띄엄띄엄 띠엄띠엄	섣불리 서뿔리
-(으)르걸 -(으)르껄	설거지 설걷이/설겆이
-(으)르게 -(으)르께	설레다 설레이다
마개 막애	속삭이다 속사기다
말미암아 말미아마	숟가락 숫가락
말쑥하다 말숙하다	숨바꼭질 숨박꼭질
망설이다 망서리다	-시압(참고하시압.) -시앞
맞춤옷 마춤옷	싫증 실증
<맞는 표기> <틀린 표기>	<맞는 표기> <틀린 표기>
아래층 아랫층	장난 작난
아지랑이 아지랭이	저지르다(일을 ~.) 저질르다
안간힘 안까님/안깐힘	주근깨 죽은깨
알쏭달쏭 알송달송	줍다/주워(물건을 ~.) 줏다/줏어

야트막하다 얕으막하다
얄따랗다 얄다랗다/얇다랗다
업신여기다 업수이여기다/없신여기다
없소/있소 없오/있오
엉망진창 억망진창
연거푸 연거퍼
예부터/예로부터 옛부터
예스럽다/예부터 옛스럽다/옛부터
오뚝이 오뚜기
오랜만(~에 만나다.) 오랫만
오므리다 오무리다
오순도순 오손도손
올바르다 옳바르다
요컨대/바라건대 요컨데/바라건데
우러나오다 울어나오다
우러러 우럴어
우습다/우스워 웃읍다/웃으워
움큼 우큼/웅큼
으레 의례/으례
으스대다 으시대다
으스스 으시시
으슬으슬 으실으실
이튿날 이튼날
인사말 인삿말
일으키다 이르키다
자그마치 작으만치
줄곧 줄곳/줄것
지껄이다 지꺼리다
지팡이 지팽이
창피하다 챙피하다
쳐부수다 쳐부시다
총부리/발부리 총뿌리/발뿌리
추스르다 추스리다
치다꺼리 치닥거리
치르다(대가를 ~.) 치루다
케케묵다 켸켸묵다
통째로 통채로
통틀어 통털어
티격태격(~ 싸우다.) 티각태각
풋내기 풋나기
핑계 핑게
하구려(그렇게 ~.) 하구료
하려고/가려고(~ 한다.) 할려고/갈려고
하시압(그렇게 ~.) 하시앞
해님 햇님
해돋이 해도지
허드레 허드래
헝겊 헝겁
홀쭉이 홀쭈기
흐트러지다 흩으러지다
흩어지다 흐터지다

〈부록2〉 새로 추가된 표준어 목록(2011년 9월)

❑ 현재 표준어와 같은 뜻 (11개)

추가된 표준어	현재 표준어
간지럽히다	간질이다
남사스럽다	남우세스럽다
등물	목물
맨날	만날
묫자리	묏자리

❑ 현재 표준어와 뜻과 어감이 다른 단어 (25개)

추가된 표준어	현재 표준어
~길래 (~기에의 구어적 표현)	~기에
개발새발 (개의 발과 새의 발)	괴발개발 (고양이의 발과 개의 발)
나래 (날개의 문학적 표현)	날개
내음 (향기롭거나 나쁘지 않은 냄새)	냄새
눈꼬리	눈초리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눈에 나타나는 표정)
떨구다 (시선을 아래로 향하다)	떨어뜨리다
뜨락 (추상적 공간을 비유함)	뜰
먹거리 (사람이 살아가기 위하여 먹는 음식을 통틀어 이름)	먹을거리
메꾸다 (무료한 시간을 적당히 또는 그럭저럭 흘러가게 하다)	메우다
손주 (손자와 손녀를 아울러 이르는 말)	손자 (아들의 아들)
어리숙하다 (어리석음)	어수룩하다 (순박함/순진함)
연신 (반복성)	연방 (반복성)
횡하니	횡허케 (횡하니의 예스러운 표현)
걸리적거리다 (자음 또는 모음의 차이로 인한 어감 및 뜻 차이 존재)	거치적거리다
끄적거리다 (〃)	끼적거리다
두리뭉실하다 (〃)	두루뭉술하다
맨숭맨숭/맹숭맹숭 (〃)	맨송맨송
바둥바둥 (〃)	바동바동
새초롬하다 (〃)	새치름하다
아웅다웅 (〃)	아옹다옹
야멸차다 (〃)	야멸치다
오손도손 (〃)	오순도순
찌뿌둥하다 (〃)	찌뿌듯하다
추근거리다 (〃)	치근거리다

❑ 두 가지 표기 모두 인정 (3개)

추가된 표준어	현재 표준어
택견	태껸
품새	품세
짜장면	자장면

2012 점역·교정사 양성 교육자료집

발 행 처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150-917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Tel. 02-6925-1114
Fax. 02-6925-1117
http://www.kbuwel.or.kr

저 작 권 문화체육관광부

ISBN : 978-89-89286-07-3 13700